

문화예술교육 04-03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한국예술교육학회

2004. 12

문화관광부

본 연구의 결과물은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문화관광부 장관 귀하

본 연구물을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12월

한국예술교육학회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연구기간	2004년 9월-12월		
연구원	연구책임자	박중길	국민대학교
	공동연구원	김윤태	단국대학교
		민경훈	대구교육대학교
		박지숙	서울교육대학교
		전영한	서울화랑초등학교
	연구보조원	박해진	고려대 석사과정
		이주옥	고려대 박사과정
		장은혜	수원대 석사과정

* 본 연구의 원저작권은 집필진에게 있습니다. 단, 문화관광부는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본 결과물에 대하여 정책목적의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전송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04. 12

한국예술교육학회

■■■ 연구협의진

김희숙(대구교대부설 초등학교)
김희현(성남상원초등학교)
남궁일(서울계성초등학교)
류태호(고려대학교)
박은미(속초초등학교)
박해진(용인신리초등학교)
안병순(순천향대학교)
원미연(일산장성초등학교)
이규민(서울교육대학교)
이정선(중앙대부속 초등학교)
임영신(서울리라초등학교)
임은정(광명연서초등학교)
채승훈(수원대학교)
현경실(성신여자대학교)
홍경민(구미오태초등학교)

연구 요약

초등학교는 현재 통합교과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체험중심의 교과 및 학습이 권장되고 있고 문화예술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지식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성장 경험, 배경, 특기와 적성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교과 지식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서열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가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육의 특성과 교과별 과다한 교육량, 체험과 활동 중심의 교과 수업에 대한 부담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이 국·영·수 등의 주지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삶을 위한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상태이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예술교육은 교사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부족, 예술관련 교과의 수업시수 부족, 교사의 전문성 결여, 시설 및 기자재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강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교육의 방향이다.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둘째, 21세기형 인간을 길러내는데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셋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요청된다. 넷째, 사교육비 경감 및 진로 발달적 요구와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초등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기초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정규과정을 포함한 재량활동, 특별활동 및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탐색하여 선진화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방안을 마련한다. 각 장별로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은 본 연구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인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도출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방안 개발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관계자 협의회 등을 활용하였다.

제 II 장 초등학교 문화예술분야 교육정책 조사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분야의 교육과정과 국내외

특기·적성교육의 현황을 설명하였다. 외국의 예술관련 교육과정 및 특기적성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의 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각 국의 현황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우리의 교육과정 및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관련성을 음미해보고 미래의 안목을 넓히도록 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사 방법, 조사결과 및 해석, 시사점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총 10,570 개교)에서 학교급별 학교수의 비율 및 16개 시·도교육청별 학교수 비율, 도시 및 농촌지역, 학급수에 따른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한 대규모의 비례유층표집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인 표집은 총 학교수의 약 3.5%에 이르는 213개교를 표집하였고 교육청은 150개(전체 82.4%에 해당)를 대상으로 교육청별로 각 3부씩 450부를 배부하였다. 설문조사의 실시 기간은 2004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가 이루어졌으며 총 1,740개의 사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67%).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조사학교 배경변인, 조사대상 인적사항, 운영 현황, 참여자 평가 및 기대, 교사 및 장학사가 본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졌고 각각에는 여러 개의 하위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3)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그에 따른 효율적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4)분야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 교육여건(시설 및 교구, 기자재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5)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은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6)원활한 강사 수급과 관련된 전문강사 문제의 해결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 (7)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은 획일적 정책 추진보다는 개별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제Ⅴ장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현장에서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별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1)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의 전환, (2)교사의 업무 경감, (3)재정 지원의 확대, (4)교육환경 개선, (5)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6)예술분야 전문강사의 효율적 운영 등이다.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요약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언부분에서는 앞서 언급한 실행방안과 연관지어 14가지를 제안하였다. 부록에는 이 연구의 Ⅲ장에서 제시한 실태조사의 학교, 교육청, 관련단체용 설문지와 통계결과를 수록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 례

연구요약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II. 초등학교 문화예술분야의 교육정책 현황	6
1. 외국의 현황	6
가. 초등학교 문화예술분야 교육과정 분석	6
나.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현황	30
2. 국내의 현황	39
가. 초등학교 문화예술분야 교육과정 분석	40
나.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현황	58
III.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조사	63
1. 조사방법	63
가. 대상	63
나. 도구	64
다. 자료분석	67
2. 조사결과 및 해석	67
가. 방과후 특기·적성활동	67
나. 재량활동 및 교과활동	75
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80
라. 예술관련 교과의 효과적 지도방안	84
마.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86
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88
3.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	89

IV.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94
1. 문화예술교육 주체의 인식 전환	95
2. 교사의 업무 경감	96
3. 재정 지원	98
4. 교육환경 개선	99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101
6. 예술분야 전문 강사의 효율적 운영	103
7. 운영 평가 및 피드백 체제 구축	105
V. 요약 및 제언	106
1. 요약	106
2. 제언	108
참고문헌	113
【부록 1】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119
【부록 2】 설문조사 결과표	132

표 차 례

<표 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5
<표 2> 각 국의 초등학교 음악 시간	7
<표 3> 각 국의 음악과 내용 체계	9
<표 4>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회수율	64
<표 5> 초등학교 교사용 설문지 내용 구성	65
<표 6> 교육청용 설문지 내용 구성	66
<표 7> 관련학회 및 단체용 설문지 내용 구성	67
<표 8>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시행 현황	68
<표 9>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운영 횟수	68
<표 10>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수업 시간	69
<표 11>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수업 공간	70
<표 12>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담당교사	71
<표 13>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강사에 대한 학교의 평가	71
<표 14>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72
<표 15>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	73
<표 16> 교육청의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74
<표 17> 교육청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학교현장 방문	74
<표 18>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재능개발 효과	75
<표 19> 초등학교 교육목표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목표	76
<표 20> 재량활동 시간의 활동 유형	77
<표 21> 무용 및 연극·영화와 관련된 교과단원 교수방법	77
<표 22> 교육청의 무용 및 연극·영화의 교과독립 필요성 인식	78
<표 23> 초등학교 재량활동의 문제점	79
<표 24> 예술관련 교과지도를 통한 아동들의 학업성취도	80
<표 25> 예술관련 전문교사의 필요성	81
<표 26> 학교 행정책임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81
<표 27> 동료교사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82
<표 28> 학부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83
<표 29> 교육청의 학교행정 책임자, 교사, 학부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83

<표 30> 아동의 인성발달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84
<표 31> 교육청의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지원사항	84
<표 32> 예술관련 교과에의 효과적 지도방안	85
<표 33>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점	87
<표 34>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88

그림 차례

<그림 1>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94
---------------------------------	----

빈 면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탈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의 특성을 띠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많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초 지식을 탄탄히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자신에게 흥미롭고 필요한 지식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구성해내는 능력을 갖춘 자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가장 강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교육의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초등학교의 경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일선 학교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활동(직접적인 체험 활동과 공동 학습과정의 해결 등)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많은 문제해결의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초등학교는 통합교과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체험중심의 교과 및 학습이 권장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아직도 교과 지식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성장 경험과 배경 및 특기와 적성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교과 지식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서열화하는 교육을 실시해 온 것이다(김수동, 2000).

뿐만 아니라 한 교사가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육의 특성과 교과별 과다한 교육량, 체험과 활동 중심의 교과 수업에 대한 부담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더욱이 교육과정 운영이 주지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삶을 위한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상태이다. 특히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문화예술교육은 교사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부족,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는 수업시수의 부족, 교사의 전문성 결여, 열악한 교육환경(시설 및 기자재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박순경, 1998; 성경희, 2003; 함수곤, 2000).

물론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를 위한 교육 개혁의 산물로서 기존의 교육과정 체제와 교육 내용에 있어서 일대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그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7차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현장중심·학습자중심 교육과정으로 응집되어 있다. 현장중심·학습자중심이라는 교육과정의 정신은 지금

까지 수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에서 도의시된 적은 없었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만 강된 적은 없었다. 이것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사회역사적 상황에 대한 교육의 자연스러운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교육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재량활동은 기존 교과 및 특별활동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새롭게 자리하게 되었다. 재량활동의 확대와 신설은 학교 교육과정 결정과 운영의 자율화 방안으로서 단위 학교와 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재량활동 자체를 생소해 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우리 교육의 획일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교육 개혁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정권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수많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교육개혁위원회, 1995), 현 정부도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교육부, 1998a)와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교육부, 1998b) 등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기·적성교육은 지난 1995년의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안된 특기·적성교육 활동이라는 명칭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된 제도이다. 5.31교육개혁안의 핵심은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갖추어 모든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도입된 특기·적성교육은 교육부에 의하여 1996년 2월 방과후 교육 활동 활성화 방안이란 구체적인 사업으로 일선학교에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의 방안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교육부는 새 학교 문화창조의 개념을 ... 교사 중심의 수업관행을 개선하여 ...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여 키우며 ... 라고 제시하며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함양하여 ...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성 신장 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는 일상의 교육실천 운동이라고 제시하여,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입시 위주 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풍토의 개선을 위해 특기·적성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99년 3월 제시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서 제시된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활성화라는 세부추진 계획에 의하면,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특성을 기르는 활동으로, 또 건전한 학생 층제 문화 창달의 성격이 강조되면서 입시위주의 교과교육과 차별화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특기·적성교육은 각급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적지 않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분적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 당사자들의 인

식의 제고, 담당교사의 업무 과중, 재정 지원, 시설과 설비 등의 교육여건 조성,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의 문제가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한 재량활동,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교육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탐색하여 선진화된 문화예술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 기회를 많이 갖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초등학교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및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교육 연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연구의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가. 초등학교 문화예술분야 교육정책 문헌조사

- 1) 국내외 초등학교 문화예술분야 교육과정 분석
- 2) 국내외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분석
- 3) 관련 선행 연구보고서 검토

나.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 1) 초등학교의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 및 재량활동과 교과활동에 대한 교사, 장학사, 관련단체, 학부모에 대한 의견조사
- 2) 조사결과 및 해석
- 3)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

다.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1)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문헌분석, 심층면담조사, 설문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가. 문헌분석

국내외의 초등학교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국가 수준의 초등학교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고 관련분야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의미와 목적, 현황과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나 자료 등 문헌을 분석하였다. 특히 문헌분석에서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 자료,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교육 활동 유형별 사례 및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외국의 특기·적성교육 활동 운영 사례와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나. 설문조사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특기·적성교육 활동 및 재량활동과 교과활동의 현황, 인식 및 요구조사를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장, 교사, 장학사, 관련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지역별, 학교규모별 차이를 보기 위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및 학교 규모별로 설문 대상자를 표집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면담조사

심층면담은 설문조사에서 얻기 어려운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된 사실적 정보나 내용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책임자, 교원(담임교사, 문화예

술 분야 교과전담교사, 특기적성 담당교사 등)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조사는 주로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대한 실태, 요구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층면담은 1차에 한하여 대도시권 및 중소도시권 각 1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라. 전문가 협의회

교육전문가 및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협의·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주로 설문지 구성과 문항개발, 면담내용, 자료 해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연구의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연구 내용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문화예술분야 교육과정 현황 • 국내의 특기·적성교육 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학교규모별 교장, 교사, 장학사, 교육전문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 면담조사 • 문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 면담조사 • 전문가협의회

II. 초등학교 문화예술분야의 교육정책 현황

본 장은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국내외의 초등학교 문화예술분야의 주요 교육과정(음악, 미술, 무용) 및 특기·적성교육 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외국의 현황

이 절에서는 외국의 주요 국가의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200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소경희, 2000)를 참조하여 음악, 미술, 체육(무용)의 교육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각 국가의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고 각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이 전체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를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국가별로 각 분야의 교육과정의 체제, 목표, 내용 등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각 국가의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기술하면서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가. 초등학교 문화예술분야 교육과정 분석

1) 음악과

이 절에서는 외국의 5개국 음악과 교육과정과 우리나라의 것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비교 틀을 구성하고, 그 틀에 의해 각 국가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번역·분석하여 최종적으로는 6개국을 비교한 것이다. 대상국의 선정은 경제, 문화 및 교육면에서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들 중 최근에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이 완료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5개국으로 하며, 여기에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수평적으로 비교하였다.

가)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

각 국가의 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주정부)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음악 시간의 필수 여부, 음악 시간의 수, 교과의 선택 여부, 선택 시점 등을 조사하였다. 모든 국가는 초등학교에서 음악 시간을 의무로 두고 있다. <표 2>는 국가별 필수 음악의 주당 시간을 살펴본 것이다.

<표 2> 각 국의 초등학교 음악 시간

구분	음악 시간
독 일	초등학교 4학년(9세)까지 : 2시간, 김나지움(3시간 이하)
미 국	초등학교(12) : 1~2시간
영 국	초등학교(10)까지 : 매일 1시간
일 본	초등학교(11) : 1.43~2시간
프랑스	초등학교(6~10) : 2~3시간
한 국	초등학교(12) : 2시간

<표 2>에서와 같이,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9세)까지는 2시간을 그리고 김나지움에 진학하면 주당 3시간 이하가 배정되어 있다. 미국은 초등학교(12세)까지 주당 1~2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초등학교(10세)까지는 매일 1시간 그리고 3단계(Key Stage, 11~14세)에서는 1~2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10세)까지는 2~3시간을 하고, 중학교(14세)까지는 1시간의 음악 시간을 갖는다. 반면에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주당 2시간, 중학교에서는 약 1.5시간(중1학년 2시간, 2~3학년은 각각 1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각 국의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음악수업의 필수 및 선택 여부와 주당 수업 시수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 아래와 같이 모든 나라는 각 국의 특성에 맞게 음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독일은 초등학교부터 대학 입학 전 2년(13학년제 김나지움)까지 음악을 필수로 하고 주당 음악 시간도 2~3시간 정도를 배정하고 있어 가장 많은 시간을 음악수업에 할애하고 있는 국가로 조사되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학 입학과 관련한 시험에 논술식 음악 시험을 치르고 있다.

둘째, 영국에서는 10세까지 매일 음악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악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당 수업시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1)목표

각 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진술 체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각 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음악교육의 이유나 필요성이 어떤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년별 구분은 어떠한 형태인가에 관해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성과 협동심 등에 대한 목표 : 노래를 함께 하고 연주함으로써 사회성과 협동심이 길

러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 이를 중시하는 나라가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전통에 대한 동질성, 공동체 의식 강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 증대, 일체감 함양, 사회성 계발 등을 제시하여 음악을 통해 사회성이나 정체성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독일의 경우 음악교육을 통해 인격 형성, 언어 능력, 집중력을 발달시키고 기억력, 자신감 뿐만 아니라 논리 전개 및 판단 능력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음악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 음악적 기능에 대한 목표 : 음악적 기능이란 가창, 기악, 창작, 감상과 관련한 기술적 능력을 의미한다.

넷째, 인지적 능력에 관한 목표 : 각국의 교육과정에는 음악교육이 정의적, 심동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각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진술된 내용을 진술체계와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진술체계에서는 음악교육의 필요성, 당위성의 진술 유무와 목표의 학년별 구분 여부를 알아보았으며, 진술 내용에서는 사회성, 정체성/인성, 지성/음악적 기능/인지적 능력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 유럽, 영국의 유럽권과 우리나라, 미국, 일본이 내용상 비교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상대 비교되는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에서는 음악교육을 통해 음악적 능력과 감성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사회성, 협동심, 동질성, 공동체 의식 등을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음악적 능력과 감성 교육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둘째, 유럽에서는 음악교육을 통해 인격 형성과 타 교과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함께 제시한 반면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정의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인격형성, 언어 능력, 집중력, 기억력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창의성, 미적 감수성, 정조 등의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셋째, 유럽에서는 음악교육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중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영국, 프랑스가 음악을 통해 문화를, 정신사를 이해하고 비판력, 통합력 등을 배양하려고 하는데 비해, 한국, 미국, 일본은 음악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 이해 정도를 단순히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목표는 학년별 구분 없이 한 가지로 진술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 몇 개의 단계로 혹은 학년별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학생들의 성장에 따른 구체적인 음악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내용

각 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국가별로 체계가 다르게 진술되어 있다. 다른 체계로 진술된 각 국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분류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표 3>은 각국의 음악과 내용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표 3> 각 국의 음악과 내용 체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택
독 일	(가)음악 만들기 (나)음악 발견하기 (다)음악 듣기 (라)전이 및 구성하기	(가)노래 및 연주 (나)음악이론 (다)듣기교육 및 작품 감상	(가)감정표현으로서의 음악 (나)형식구조물로서의 음악 (다)무의식적 길로서의 음악 (라)유럽 밖의 음악문화	(가)작곡가와 전통 (나)정치와 사회에서의 음악 (다)작곡가와 민속음악 등
미 국	(가)창작 (나)연주 (다)감상	좌동	좌동	미진술
영 국	(가)연주 (나)창작 (다)평가 (라)감상	좌동	좌동	미진술
일 본	(가)표현 (나)감상	좌동	좌동	미진술
프랑스	(가)가창 (나)몸동작 (다)청음	(가)가창 (나)감상 (다)기악실습 (라)창작	(가)가창 (나)감상 (다)기악실습 (라)즉흥연주, 창작	(가)실습음악 (나)문화음악
한 국	(가)이해 (나)활동	좌동	좌동	좌동

<표 3>에서와 같이, 각 국의 내용 영역은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은 학교 급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학교 급별에 따라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음악 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미국은 창작, 연주, 감상의 3가지로 분류하여 연주에 가창과 기악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표현과 감상의 2가지로 분류하여 표현에 가창, 기악, 창작을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해와 활동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음악의 모든 활동과 그에 대한 음악적 요소를 이해 영역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류 체계는 학교 급별로 특징적으로 진술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에서 기악 교육을 제외하는 프랑스의 경우도 볼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독일의 경우로 음악 시간이라기보다는 미학적 논의시간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3) 교수·학습 방법

각 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수·학습 내용은 모두 다른 양식에 의하여 진술되어 있다. 이것을 수평 비교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 비교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음악 종류, 음악 개념(요소), 활동의 종류, 악기의 4가치**를 구분하여 재구조화하였다. 음악 종류는 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는 음악 종류(놀이요, 행진곡 등)를 나열하였다. 음악 개념은 음악 요소나 장르 등 음악 이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어를 추출하였다. 활동 종류는 추구하는 활동이 가창인지 토론인지, 비평인지 등 각 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활동 내용을 기술하였다. 악기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악기들 혹은 그와 관련된 용어를 추출하였다.

㉠ **음악의 종류** : 각 국은 교육과정에 악곡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와 음악의 장르만을 제시하는 경우 그리고 포괄적으로 연령에 적합한 악곡이라고 제시하는 경우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독일은 ‘연령에 적합한 노래들’이라는 용어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는 음악의 장르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구체적인 악곡 이름을 4~5개 제시하고 이 중 2~3개는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모든 국민이 동일한 음악을 연주하게 함으로써 전국민이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통일 교육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 일본은 또한 쟁과 사꾸하지 음악을 감상곡으로 포함시켜 음악교육에서 어떤 전통문화를 경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미국은 덤시랜드와 재즈, 영국에서는 찬트와 언어, 일본에서는 전통민요, 프랑스에서는 놀이요와 전통요가 제시되어 자국의 음악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래 동요, 민요, 사물놀이, 대취타, 판소리, 취타 등을 제시하여 민족 음악을 강조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영국에서는 언어를 음악 시간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는 운율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의 운율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을 초등학교에서 지도함으로써, 언어사용, 지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음악의 요소** : 독일은 절, 반복구, 3박자, 온음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2/ 4, 3/ 4, 4/ 4, 갓춘마디, 못갓춘마디, 악보줄, 음이름, 음자리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5선보를 읽는데 필요한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음정, 리듬, 음색, 셈여림, 리듬 오스티나토, 화성적 진행 등의 단어만 제시하고 있고 개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음고, 음길이, 강세, 빠르기, 음색, 짜임새, 쉼 등의 개념의 영역만 제시하는 정도이다. 일본은 음악

적 개념에 대하여 분리하여 제시하지 않고 학년별 목표에 리듬, 선율, 템포, 반복과 변화 등의 단어가 진술되어 있다. 반면에 프랑스는 음길이, 강도, 높이, 다양한 기보법, 코드구성, 계류, 해결, 동기, 악구, 주제 등 음악의 개념에 대하여 공부할 내용을 보다 풍부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 영역에서 학년에 배워야 하는 음악의 요소를 변박자, 변형장단, 장조, 단조, 민요 음계, 시김새, 주요 3화음, 다양한 악곡의 형식, 점점 세게 등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악 요소를 가장 강조하는 나라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활동 : 모든 나라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 음악과 관련한 4가지 활동을 모두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은 4가지 활동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말하기, 가락의 그래프 표현, 실험하기, 악기 알기, 일상에서 음악 이해하기,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극 장면 놀이하기 등 음악과 관련한 폭넓은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편곡하기를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은 다른 사람과 같이 연주하기, 소리 구성하기, 신체동작하기, 기억하기, 음악의 다양한 쓰임새 알기 등의 활동을 제시하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기억하기, 반주 붙이기, 새로운 기술 수용하기, 몸동작 하기, 재료에 대한 탐구, 놀이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저학년의 활동이며, 새로운 기술 수용하기는 최근 출현하고 있는 컴퓨터 음악에 대한 수용, 그리고 재료에 대한 탐구는 물체의 소리에 대한 탐구를 의미할 것이다. 프랑스는 음악교육의 활동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 이외에 크게 부각되는 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평가하기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색다르다.

㊦ 악기 : 악기를 제시하는 방식이나 그 내용도 각각이다. 독일은 신체악기, 기초적 타악기, 실로폰, 막대, 건반악기, 오케스트라 중심 그룹, 밴드, 다른 나라의 악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 미국은 리코더 타입 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전자 악기, 종이 찢는 소리, 연필 치는 소리, 신체소리, 키보드, 시퀀스, 신디사이저, 드럼머신 등 대체적인 악기의 장르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 일본, 프랑스는 타악기, 리듬 악기 등의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소고, 장구, 큰북, 작은북, 리코더, 실로폰, 멜로디언, 북, 단소, 피아노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나)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세계 각 국에서 최근 수정·개편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각 국의 교육과정을 하나의 틀에 의해 번역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은 동일한 틀에 의해 상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교의 초점은 음악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두었다. 비교분석을 통해 얻어진 음악과 교육과정의 외국의 동향과 우리나라 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음악과 교육과정의 세계 동향

첫째, 각 국은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교육에서 음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미국과 유럽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5개국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 각 국은 제 각각의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구별되고 있다.

셋째, 각 국은 음악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음악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로 독일은 음악은 어린이 및 인간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 음악은 인격 형성, 언어 능력과 집중력 개발의 도구가 됨, 음악은 전통에 대한 동질성 확립에 도움을 줌, 음악은 표현, 축하, 오락, 휴식 수단으로 음악교육은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음악은 심오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음악교육은 그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함, 음악은 다양한 교과와 관련될 수 있고 그러한 교과 특징을 살리면 다양한 지적 개발이 가능함, 기억력 개발,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포용 능력 개발, 음악을 통해 문화사, 정신사를 공부함으로써 논리의 전개 및 판단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음 등등을 내세우고 있다.

넷째, 각 국의 음악교육은 음악적 기능 향상보다는 음악적 개념 습득, 음악을 통한 학문적 이해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2)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첫째,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교육의 철학, 지향점, 목표 등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목표 진술 방법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

넷째,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를 늘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구조나 내용 역시 매우 유사하다. 미국은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모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치밀하게 분석 연구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는 학문적 밑바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미술과

외국의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여러 국가들이 추구하는 21세기 미술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미술 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 선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분석 대상국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의 7개국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가) 미술과 교육과정의 특징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의미에서의 국가 교육과정은 아니다. 그러나 미술교육과 관련된 목표와 내용을 국가가 NAEA(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와 같은 단체에서 개발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AEA에 의해서 개발된 국가 미술교육 기준(National Standards for Art Education)은 모든 미국 학생들이 4개의 예술 분야- 무용, 음악, 연극, 시각 예술에서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범위는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이며 내용과 성취 모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 개혁 노력의 한 결과로서 6개의 국가교육 목표가 1990년에 발표되었다. 이는 학생이 개인적인 잠재 가능성을 성취하고, 세계 경제에서 생산적이고 유능한 일꾼이 되며, 시민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 모든 과목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과 기술을 기술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이다.

영국의 새 교육과정은 1999년 9월 9일에 개정되어 200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QCA 2000). 첫째,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형식이 현장에서 사용하기 쉽게 바뀌었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 문서 앞부분에 학교 교육과정 및 국가 교육과정의 가치, 목표, 목적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셋째, 국가 교육과정 문서 앞부분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이 좀 더 명료해지고 종전보다 더 많은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key stage 4에서는 많은 융통성이 허용되고 있다.

영국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과 국가 교육과정의 가치와 목적을 다음에 두고 있다.

첫째, 영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육체적, 정신적 발달로 개성적인 존재 육성

둘째, 건강, 정치, 경제적 활동, 발달에서 기회 균등의 통로

셋째, 긍정적인 반응

넷째, 사회 참여의 준비(경제, 사회, 문화의 지구존화, 새로운 직업, 여가 형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팽창 등) 또한 범 교육과정적인 학습으로 영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과 함께 기능의 습득에서 핵심 기능과 사고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체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key stage 1, 2와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key stage 3, 4를 묶어서 2단계로 제시되어 있으며, 교과별 구조는 동일하다.

미술의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교과명이 미술과 디자인으로 바뀌었으며, key stage 1, 2, 3까지가 필수, key stage 4는 선택으로 되어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과 디자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과 디자인(Art and design)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고무시킨다.

둘째, 시각적, 촉각적, 감각적 경험과 세계에 대한 독특한 이해와 반응의 방법을 제공한다.

셋째, 학생들은 색채, 형태, 질감, 패턴 및 다른 물질(materials)과 과정(processes)을 사용하여 그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세계와 상호 작용한다.

넷째, 미술과 디자인 활동을 통해서 정보화된(informed) 가치 판단과 미적(aesthetic)이고 실천적인(practical) 결정을 하도록 배우며, 점차 환경을 구성하는데 관여하게 된다.

다섯째, 학생들은 미술가, 공예가와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개념과 의미를 탐색한다.

여섯째, 그들은 우리 시대, 다른 시기와 다른 문화에서 미술, 공예와 디자인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배운다.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각 교과별로 출판될 뿐만 아니라 타 교과와의 연계성 있는 구성 체계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편집되어 출판된다. 이는 교육의 총괄 목표 아래 각 교과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상응하며 교육 목표를 실현해 가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 교육과정의 개정은 우리나라의 제6차, 혹은 제7차 교육과정식으로 그 변화가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내용 구성 또한 각 단계별로의 연계성 있는 내용 체계와 이의 실현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처럼 일관된 하나의 형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서로 다른 형식과 표현으로 나타난다.

호주는 뉴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부 호주, 남부 호주, 테즈메니아의 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 호주 수도 자치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와 북구 자치구(Northern Territory, NT)의 두 특수 행정 구역으로 나뉜다. 호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 지방 정부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은 주 정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과정보다는 주 정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에 준한다. 호주 수도 자치구(ACT)의 학교 제도는 유치원에서 1학년(early years of schooling), 초등학교 하급 학년에 해당하는 1학년에서 4학년(lower primary), 초등학교 상급 학년에 해당하는 4학년에서 7학년(upper primary),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에서 10학년(high school),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1학년에서 12학년(post compulsory)의 5단계로 나뉜다(이주연, 박은덕, 2002).

캐나다는 6세에서 16세까지의 의무 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4세 유치원부터 12학년 혹은 13학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밟는다. 각 교육 정책은 주정부마다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또한 주마다 독립적인 특성을 지닌다. 캐나다의 초등학교 미술 교과의 목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술 경험을 통하여 감각, 감상, 이해, 조형 능력을 기르는 것이 특징이다. 중등학교 미술 교육은 진학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국과 영국의 교육 제도, 프랑스의 교육

내용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주마다 특색이 있는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실시하는 '신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개선의 기본 방침을 전체 학교 수업을 주 5일제로 감축하면서 수업 시 수 감축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내용을 엄선하고(日本教育課程審議會, 1998), 각급 학교가 융통성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면서 학습자의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기를 것을 강조하였다.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과제를 찾고,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주체적으로 판단·행동하고, 능숙한 문제 해결력, 자기 조절력 및 타인과 함께 협조할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감동하는 마음 등의 풍부한 인간성, 그리고 건전하게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건강과 체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개선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 내용을 엄선하여 수업 시수를 감축하고, 선택학습의 폭을 넓혀 개성의 신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제화,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 이해, 외국어 회화, 정보, 환경, 복지 등과의 통합적 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적 학습 시간을 개설하였다. 특히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활용의 기초적 기술에 관한 내용을 필수로 하여 강화하였다.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이다. 각 주들은 연방 기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교육 정책과 계획에 있어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주마다 다양한 교육 내용과 교육과정들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학제는 초등과 중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초등은 보통 1학년에서 4~6학년으로, 중등은 5~7학년에서 13학년으로 주마다 수업 연한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즉, Berlin과 Brandenburg주에서는 초등학교 수업연한이 6년인데 비하여, Hessen, Schleswig-Holstein, Baden Württemberg, Thüringer나 Rheinland-Pfalz주에서는 4년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일관된 기간도 없다. 주마다 필요에 따라 개정을 하며, 같은 주에서도 학년 단계별로 개정된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도 많다.

미술과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도 주별로 각각 다른 구성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구성 체제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같은 주라도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또한 다르다. 하지만 미술과 교육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미술과의 과제 및 목표, 수업 내용,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수·학습 내용이나 방법들에 대한 기술을 제시한 주는 몇몇 없다. 이처럼 독일은 주 단위로 매우 중앙 집권적인 교육과정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각 학교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큰 자율권이 주어지는데 교사들은 진학과 진급 자격에 대한 최종 등급 판정의 기초가 되는 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다.

독일 미술 교육의 방향은 국제적인 추세를 따르기보다는 독일 자체 내에서 부딪치는 사회·정치적 문제와 교육 방향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독일의 미술과는 문명의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초래되는 여러 사회 분야 중 시각적·미적 문제들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룬다. 즉, 미술과는 모든 시각적·미적 현상들을 포괄하는 아주 폭넓은 의미에서 미적 교육영역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독일의 미술 교육은 크게 1950년 이후 예술 교육에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미적 교육의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황연주, 2000).

미적 교육은 시각적 미디어의 개념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미술을 그것의 특정대상의 하나로서 포함했다(May erhofer & Zacharias 1976). 상위 개념으로서의 미적 교육은 모든 시각적 현상들의 유형들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Selle(1981)는 미적 교육의 개념을 인간을 의미 있게 그리고 동시에 의식화해서 자각하게 만드는 시도들의 명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이 미적 교육이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술 교육의 주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미적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론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론적, 인지론적, 교육론적 선 이해를 포함한다. 미적 교육은 전형적인 미술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시각적·미적 현상들과 관련된 교육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목표

영국의 미술과 디자인 성취 목표는 다른 능력과 성숙도를 가진 학생들이 각 단계가 끝날 때까지 성취하리라고 기대되는 지식, 기술, 이해를 결정하는 것이다. 성취목표는 8개의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준 8보다 뛰어난 특별한 수행에 대한 수준도 포함하고 있다.

호주의 예술 영역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 공간, 운동 감각, 상호 인격, 시각 경험을 통하여 학생의 지성적이고 표현적인 잠재력을 개발한다.

둘째, 다음과 같이 상징 언어로서의 예술 형태들을 사용하고 이해하도록 학생들을 돕는다: 개인적 표현의 기초로써 생각의 탐색과 개발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술, 기법과 과정을 개발하기, 예술 작품을 공연하거나 나타내는 능력을 개발하기, 다른 사회와 문화의 집단들이 어떻게 예술에 참여하고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탐구하기.

셋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작품을 묘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예술 비평과 미학에서 기능을 개발한다. 넷째, 예술은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전개된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개발한다.

일본의 미술 교육(도화 공작과, 미술과, 예술과- 미술, 공예)에서는 표현과 감상을 통하여 조형적인 창조 활동의 기초 능력을 육성하고 이에 대한 감성을 길러 주어 표현의 기쁨을 느끼게 하며, 미

술을 애호하는 마음과 풍부한 정서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술 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미적 관계들에 대해 민감화하며, 개인적인 미적 흥미와 욕구를 표현하는 능력, 시각적 사고, 가치 판단 능력, 그리고 비평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즉, 다양한 미술적인 활동과 접근을 통하여 미술을 향유하며, 이용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는 미술의 개념 확장으로 프랑스권에서 조형 예술이 미술을 대신하게 된 것은 1950년대였다. 교육과정에서 조형 예술을 형태를 구성하고, 형태의 문제와 관련된 예술 영역의 총체로 정의하며 오늘날의 다양하고 폭 넓은 예술 개념과 예술 작품 양상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프랑스 조형 예술 교육과정에서는 감수성과 지성의 발달, 열린 의식, 사회적 결속력,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능력, 분석 능력, 비평 의식과 인간의 발달과 시민 교육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2)내용

미국의 교육과정은 내용 기준과 그에 따른 학년별 성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각 주에서의 미술 교육과정은 NAEA에 의해 1994년에 개발된 기준을 토대로 짜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준은 학생 스스로의 사고나 느낌 및 감정 등을 미술 활동을 통하여 나타내고 스스로의 노력에 따른 결과가 지니는 장점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제, 상징 및 의미가 담긴 이미지 등 시각적인 표현의 넓은 범위를 활용하여 평가함으로써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이주연, 박은덕, 2002). 제시된 기준들은 특히 발상-작업-전달-추리-조사 과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획득하여 보다 발전시키고 능숙하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아이디어, 개념, 이슈, 딜레마, 지식을 경험함으로써 이에 따른 발전과 성취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호주의 시각 예술은 미술, 공예, 디자인 등 3개의 큰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3개의 영역은 시각 예술 내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좀더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기 위하여 도자 공예, 디자인, 소묘, 그래픽 디자인, 회화, 판화, 조소, 섬유 분야 등의 구체적인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창작, 제작, 발표 : 학생들이 새로운 이미지와 소재를 경험하도록 하고, 평면과 입체로 형태와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관찰하고, 기록하며, 사진 찍고, 드로잉 작업을 하며, 실험 및 시험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표현 재료를 다양화하는 가운데 선, 모양, 색채, 질감, 형태 등의 조형 요소를 이해하도록 하며, 좀더 나아가서 양식과 형태의 개념을 학습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 선호하는 것을 선

택하도록 한다. 다양한 표현 재료와 기법을 다루면서 기법과 기술을 배우며, 재료나 기법 등을 한정 하여서도 작업하는 방법을 배워서 잠재력과 이를 활용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작업 과정을 기록하여 작업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알게 한다.

②미술 비평과 미학: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과 다른 사람의 미술품을 서술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비평 기준을 설정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 및 경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미술의 가치에 대하여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은 양식, 기법, 주제, 미술의 디자인 형태에 관하여 시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고 토론하며, 조형 요소와 원리 및 미술 용어를 사용하여 시각적 상징과 형태,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미술 비평가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미술품과 관련하여 가치가 왜 변화하는지에 관하여 토론한다.

③과거와 현재의 맥락: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시각 미술이 제작된 연유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은 어떻게 시각적 이미지와 형태를 형성하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며, 또한 미술이 가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재설정 하는지를 이해하며, 미술의 역사가 형성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한다. 여성 및 남성에 의해 제작된 미술품을 연구하며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이론적 자료에 따른 가치와 미적 태도 등을 비평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따라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및 문화와 연계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학습의 활동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사회에서의 미술 가치를 이해하면서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미술품을 바라보는 학습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주의 시각 예술 영역 교육과정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서 형성되어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미술 작품을 탐색하고 표현하며 감상하는 활동에 모두 문화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교육과정에서 순수 예술 영역 내의 순수 예술 분야의 경우 규정된 학습 성과는 유치원부터 7학년까지 이미지 개발과 디자인 전략, 맥락, 예술과 디자인의 시각 요소와 원리, 재료, 테크놀로지, 과정 등 4가지로 나누어 학년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11학년의 경우에는 요소와 원리,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인간의 표현 등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교육과정에서 예술 영역에 속한 시각 미술의 경우 전통적인 순수 미술, 즉, 드로잉, 페인팅, 조소, 판화, 건축, 사진, 공예, 산업 디자인, 상업미술, 퍼포먼스 아트, 전자 미술 등의 영역이 이에 속한다. 시각 미술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창의력 외에도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일본은 소학교의 도화 공작, 중학교의 미술, 고등학교의 예술로 구분되어 있다. 소학교, 중·고등학교의 도화 공작, 미술 교과, 예술 교과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중요하게 다루며 개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1)표현과 감상에 관한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미술을 애호하는 마음과 미에 대한 감성을 길러주어서 조형적인 창조 활동의 기초 능력을 넓히고 풍부한 정서를 기르는 지도가 한층 더 충실해지도록 한다. (2)아동의 생활을 밝고 풍부하게 하며, 생애에 걸쳐 즐겁게 그리거나 만드는 활동을 즐기고 기도록 하며, 표현과 감상의 즐거움을 맛봄과 동시에 풍부한 표현 활동이나 감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자질과 능력이 길러지게 한다. (3)각 학교 단계의 특성에 따라 각 학교가 융통성을 가지고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선택하거나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4)각 학교 단계의 특성에 따라 일본과 아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미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심화되도록 감상의 충실화를 꾀한다. 지역의 미술관 활용을 격려한다.

특히 일본의 미술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학교 급별 내용 중, 먼저 소학교 도화 공작의 학년별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재료를 기초로 하여 즐거운 조형 활동을 하도록 한다. (2)느낀 것이나 상상한 것 등을 그림이나 입체로 나타내거나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독일의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또한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화, 그래픽, 조소, 건축 그리고 시각 매체와 같은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Berlin주의 미술과 교육의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주의 독일 미술과 교육의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시각적·미적 문화의 현상과 관계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과정 변화에서 과거의 교육 내용으로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지식적인 요소를 나열하는 식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교육이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보다는 태도, 능력을 형성하는데 더 중점을 두게 되므로, 이러한 요소를 포함한 배우고 익혀야 할 모든 것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교육 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제시한다.

(3)교수-학습 방법

영국의 학습 프로그램은 (1)지식, 기능, 그리고 이해 : key stage 동안 교과에서 가르쳐져야 할 내용, (2)학습의 폭 : 지식, 기능, 그리고 이해 가 가르쳐져야 할 학습 맥락, 활동, 분야와 경험의 범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과별 교육과정 문서의 왼쪽 여백에는 해당 단계 동안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제시되어 있다.

(1)교과를 가르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2)학습 프로그램에 제시된 단어와

문구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 내용, (3)교과 학습에서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제안, (4)다른 교과와의 관련을 제시하는 내용 등이다. 이것은 수업 요구 사항간의 관련을 제시하고, 어떤 교과의 요구 사항이 동일 key stage의 다른 교과의 요구 사항과 어떻게 관련되지를 제안하고 있다.

캐나다는 내용 영역별로 학년별 기대되는 학습 성과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이주연, 박은덕, 2002). 1학년은 학생들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아이디어(사고, 느낌, 경험 등)를 평면 및 입체로 나타낼 수 있다. 미술품 제작 시 디자인 요소들(색채, 선, 모양, 형태, 공간, 질감)을 구별하고 1학년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은 학습 방법이 지닌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서로의 작품의 형태나 색, 표현 방법의 재미를 느끼도록 하여, 실제 해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2) 손쉬운 재료를 접해 그 느낌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친구의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들어보고 즐겁게 보도록 한다. (3)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 등을 그림이나 입체로 나타내거나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도록 한다. (4)작품의 좋은 점이나 재미있는 점 등에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한다. (5)재료나 장소의 특징을 기초로 궁리하여 즐거운 조형 활동을 하도록 한다.

독일은 Berlin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느끼고 상상하고 소망하며, 눈과 손으로 인지하고 그들의 이해력 안에서 파악하고, 파악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조형 예술 교과의 수업 내용으로 될 수 있다고 운영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Berlin주의 조형 예술 교과 수업의 내용은 각각의 중심이 되는 요점을 강조하는 3가지의 큰 영역으로 구성되어진다.

프랑스는 미술 문화 교육의 실현을 위해 문화부와 교육부가 서로 협력하며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기관에서 문화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요원들이 다양해진다. 이렇게 확대된 미술 개념은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문화 현상과 직접 접촉하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요약 및 시사점

첫째, 미술 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현대 미술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감상교육이 강조되며, 현대 미술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적 사고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 읽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의미를 지각할 수 있는 이해 방법이 획득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프랑스 조형 예술 교육은 감각적이며, 감정적이며,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양상을 모두 동원하는 비평적인 태도를 택한다(이은적, 2001). 자신의 판단 근거를 정의하고 설명하게 하며, 예리한 분석 능력을 키우고, 미술적 사실의 출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미술과 교육 내용인 것이다.

둘째, 미술 창조와의 연계 속에 학생의 실기를 고안하는 개념은 작품 활동-사고로 요약되고 이는 단순히 행하는 과거의 실기를 대신하게 된다.

셋째, 교과 내용으로 제시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제시한다. 교육과정은 다양한 작업 방식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러나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대표적인 개념들을 제시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고안하도록 돕는다. 이는 공간, 색, 질감, 재료, 화지, 바탕 등의 기본적인 요소와 "답음", "재현", "선택", "형식과 의미", "조형적 이질성과 긴밀성"의 문제들 등으로 정리되어 제시된다.

넷째, 언어의 역할을 강조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조형 예술 교육에서 언어화해보는 과정은 평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실기 작업과도 분리되지 않으며,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도 그 역할을 강조한다. 그것은 자신의 작업, 학습한 내용, 획득한 지식을 다양한 작품 경향 속에 위치시켜 보기 위한 것이다.

8개 나라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첫째, 미술의 시각적 문해력을 강조하고 있다. 시각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으로 호주의 교육 목표에는 상징 언어로서 예술 형태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제시되었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교육에서는 창작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조형 예술 교육의 핵심적인 변화는 시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독일에서도 미적 교육에서 미적인 관계들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미술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내용 기준에서 미술을 역사, 문화와 연관시켜 이해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영국도 학생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관련된 학습 경험을 목표에 제시하고 있다. 호주, 대만, 독일, 프랑스의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에는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자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있다. 일본은 실제 지도 내용에서 일본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감상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셋째, 미술에서의 비평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비평적 활동은 미적인 지각에서 탐색과 제작, 평가, 감상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미학과 미술 비평에 대한 기술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작업의 평가와 발전, 호주의 미술 비평과 미학,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비평적 사고, 프랑스의 감상 교육이나 언어의 역할 강조 등에 잘 나타나있다.

넷째, 표현 활동에 대한 접근이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접근은 영국에서는 아이디어 탐구와 발전, 호주는 아이디어 탐색 개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이미지 개발과 디자인 전략, 독일의 미적 문제, 프랑스의 실기의 고안 등에서 보여진다. 표현 활동을 결과물의 질보다는 탐색과 구상의 과정에 좀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조형 교육의 핵심적인 변화 의지는 실기를 사고

하는 실기, 비평적 실기, 문제 해결을 통한 학습경험의 구성 등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자아 표현이나 창의적 표현의 의미가 비평적 표현으로 전환을 하여야하며 다른 영역 즉 시각적 문해력이나 문화적 맥락의 이해와 그 중심을 같이 할 수 있는 표현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접근은 독일의 경우처럼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등장했던 다양한 매체마다 고유한 표현 방법, 표현 재료, 조형 언어들이 있으며, 이것은 또한 미술이 발달하여 오는 과정에서 탄생된 양식들이기 때문에, 미술 문화 교육적 관점에서 학습자들이 그러한 고유한 영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 양식들을 직접 경험하고, 그 특징적인 조형 언어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호주의 기능, 기법, 과정 사용,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재료, 테크놀로지, 과정, 일본의 그림이나 조각/디자인이나 공예/영상 미디어, 독일의 활동영역 등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고유한 표현 방법과 재료, 조형 언어를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 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미술 교육에서 표현 활동 지도에 대한 명확한 위상이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 전체에 흐르는 범교과적인 성격을 미술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환경 교육, 양성 평등, 정보 기술, 언어, 다문화 교육, 특수 교육, 직업 교육 등의 보편적인 교육적 방향을 관련시키고자 하고 있다. 타 교과와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미술과의 내용을 따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간의 통합을 교사의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명시를 하는 것도 보다 실질적인 교과간 또는 학제간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리라고 본다.

여섯째, 미술과에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형식에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내용 기준-성취 기준, 영국은 학습 프로그램-성취수준, 캐나다는 내용 영역-평가 영역의 형태로 내용-목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교육 목표-교육 내용, 독일은 수업 목표-수업 내용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목표-내용의 방식을 취한다. 호주는 내용 기준과 수준별 내용 체계로 내용에 대한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교육 목표-교육 내용의 형태이지만 수업 내용은 학습 예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와 내용의 제시 형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일곱째, 초·중·고등학교의 미술 교과 목표와 내용에 대한 접근이 나라마다 다르다.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은 초·중·고등학교의 미술 교육이 학교급별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는 초등학교는 도화 공작, 중학교는 미술, 고등학교는 예술로 교과 명칭의 차이에서부터 학교급별 미술과의 성격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3)체육과(무용)

외국의 체육교과가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 체계를 분석하는 일은 우리나라 체육교육 목표 및 내

용의 모습을 진단하고, 목표와 내용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며 목표 및 내용 체계를 수립할 때 유의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전 세계의 체육교육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지향하는 체육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체육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를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외국의 체육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3개국(미국, 캐나다, 호주)과 우리나라처럼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3개국(영국, 중국, 일본)을 선정하였다. 본 절이 구성은 각국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체육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각 나라별로 요약한 부분과, 우리나라 체육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수립하는데 고려될 수 있는 시사점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

(1)목표

미국에서는 국민체육의 진흥을 목표로 하여 체육교육의 중심이 되는 학교체육의 개혁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과 법적·제도적 개선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체육교육 목표를 함께 성취하기 위해 수업 시수를 증대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 캠페인의 내용은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체육 학습의 기초수준과 도달수준을 가시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 도달수준에 접근토록 하는 수업 시수, 운동량과 정도, 시설활용의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고 있다(강신복, 2002).

캐나다의 체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균형있는 움직임 참여기회를 통해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캐나다에서 체육은 유치원에서 10학년까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수업 시수 중 10%를 체육교과에 할애하고 있다.

호주는 총 8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그 강제성이 많지 않아 일부 주정부만이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즉 빅토리아주나 퀸스랜드주처럼 교육을 중시하는 주에서는 독립적으로 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주 교육과정은 미국의 주 교육과정과 같이 단지 지침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영국과 같이 국가 교육과정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최의창, 2002).

영국의 학교 교육은 5세 이전의 학령전 교육(약 2년간), 5- 11세의 초등교육(약 6년간), 11- 16세의 중등교육(약 5년간), 그리고 16세 이후의 의무교육 이후교육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5- 16세에 해당하는 기간, 즉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 기간 교육은 연령에 따라 4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5- 7세, 2단계는 7- 11세, 3단계는 11- 14세, 그리고 4단계는 14- 16세에 해당한다. 초

등학교는 만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로, key stage 1(5-7세)과 key stage 2(7-11세)에 해당한다(소경희외, 2000).

영국에서는 체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National Curriculum in Physical Education, 15p). 체육은 “학생들의 신체 능력 및 자신감을 발달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능력들을 개발하도록 한다. 체육은 신체기술능력, 신체의 발달 및 움직임 지식을 증진시킨다. 체육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경쟁적인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학습에 대한 도전을 하도록 한다. 체육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의 유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창의적이고 경쟁적이며 도전적인 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은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작, 아이디어 및 운동수행을 평가하고 수행하며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적성, 능력, 흥미를 발견하고 평생참여의 신체활동을 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다.”

일본은 새 교육과정의 고시, 주5일제 수업 실시, 종합적 학습 시간의 시행, 중·고 일관 교육 도입, 단위제 교과의 신설, 종합 학교의 설치, 다양한 평가 방법의 도입 등의 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8년 12월 일본은 새 유치원 교육요령,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그리고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였고, 학습지도요령은 각 교과에 필수적인 목표,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소경희 외, 2000). 학습지도요령에서 체육의 명칭은 소학교의 경우 체육으로, 중학교에서는 보건 체육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체육보건으로 되어 있다. 소학교와 중학교의 체육시수는 주당 2시간(연간 90시간, 1년 35주 기준)이며, 고등학교의 체육보건 과목은 체육은 7-9단위, 보건은 2단위로 되어 있다(조미혜, 2002).

(2)내용

미국 체육교육 내용은 7가지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각 기준은 다시 유치원, 2학년, 4학년, 6학년, 8학년, 10학년 및 12학년으로 나뉘어 세부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들에는 체육교육이 체력 교육 또는 스포츠 교육 이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포괄적인 체육교육의 철학을 담고 있다. 다음은 미국 체육교육에서의 7가지 내용 기준이다.

- ① 여러 가지 움직임 유형을 습득하고, 몇 가지 움직임 유형을 숙달하여 시범보일 수 있다. 이 내용기준은 움직임을 습득하고 움직임을 완전한 숙달을 도모한다. 움직임 습득은 신체활동 참여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개발과, 매일 신체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운동기능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운동 패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초를 수립하는데 있다.
- ② 운동기능의 학습과 발달에 관한 움직임 개념과 원리를 운동 수행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운동 기능의 습득과 실행을 이해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는 운동 학습 및 발달, 스포츠심리학 및 사회학, 생체역학 운동생리학

과 같은 학문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이 기준에는 힘의 가중, 운동수행의 불안 효과, 트레이닝의 원리와 같은 개념을 포함한다.

- ③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삶의 유형을 보여줄 수 있다. 이 기준은 학생들이 의미있는 신체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패턴을 수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기준은 체육수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체육 수업 밖에서의 학생들의 삶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활동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체육 수업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참여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④ 건강 체력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 기준은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높은 수준의 기초체력, 신체능력(physical competence)의 향상과 활동적인 여가 참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 체력의 요소는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및 신체구성을 포함한다.
- ⑤ 신체활동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개별 행동과 사회적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이 기준은 신체활동 상황에서 개인 및 집단의 성공을 증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행동을 성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⑥ 신체활동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경을 보여줄 수 있다. 이 기준은 신체 활동 참여 속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의 유사함과 차이점에 대한 존중감을 발달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⑦ 즐거움, 도전, 자기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체활동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기준은 개인의 의미를 제공하는 신체활동 참여의 내재적 가치와 이점에 대한 인식의 발달을 목표로 두고 있다. 신체 활동은 자기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즐겁고, 도전감을 주며, 재미를 느끼게 한다.

캐나다의 체육과 교육과정의 각 영역 안에는 학생들이 각 학년에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를 반영하는 학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학습결과는 내용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각 내용에 대한 지식, 기술, 개념, 태도,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각 학년에서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들을 진술한 것이다. 유치원에서 10학년까지의 움직임 영역은 5가지로 구분된다.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을 선정함으로써 체육교육의 3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균형있는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호주의 체육교육 내용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의 양이 증가되어야 하고, 학습 결과(learning outcomes)들이 학습되고 제시되는 매개체로서 활용될 수 있는 신체활동들을 계획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신체활동은 중간수준부터 활발하게 전체 근육을 사용하는 움직

임과, 이동 및 비이동 운동기능, 자유롭고 구조화된 환경에서의 신체 관리 및 물체조작기능의 발달을 포함한다. 신체활동은 최상의 골격밀도 증진뿐만 아니라 유산소체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적정수준의 체지방을 포함한 건강체력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체활동은 간단한 이동 운동에서부터 고도의 제도화되고 공식화된 신체활동에 이르는 놀이, 게임, 스포츠, 체조, 수상활동, 무용, 모험활동 그리고 다른 강도있는 레크레이션 등을 포함한다. 체육교육 내용 선정에 활용되는 영역과 맥락의 범위는 각 체육교육 목표 속에서 제공되고 있다.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소개되는 각 목표의 핵심 내용의 할당시간과 계열성은 학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학생들은 주요 학습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핵심 내용영역에 참여하게 된다.

영국의 체육교육 내용은 각 연령 단계별로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학습내용을 간단히 언급한 후, 활동 영역별 학습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추가된다.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는 체육 학습 프로그램이 연령단계(key stage)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학습 프로그램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종류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 가지는 지식, 기능, 이해로 연령 단계 동안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며, 다른 한 가지는 학습의 범위로 지식, 기능, 이해의 내용에서 가르쳐야 할 학습 맥락, 활동, 분야와 경험의 범위를 말한다(소경희 외, 2000).

일본의 체육학습지도요령(1998)에 제시된 체육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소학교의 1~2학년에는 2개 영역(기본 운동과 게임), 3~4학년에는 6개 영역(기본운동, 게임, 기계운동, 수영, 표현운동, 보건), 그리고 5~6학년에는 7개 영역(몸만들기, 체력운동, 기계운동, 육상운동, 수영, 볼운동, 표현운동, 보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크게 체육분야와 보건분야로 양분되어 있고, 체육 분야는 구체적으로 몸만들기, 기계운동, 육상경기, 수영, 구기, 무도, 무용, 체육이론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각국의 체육교육 목표 및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각 국가의 체육(무용)교육 목표 및 내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체육(무용)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체계화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체육과 교육과정의 세계 동향

첫째, 미국은 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가이지만, 국가 수준의 체육교육의 목표와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체육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대명제 하에 학교체제에서 체육교육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5가지로 합의하고, 이를 다시 20개의 세부목표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질 높은 체육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써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교육적 성과를 내용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캐나다는 유치원에서 10학년까지의 체육교육 목표와 내용, 그리고 11학년과 12학년의 체육교육 목표 및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두 가지의 체육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에는 큰 차이가 없다. 공통적으로 캐나다의 체육교육 목표를 활동적인 삶, 움직임, 그리고 자아 및 사회적 책임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목표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움직임 목표에서는 활동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0학년까지는 야외활동, 무용, 게임, 체조, 그리고 개인 및 대인활동의 5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고, 11학년과 12학년에서는 무용, 게임, 체조인 3개 영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체육교육 목표는 저학년에서는 2개 학년씩, 그 이상에는 1개 학년씩 각 해당학년에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학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유치원과 1학년을 함께 묶고, 2학년과 3학년을 함께 묶어 2개 학년이 동일한 학습결과를 가지게 되며, 4학년부터는 1개 학년씩 독립적인 학습결과를 가지게 된다. 이 학습결과는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호주 퀸스랜드주의 체육교육 목표는 크게 세 가지 부분- 개인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신체활동의 개념 및 기능발달, 자기개발의 촉진으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체육교육 목표에 따라 공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여주어야 할 최종 학습 목표를 난이도에 따라 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기본형 학습목표와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넷째, 영국의 체육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확립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영국의 체육교육 목표는 성취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연령 단계 말기에 학생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지식과 기능 및 이해의 정도를 나타낸다. 성취 목표는 8가지 수준의 난이도와 수준 8이상의 최상위 수준의 운동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수준은 학생들이 해당 수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운동수행의 유형과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여섯째, 일본도 영국처럼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이다. 일본의 체육 교과명은 중등학교에서는 호주처럼 체육이 아닌 보건체육 또는 체육보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체육교육 목표는 일본의 경우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별로 체육의 목표를 구분하고 있다. 각 학교급별에 따라 그 제시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학교의 경우는 소학교급에 해당되는 체육교육 목표가 제시된 후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2개 학년씩 체육교육 목표가 제시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의 체육교육 내용은 영국처럼 학교별 교육 내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체육교육 내용의 진술 수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영국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2) 우리나라 체육과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이 부분에서는 외국의 체육교육 목표 및 내용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체육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를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체육교육 목표 및 내용에 관한 대안적인 용어의 사용 문제이다. 외국의 체육교육 목표와 내용은 우리나라처럼 목표와 내용이라는 형식을 따르지 않고 각국의 교육 체제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나타내는 체육교육 목표 및 내용에 대해 미국에서는 내용기준(content standards),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학습결과(learning outcomes), 영국에서는 성취목표(target attainment)이라는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목표와 내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즉, 아시아권의 한국, 중국, 일본은 목표와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는 목표와 내용을 통합하여 내용기준, 학습결과, 성취목표라는 대안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육과에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간의 관련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의 경우처럼 대안적인 용어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학교급별 또는 학년별 체육교육 목표 체제의 다양성이다. 외국의 체육교육 목표는 대체로 학교급별 또는 학년별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의 체육교육 목표 체제를 따르고 있다. (1)학교급별 체육교육의 목표가 존재하지 않고 학년별 체육교육 목표가 제시되는 방식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2개 학년씩 체육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로 체육교육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에서는 유치원과 1학년을 함께, 2학년과 3학년을 함께 제시하고 나머지 학년에서는 학년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학교급별과 학년별 체육교육 목표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수준별 체육교육 목표가 제시되는 방식이다. 호주와 캐나다가 이에 해당된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6단계의 체육교육 목표 수준, 영국에서는 8단계의 체육교육 목표 수준이 4가지의 연령단계(key stages)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3)학교급별과 학년별 체육교육 목표가 함께 제시되는 방식이다. 특히 일본은 초등학교에서는 2개 학년씩 제시되고 있고 중등에서는 학년개념이 아닌 체육과 보건 부분으로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체육교육 목표의 체제는 앞의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 학교급별 체육교육 목표에서 현재 단일 목표로 제시되고 있고, 학교급별과 학년별 체육교육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체육교육 목표 체제의 세 가지 방식과 더불어 그 밖의 다른 방식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의 체육교육 목표체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제 또는 개념 중심의 체육교육 목표 방향 설정이다. 외국에서는 체육교육의 목표를 하나의 주제 또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체육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체육교육 목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 주제 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된 5가지의 체육교육 목표가 다시 주제중심으로 진술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활동적인 삶, 움직임, 자아 및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3가지의 개념으로 체육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호주에서도 개인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신체활동의 개념 및 기능발달, 자기개발의 촉진이라는 3가지 측면의 거시적인 체육교육 목

표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기능습득 및 발달, 기능·전술 및 아이디어의 선택 및 적용, 운동수행의 평가 및 향상, 체력과 건강에 관한 지식과 이해라는 4가지의 범주화된 개념으로 체육교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반면에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앞의 4개 국가와 같은 주제 또는 개념 중심의 체육교육 목표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재적 가치(움직임 욕구의 실현, 체육문화의 계승 및 발전)와 외재적 가치(체력 및 건강의 유지·증진, 정서 순화, 사회성 함양) 측면에서 체육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가치들이 체육교육 목표라는 형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제 또는 개념 중심의 체육교육 목표의 방향은 체육교육이 지향하고 접근하는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 또는 실천하는데 일종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주제 또는 개념 중심의 체육교육 목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체육교육 목표 체계 속으로 체육교육 목표의 방향과 모습이 뚜렷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체육교육 목표의 통합적 진술 방식이다. 외국의 체육교육 목표의 분류 및 진술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의 진술된 체육교육 목표를 분석해 보면, 어느 목표가 심동적 영역에 해당되는지 또는 어느 목표는 정의적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어렵다. 그 이유는 체육교육 목표가 통합적으로 진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의창(2002)은 인간이 무엇을 학습할 때 서로 다른 부분과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운동 기능을 배울 때 운동 기능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개념적 지식과 정의적 태도까지 모두 동시에 받아들이고 배운다고 믿고 있다.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단일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체육교육 목표를 분석해 보면, 뚜렷하게 삼분법적인 진술 방식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움직임 욕구를 실현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능과 체력을 증진하며(심동적 영역), 운동과 건강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인지적 영역),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한다(정의적 영역). 실제로 우리나라의 제7차 체육교육과정에서 체육교육의 성격을 전인교육이라는 통합적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체육교육 목표를 진술할 때는 이 통합적 교육 목표 진술 방식을 따르지 않고 부분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목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최의창,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체육교육 목표를 진술할 때 외국의 경우처럼 통합적인 방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의적 측면의 체육교육 목표 및 내용의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의 체육교육 목표는 전통적인 삼분법적인 목표분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의해 진술되어 있지 않다. 각 목표들이 제시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 기능의 습득이나 체력 증진의 목표보다는 책임감, 대인관계, 즐거움, 사회적 상호작용, 정체성, 협동 및 의사소통 등

의 정의적 측면의 목표 개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의적 측면을 제시하는 목표 개념에 부합되어 미국의 내용기준, 캐나다와 호주의 학습결과 안에는 정의적 측면을 나타내는 다양한 교육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은 단위학교에서 체육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각 체육 수업의 교육 내용을 계획할 때 실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교사 개개인이 정의적 측면의 교육 목표 및 내용을 설정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 상에는 정의적 측면의 교육 목표와 내용의 범위가 태도라는 극히 제한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교과의 성격을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의 경우처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과 관심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체육교육 내용 영역의 다양한 형태 및 조직이다. 외국의 체육교육 내용 영역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되어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는 학교급 또는 학년별로 명확하게 규정된 교육 내용이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학교급과 학년별로 체육교육 내용 영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내용 영역의 개념이 목표 영역과 구별되어 나타나지 않고, 캐나다에서는 움직임 영역이라는 활동 영역이 독립적으로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고 있다. 유치원에서 10학년까지는 5개 움직임 영역을, 11학년과 12학년은 3개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움직임 영역의 범위만 규정할 뿐, 각 영역의 세부적인 활동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호주는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내용 영역이 목표 영역과 명확하게 구별되어 제시되고 있다. 단, 학교급과 학년별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의 체육교육 목표(개인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신체활동의 개념 및 기능발달, 자기개발의 촉진)에 따라 각 목표에 적합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안에는 캐나다처럼 움직임 영역으로만 구성되고 있지 않으며,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교육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극히 제한적이지만 두 번째 목표인 신체활동의 개념 및 기능 발달의 내용 속에 움직임 기능이라는 하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안에 다양한 활동 영역의 명칭만 제공되고 있다.

나.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현황

본 장은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실행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주요 선진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개요, 사례, 시사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특기·적성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인 실행 방안과 제언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1)미국

미국 교육의 전반적 특징은 교육에 대한 관리 및 통제체제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유연하고 역동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교육은 정부관련 단체인 연방, 주, 지역 수준의 교육기관들과 비정부관련 단체들 간의 협력 체제와 이해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교육 동향을 살펴보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이 중요시된다는 점이다(황규호 외, 1997). 이처럼 미국의 교육은 다민족 배경 하에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를 중요시하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특기·적성교육도 매우 다양한 상황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클린턴 행정부에서 가정, 학교, 사회의 협력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교육에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를 개방하여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21st Century CLC: Community Learning Centers)와 학교, 지역사회 기관에서 주로 실시되며, 초·중등학교, 대학, 연구소 등의 공적·사적 기관 및 시민 사회 단체, 지역사회 클럽 등으로부터 프로그램을 협력·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위한 인적자원도 자원봉사자, 지역 인사, 대학생, 교사,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물질 자원 역시 대학 기부금, 시설 대여비, 등록비, 연방 정부와 주 보조금, 지역 자체 기금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가)특기·적성 교육의 배경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기능과 역할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가족 형태의 변화 및 구성원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미국에서도 맞벌이 부모들은 오후나 초저녁 시간 동안에 자녀들을 돌보기가 점점 힘들게 되었다. 미국의 YMCA에 의하면, 거의 100%의 미국인들이 아이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하고 보살핌이 있는 환경에서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1999년 Mott Foundation/JCPenny Nationwide 조사에서 성인의 91%가 지역사회의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유익하다고 느끼게끔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인의 90%는 아이들에게 오후 3시와 6시 사이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성인의 3/4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Colorado, Littleton에서 있었던 고등학교 총기 사건(1999)과 같은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 특기·적성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첫째, 자상하고 유능한 그리고 일관된 성인들과의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호 및 관리가 되므로 가정의 역할을 분담한다.

둘째,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학습 활동을 제공한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접근할 수 있다.

넷째,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특기·적성 교육의 효과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아래와 같다.

- ①청소년 범죄의 감소
- ②학교에서의 일탈 행동 감소
- ③고교 졸업과 대학 진학 등 미래에 대한 설계
- ④TV 시청량의 감소
- ⑤효율적인 비용 절감
- ⑥아이들을 수용하는 공간의 증가
- ⑦학부모 참여의 증가
- ⑧자존감과 자아성취감의 향상
- ⑨지역 사회 학교의 발달

라) 특기·적성 교육의 제한점

양질의 특기·적성교육은 학교 이외에서의 학습을 고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지도, 독서, 산수, 과학, 마약, 폭력 방지 과정, 상담, 청소년 지도 활동 등과 같은 활동을 주로 포함한다. 다음은 특기·적성교육을 저해하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다.

첫째, 아이들로 하여금 TV나 비디오 시청과 같은 소극적 활동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러한 질 낮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원인 중 하나는 부족한 시설에 기인한다.

둘째, 지도 교사당 학생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셋째, 적절히 훈련받지 못한 강사진이 있다.

넷째, 강사들의 낮은 보수체제와 보상 구조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이다.

2)영국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소개할 수 있는 영국의 특기·적성교육 활동 프로그램은 방과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영국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학교 기능 강화책(Improving Schools)의 일환으로 현재 영국의 각급학교에 파

급되고 있는 방과후 특별활동(extra- curricular provision 또는 activities)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가) 도입배경 및 목적

영국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의 학업성취를 위한 기능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학교 기능 강화와 관련한 논리에서 출발한다. Andrews 등(1996, 이종재 외, 1998, 재인용)은 학교 기능 강화의 배경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영국 사회에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서, 정규 수업 후에도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성의 증가로 방과후에 학교가 교육활동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문화적으로 결핍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상 차원에서 방과후에 교육활동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국가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한 이후 국가 교육과정에 미달된 학생들에게 새로운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방과후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 영국의 특기·적성교육은 그 목적을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며 방과후 시간의 교육적·사회적인 잠재력을 제고하고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나) 프로그램 운영의 원칙

영국의 특기·적성교육 운영의 원칙을 Andrews 등(1996, 이종재 외, 1998, 재인용)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아동의 필요와 흥미라는 점이다. 이에 의하여 학교에서 만족한 성과를 보인 학생에게는 새로운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뒤떨어진 학생에게는 새로운 흥미를 발견하고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 특기·적성교육은 정규수업과의 긴밀한 관련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비가 없어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없다는 점이다.

넷째, 학생, 학부모, 교직원(프로그램 참여자 및 미참여 교직원)등의 프로그램 관련자들이 프로그램 내용 및 제공방법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수석교사, 참여교사 등은 지역사회인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지역의 교육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이다.

다)특기·적성교육활동의 성과

현재 학교마다 시행되고 있는 특별활동의 범위와 종류는 광범위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Curriculum Enrichment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Curriculum Extension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의 운영자인 교장들이 Curriculum Enrichment 활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Curriculum Extension 보다 높게 인식하지만, Curriculum Extension의 내용들이 정규수업시간에서 충분히 소화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urriculum Extension프로그램이 증가하는 현상은, 1988년부터 국가교육과정의 도입되면서 자유경쟁에 의한 교육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영국의 최근 교육개혁의 동향(황규호 외, 1997)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3) 일본

일본 문부성은 1998년 12월 소학교 및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개정과 1999년 3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였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교육의 방향으로서 학생들에게 생활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학생 스스로 배우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가)특기·적성교육의 배경

현재 일본의 교육개혁은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환경 및 교육내용의 변화 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 지난 1986년부터 여러 가지 교육실험을 통해 주5일제 수업을 준비해 온 일본 문부성은 2002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이를 완전하게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 체제는 먼저 학생들이 배워야 할 수업량의 절대적인 감축과 함께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특별활동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을 적용함에 따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그 중의 클럽활동은 중·고등학교에서 폐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주당 수업시수(주당 1시간)를 차지하고 있는 클럽활동이 수업량 최소화 방침에 따라 종합학습 재량시간을 통해 수행되거나 각 학교의 부활동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하였다. 여기에서 부활동은 대체로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특기·적성활동으로서, 학과 수업시간으로 수행하였던 클럽활동과는 정규 수업활동이냐 아니냐 하는 외형적인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클럽활동과 방과후 부활동

일본은 특별활동에 대한 개정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집단활동을 통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집단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좋

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주적이며 실천적인 태도를 기른다. 이와 함께 인간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자각심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생활개척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고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기존의 특별활동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대부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최근 일본의 학생들에게 우려되고 있는 학교폭력 및 등교거부 등 문제행동에 대한 재교육을 강조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등 기본적인 도덕의식과 사회생활상의 규칙을 충분하게 몸에 익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특별활동에 대한 새로운 변화

이와 같이 최근 일본의 교육활동에서 특별활동이 차지하는 영역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측면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내용, 방법과 관련하여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의 측면에서 특별활동의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교과과목 속에서 특별활동으로서의 특기·적성을 함양하는 방식을 계발할 수 있고, 특히 이는 도덕교육 속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일본의 고입·대입제도와 관련하여 내신성적 측면에서 방과후 부활동은 그에 대한 반영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학교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측면이다. 특히 방과후 부활동이 일본의 사교육 체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4)프랑스

프랑스의 특기·적성교육은 교육과 청년활동지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국가공공기관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교육부 및 문화·청년·스포츠부를 비롯한 국가행정부와 각 시·도·지역의 각종 국가 단체들과 공사립 사회활동기관들과 종교단체, 부모연대가 특기·적성교육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국가의 지원아래 아동과 청년의 교육에 책임을 분담하고, 삶의 리듬 및 관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과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다. 교육부의 구체적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와 각종 사회·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간의 계약과 지원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방과후나 수업이 없는 수요일 또는 토요일에 각종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조직하여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가)특기·적성교육의 배경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교육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기관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립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무상중립교육이기 때문에 특기·적성교육도 국가의 지원 하

에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매우 적은 비용부담으로 교육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개인의 능력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학력격차 및 문화적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81년 교육투자우선지역(ZEP, Zoned 'Education Prioritaire)을 설정, 공포한 이래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우선적 교육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나)특기·적성교육의 목적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은 아동이 학교방과후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 그의 학업 향상과 인성을 꽃피우고, 사회적 생활을 효율적으로 배우도록 하는데 있다. 특기·적성교육은 전적으로 학생자신의 희망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학교 외부기관에서 조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주로 자신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생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특기 계발을 전생애 차원에서 기획하고 조직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물론 특기나 적성의 계발 뿐 아니라 학습부진아 및 부적응아 문제를 돕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5)독일

독일의 특기·적성교육과 관련된 주요 방과후 활동은 호르트(Hort), 전일제 학교(Ganztagsschule), 시민대학(VHS), 시, 종교계, 부모연대, 그 외의 각종 사립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사립 청소년복지기관, 청소년사회교육기관, 그리고 시에 등록된 각종 동호회(스포츠, 음악, 사진, 컴퓨터, 환경, 공작, 연극 등)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은 예외적인 형태로 극히 적고, 대부분은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관심과 흥미, 소질에 맞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 밖의 기관을 부모와 상의하여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 편부모의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학생들을 보호, 교육하고 품성도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학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기관, 청소년사회교육기관 등에서도 전통적인 호르트적 요소가 형편에 맞게 수정·보완되어 수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을 보호·보육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소질이 적성계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기관들이 가정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방과후 부모들이 직접적으로 돌볼 수 없는 학생들이 쉽게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민감한 시기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인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가)특기·적성교육의 개요

독일의 학교, 주간아동·청소년보호기관(Tageseinrichtung für Kinder und Jugend), 청소년 사회교육기관, 청소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 정부에서 하고 있다. 각 기관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의 대부분은 주 정부에서 지원하여 부모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사립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인 경우에도 청소년국(Jugendamt)에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등록이 되면 대부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등록된 동호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모자라는 부분은 설립단체의 지원금과 개인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독일은 무상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전체 경상비의 70-80%를 주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사립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의 기준에 상응하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시설, 교사의 자질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 공립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학교의 운영경비를 설립재단이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나)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1)전일제 학교(Ganztagsschule)

독일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서는 오후 수업이 없다. 방과후 활동을 하는 전일제학교는 예외적인 학교의 형태로 아주 드물고, 전일제학교 중 가장 많은 학교의 형태는 종합학교이다. 전일제종합학교의 일부는 단순한 지식전달 교육을 비판하면서 인격의 발달을 위해 자기 활동성을 강조했던 독일개혁교육운동의 배경에서 방과후 활동을 계획하고 제공하고 있다.

전일제학교의 일반적인 특징은 방과후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학교과제를 도와주고, 취미 및 특별활동에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일제학교에서 특기·적성과 관련된 방과후 활동에는 크게 동아리활동(특별활동), 여가활동, 그리고 프로젝트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교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년별 주간계획에 따라 요일별로 구성된다.

사회·정치적인 배경에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다른 기관보다도 학교가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는 것을 학부모들은 선호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후에 수업이 없는 학교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들 중 34%가 학교가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고(호르트 10%, 청소년기관 16%), 전일제학교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들 중에서는 59%가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호르트 15%, 청소년기관 14%)²⁷⁾ 전일제 학교와 학교의 방과후 활동 방안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2) 학교밖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

오후 수업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에 등록된 각종 스포츠 동호회나 청소년복지기관, 청소년사회교육기관, 시민대학, 음악학교 등과 같은 곳에서 자신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 국가들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능력계발을 돕기 위한 방과후 활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조사대상 5개국 중 우리나라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프랑스

첫째, 프랑스는 국가와 각 지역단체 및 교육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교육 기관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갖고 협조와 재정지원을 분담하는 것이 상당히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육복지 제도이다. 프랑스의 특기·적성교육은 수준 높은 공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우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지역아동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우선적 지원체 계이다. 교육투자우선지역(ZEP)을 법적으로 지정, 선포하여 문화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과 가정의 아동에게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시사적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하는 일이 시급하다.

넷째, 여가 활용과 생애 개발 차원의 성격이다. 프랑스의 특기·적성교육은 국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지만, 교사와 학생에게 억지로 실시하도록 강요하고 감독하는 성격이 아닌, 각 학생이 자신의 여가와 생애개발을 흥미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성격을 나타낸다.

2) 독일

첫째,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일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학교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에서 학생의 선택에 의해 즐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독일의 학교호르트, 전일제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오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혁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모델을 위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아래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모델학교가 운영되고, 그를 통해 나타난 장단점을 분석하는 작업이 동반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독일의 경우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나 청소년사회교육기관, 청소년복지기관 등에서 호르트적인 요소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르트에는 아동의 성장단계에서 그를 지도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성인대상이 매우중요하다는 교육이론에 입각해서 각 아동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상담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호르트 교사가 정해져 있다.

넷째,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흥미, 관심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호르트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아동·청소년복지법에서는 1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호르트에서 제공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낮은 연령층에게 적합하게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고학년의 학생들은 외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경우처럼 특별활동, 여가활동을 위한 사회교육전문가를 별도로 충원을 하든지 특별활동, 여가활동의 특성에 맞는 학교 밖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에 교사와 외부 전문가들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계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협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국내의 현황

이 절에서는 초등학교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및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에서 예술관련 교과는 현재 음악교과와 미술교과의 두 과목이지만 체육과목 중에 무용영역을 예술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예술교과 및 체육교과를 대상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각 예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성격, 목표, 내용체계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부분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특기·적성교육이 정책 변화와 맞물리면서 어떤 형태로 변화·발전되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이 고찰은 특기·적성교육의 성격 및 내용규정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한 개념을 정의하고, 그 후에 정부의 정책 추진 측면과 학교 운영측면에서의 현황에 대해 선행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가. 초등학교 문화예술분야 교육과정 분석

1)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

가) 성격

음악과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음악과 교육의 목적
- 학교에서의 음악과의 목표
- 초등학교에서의 음악과의 지도 특성

음악과는 심미적 체험을 통해 음악적 능력을 기르고 음악적 심성을 계발하여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음악과의 목표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음악의 개념 이해
- 음악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 증진
-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
- 음악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함양
- 우리 음악 문화의 계승 및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음악과는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길러주는 교과로서 기여한다. 심미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대상으로 그리고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음악과 교육 과정은 우리의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여 각 음악 문화의 음악적 특질과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기초적인 음악적 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을 즐기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기초적인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해와 활동 영역의 통합적인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 이

유는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개념이 습득될 수 있고, 또한 습득한 음악 개념은 다양한 음악 활동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 두 영역 이해와 활동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목표

음악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교육 기간인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이 성취하여야 할 음악 능력을 중심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음악과는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다양한 악곡”을 목표에서 언급할 정도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한 음악성 및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적절한 악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용 영역에 다리 역할을 하는 하위 목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음악과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하위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 음악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

첫 번째의 “음악의 구성 요소 이해”에 목표를 두는 것은 학교의 음악 교육이 음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즉 리듬,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에 관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의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음악의 골격을 형성하는 내용으로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학습 요소를 이루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인지발달 단계에 알맞게 다만 그 개념에 속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은 이러한 개념들은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하나의 완전한 악곡은 각 개개의 독립적인 구성 요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 요소들의 통합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목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역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 경험이 음악의 구성 요소의 이해와 함께 음악 수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악기나 목소리를 사용하여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음악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며 그리고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적 내용을 분석하

고 토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음악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음악 활동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목표는 음악과의 정의적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서, 음악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내용 체계

음악과 내용 체계는 크게 이해와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그리고 이해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으로 나누고 있다. 음악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선정·조직하였다.

- 음악 수업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용과 활동을 선정함.
-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선정함.
- 학교와 학교 외의 생활을 연계시켜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도록 함.
-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을 구성함.
- 음악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와 활동으로 나누고 통합적 활동을 강조함.
-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연계성을 가지고 구성함.
- 초등학교 3·4학년 그리고 5·6학년으로 묶어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년별 내용은 학년 단위로 나누어 상세하게 제시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과 교육 과정은 음악 학습에서 꼭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도록 보장하기 위한 배려로서, 교사는 학생의 음악적 수준 그리고 지역 사회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를 재구성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 한편, 음악과 교육 과정이 창의성과 음악성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선정한 이유는 음악 교육을 통하여 음악적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문제의 해결 능력 등을 신장시키고자 함이다. 음악 교육이 생활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음악을 폭넓게 다루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 관심 등을 반영한 조치로서, 이것은 음악을 생활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음악과 교육 과정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10개 학년을 학생의 발달 수준에 따라 학년 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취 능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대안

임은정(2005)은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악 부분과 양악 부분과의 불균형적 조화를 꼽고 있다. 임은정은 국악과 양악이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음악교육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미국의 교육과정을 거의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교육현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리고 창의성과 감수성 계발을 위한 실용중심의 음악교육과정으로서 타 교과와의 관련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언급하고 있다. 임은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관점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된 상위 교육 목표 아래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단위별 교육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초등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초지일관 실용중심의 심미적 음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실용 중심의 심미적 체험은 초등·중학교에서는 효과적인 음악교육의 목표로 제시될 수 있으나,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다른 교과와 관련시켜 비평적 사고의 논리성을 키워 줄 수 있는 사고에 바탕을 둔 교육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음악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 음악 교과의 교육 내용은 브루너 나선형 교육과정에 따라 음악 이론을 위계적으로 나열시켜 체계화시킨 내용 틀을 가지고 있다. 저학년 시기에도 새로운 음악적 경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다양한 음악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중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횡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이 요구된다.

셋째, 다른 교과 및 사회와의 관련성을 배려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현 음악 교육과정은 다른 교과와의 통합 차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교과 및 사회적 관점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음악 교과가 전인적이며 사회적인 인간을 육성에 중요한 교과로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과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자국의 음악은 물론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타 민족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서 세계 속의 한국인을 길러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 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별 교육은 중간 수준의 아동들을 위한 교육내용만 제시하고 상, 하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내용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전담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교과를 지도하고 많은 아동 수와 40분 수업단위에 맞춰야 할 교육 내용의 과다로 인하여 실제적인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육자들의 교육에 대한 이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교육과정 내용의 적절한 구성이 필요하다. 주지 교과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음악교과의 연간 음악과 지도 내용은 40분 내에 학생들에게 아이들의 창의적 활동과 수준별 활동 및 다른 교과의 관련성을 갖고 지도하기에 지나치게 방대한 양을 포함하고 있어 교과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축소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상 전통 음악을 문화적 맥락에서 그리고 음악을 무용이나 미술과 관련하여 함께 지도하면서 수업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수업 활동 내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여섯째, 실제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학급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이 고시되어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제시된 지역단위의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교육 기관과의 협조 체계의 부족으로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

일곱째,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자료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현재 음악교과서에 실린 음악 감상 자료들은 교사 스스로가 준비하고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실린 학습 자료들이 대부분 대중화 되어 있지 못하여 교사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위하여 음악 교과서와 함께 학습 자료들이 제공됨으로서 교사들이 학습을 하는 데에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한편, 임영신(2005)은 교육과정의 합창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임영신은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가창 활동과 관련하여 3학년부터 돌림 노래 및 부분 2부 합창 형태의 합창이 등장하지만, 실제 교실에서의 가창 활동은 제창 중심의 활동이 대부분이고 합창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음악의 심미적 체험을 가능케 하려는 음악 교육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임영신은 교육과정의 화성 영역에서 3학년은 2성부의 어울림과 다장조의 주요 3화음 그리고 화성 변화를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현행 3학년 교과서에 실린 제창 곡은 단음 노래가 17곡이나 되는데 반하여, 돌림 노래는 3곡, 부분2부 합창곡이 1곡에 지나지 않아 어린이들이 화성미를 체험할 수 있는 합창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과정과 수업 현장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모순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나마 2성부 악곡에는 주요 3화음 중 I 도 화음만이 사용되었으며 돌림 노래는 바장조의 악곡으로 선택되어 있어서 다장조의 주요 3화음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상당히 어긋난다고 진술하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합창 부분의 서로 일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김희숙(2005)은 국악 부분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내용 및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다. 김희숙은 구성요소의 개념을 이해하는 개념중심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요

구하는 활동중심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악을 직접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첫째, 음악과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교사용 지도서와 교과서가 국악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매우 빈약하게 취급하고 있다. 한 예로 4학년의 ‘도라지 타령’의 1차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민요 들어보기, 기본 박 치며 제재 곡 듣기, 범창 들으며 제재 곡 익히기,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노래 부르기, 세마치장단 치며 노래 부르기’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학습 내용은 국악 가창 학습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전 학년의 지도 방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학습 활동의 접근 방법은 마차 서양 음악 지도 방법과 동일하여 이러한 학습 활동에서 국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과연 학생들이 감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최소한 교육과정 및 교사용 지도서는 국악 교육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방법을 소개함과 동시에 일반 초등학교 교사들이 국악을 지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악 부분의 가창 영역에 있어서 내용 선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민요 제재 곡의 경우 거의 전 제재가 ‘시김새 살려 부르기, 장단 치며 부르기’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시김새’의 의미는 폭넓게 정의할 수 있지만 민요에서 의미하는 ‘시김새’는 각 지역마다 갖는 특유의 창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법은 창자의 목의 쓰임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으로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음악에서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라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별로 각 지방의 민요를 제시하면서 시김새를 살려서 노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이 부르기에든 어려운 음악에서 과연 어린이들이 음악의 보편성을 발견하고, 각 지방의 시김새에 따른 미를 느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셋째, 장단에 대한 문제이다. 장단 학습은 장단의 유형에 따라 난이도를 구분하여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학년에서는 비교적 쉽다고 생각되는 자진모리장단이 그리고 4학년에서는 세마치장단이 나타난다. 그러나 장단을 배워 보면 어느 장단이 더 쉽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장단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예: 빠르기, 셈여림 등) 등을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현재의 장단 제시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희숙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효율적인 국악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교사용 지도서 그리고 교과서의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의 국악교수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시김새와 장단의 학습 내용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시김새 중심의 국악 가창 학습보다는 음악을 표현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각 지방별 민요에 대한 시김새는 실음을 듣고 비교해 보고 논의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장단이나 민요의 선율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민요의 가사를 보고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이야기하기’, ‘놀이하면서 노래하기’, ‘춤을 추면서 노래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수반한 가창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는 장단 학습은 의미가 없다. 다양한 장단, 즉 자진모리 장단과 세마치장단 등을 함께 제시하여 3박 계열과 4박 계열의 차이점을 느끼게 하며, 장단의 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가) 성격

미술과 교육 과정은 학교의 미술 교육이 미술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 인간의 성장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미술과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주변의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를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를 키워주며,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는 데에 일조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인적 인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미술과 교육 과정은 미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미술은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 언어를 통해 창조·발전시켜 나아가는 예술이다.
-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한다.
-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
- 미술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미술과 교육 과정은 미술 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생활 속에서 미적 대상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동기 유발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체계적인 탐색 활동과 능동적

인 표현 활동을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 미술 작품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나 평가를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도록 한다.
-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전통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

미술과 교육 과정은 미술과가 지향하는 목적과 세부 목표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미술 영역(미적 체험, 표현, 감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학교급별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와 수준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여야할지, 성격 부분에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미술 교과는 교과목의 특성과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내용 체계를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초등학교(3-6학년) 수준에서의 '미적 체험'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느끼고 그리고 자연과 조형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표현'은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감상'은 상호간의 작품과 미술 작품을 보는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역점을 두었다.

나) 목표

음악과와 마찬가지로, 미술과의 제7차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고등학교 1학년까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 미술과 교육 과정은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개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술과의 목표는 심동적·인지적·정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 창의성 그리고 심미적 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표현 및 감상 능력은 심동적인 측면을, 창의성은 인지적인 측면을 그리고 심미적인 태도는 정의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술과 교육과정은 미술과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로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첫째, 목표는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미적 체험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미적인 사고의 능력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목표는 심동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 바탕을 둔 표현 영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째, 목표는 감상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감상 영역은 인지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로 만든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미적 가치를 느끼며 그리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이 영역의 역할이다.

다) 내용 체계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내용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내용의 중복성을 배제한 위계적 계열성을 고려하여 미술과의 내용 구조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시킬 때 일관성 있고 효용성 있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흥미, 관심, 수준, 개인차, 학문적 특성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국가의 교육적·사회적 요구 등을 내용 선정과 조직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향을 기초로 미술과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학습 내용을 선정·구성하였다.

- 학습 내용 및 분량을 축소화하고 사고력, 창의력,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었다.
-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을 10년간으로 설정하고 획일적인 학년 간 구분을 지양하였으며 교과별 특성에 따라 수준을 구분하였다.

장르별로 미술을 세분화·전문화시켜 각 장르별로 표현재료, 용구, 기법 등을 알려주고 각각 다양한 표현 방법을 경험토록 한다면, 사실상 현행 미술 수업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장르 간의 낯은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미술”의 개념을 “제작”으로만 생각했던 과거 교육과정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또한 필수 학습 요소라는 새로운 내용을 구조화시킬 때에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큰 세 범주로 나누어 새롭게 내용을 구조화시킴으로서 학습량을 적정화시켰다고 본다. 즉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미적 체험은 미술 활동을 통해 표현되고, 또 이렇게 표현된 조형물은 감상이란 활동을 통하여 의미화 된다는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미술과 교육과정은 이 세 가지 영역을 큰 틀로 하여 내용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내용 틀은 10학년까지 공통된 영역으로 나타나며, 그 하부에는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요소들이 진술되어 있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은 10학년까지를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여 획일적인 학년간 구분을 지양하고 교과별 특성에 따라 수준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2단계(34학년과 56학년을 묶음), 중학교 1단계, 고등학교 1단계로 전체 4단계의 수준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노작 활동으로서의 표현 활동에 중점을 두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미술에 대한 이해와 미적 안목을 기르기 위한 감상 활동을 점차적으로 심화시켰다. 이와 같이 미술과 교육과정은 내용의 위계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단계별로 학습을 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적 체험은 학습자의 삶에 있어 총체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미적 체험의 영역을 특별히 강조하고, 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표현과 감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표현 활동과 관련하여 제7차 교육 과정은 “느낌 나타내기”, “보고 나타내기”, “상상하여 나타내기”, “꾸미기와 만들기”, “붓글씨로 나타내기” 등의 활동을 묶어서 표현 영역으로 통합하였으며, 표현 영역의 하부 활동으로서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와 같은 표현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표현 활동을 자세하게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수업 시수 축소 및 학습량의 30% 축소 방침에 따른 학습량 조정의 결과라고 보여 진다.

제7차 교육과정은 감상 영역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미술 교육에서는 제작, 이해, 비평의 세 영역 중에서도 특히 비평 영역을 가장 소홀하게 취급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 서는 감상 영역을 다시 미술 비평과 미술사로 구성·제시함으로써 비평 영역을 보다 더 강조하였다. 미술 비평과 관련해서는 작품을 보는 능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미술사와 관련해서는 시대와 양식에 따른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여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데 주력하였다.

라) 미술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대안

홍경민(2005)은 미술과 교육과정을 현장수업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시간 운영상의 문제이다. 미술과 교육과정은 미술 수업에서 4시간이 배당된 제재일 경우에 미적체험 1시간, 표현 2시간, 감상 1시간으로 배당되어 있다. 이 경우에 미적 체험 1시간, 표현과 감상을 묶어서 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6시간이 배당된 제재일 경우에는 미적 체험 1시간과 표현 2시간을 묶어 3시간 연속 운영, 표현 2시간과 감상 1시간을 묶어 3시간 연속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배당을 현장에서 적용하기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학년 초에 시간표가 나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시간표로 1년을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술 시간을 이번 주는 1시간을 운영하고 다음 주는 3시간을 운영하길 사실상 어렵다. 또한 표현 활동으로 2시간이 할당되어 있지만 2시간 안에 한 작품을 끝내기가 어렵다. 결국 미완성의 작품으로 끝내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체험과 감상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미적 체험과 감상이 소외되고 주로 표현 중심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표현 중심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초등학교에는 교과전담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교사 1인이 학년 연계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미술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학년과 교과가 바뀌는 상황에서 전담교사들이 전문적으로 수업을 계획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다. 또한 미술교과에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역시 참고 작품의 확보가 어려워 미적 체험과 감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교사들이 미적 체험과 감상 활동을 외면하고 표현 중심으로 수업을 이끄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홍경민(2005)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의 적용에서 비롯되었음을 비판하면서 자칫 비현실적인 교육과정과 실제 교육상황과의 사이에 괴리감만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홍경민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주당 수업 시간을 달리하는 교육과정 시간 운영은 어렵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미적 체험과 감상을 묶어 두 시간 연 차시로 지도한 후, 그 다음 주에 표현 활동을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그러나 미적 체험을 하는 이유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게 하며 자연과 조형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애호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미적 체험은 곧 바로 표현 활동으로의 연결을 의미하며, 따라서 3시간으로 통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시 감상은 표현 후 곧 바로 그 작품을 느끼며 심미적인 체험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제재를 미적 체험, 표현, 감상 활동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미적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과 감상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여서 시간 배당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미적 체험 1시간에 표현 3시간을 묶는다거나, 표현 3시간에 감상을 1시간으로 묶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표현 시간이 너무 많아진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2시간 안에

한 작품을 완성하는 학생이 적을 뿐더러 매 작품마다 미완성으로 마치는 것이 과연 감상과 미적 체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둘째, 연임제, 중임제, 예체능의 교과 전담제 정착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적 체험과 감상 활동을 위한 충분한 참고 작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기 위주의 평가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술 교육이 추구하는 최종의 목표를 인간화 교육이라고 볼 때, 실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미술 평가를 감상과 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하여 인지적인 영역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계속 문제시되는 정의적인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한편, 박해진(2005)도 미술과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현장 수업에 있어서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다. 박해진은 미술 수업이 한두 가지 표현방식만을 가지고 지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효율적인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고 진술하면서, 교육과정 및 수업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첫째, 미술 수업에 동기 유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모음이나 비슷한 아동들의 작품 또는 유사한 표현방법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설명과 함께 CD로 만들어 보급해 주면 교사들이 사용하는데 훨씬 용이하다고 본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감상하고 재구성하여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학생들과 한 적이 있었는데, 박물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 보여 주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CD로 편집·제작하여 제공한다면 교사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기 있는 교사의 활용이 필요하다.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을 편입이라는 절차를 거쳐 초등학교에 임용시킬 당시에, 그들의 전공 교과를 초등학교에서 전담제의 형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초등교육 전공자들과 똑같이 담임을 맡고 있다. 실제로 조소, 한국화, 서예와 같은 요소들은 담임교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강사풀제를 도입하여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예능과목 전공자들을 각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하여 순환교사로 활용하거나 혹은 별도의 인사체계를 마련하여 각 초등학교에 고르게 분산 배치하여 활용하는 제도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역시 특기 적성의 강사들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것 보다는 적절한 체계를 마련하여 연수 과정을 거쳐 시·군 교육청에서 임용하여 임용된 강사들을 각 학교의 수요에 따라 배치한다면, 강사들의 교육적 자질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유능한 강사를 쉽게 섭

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학습 준비 센터의 활용이 시급하다. 미술교과에서는 일정한 주제를 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제가 많다. 그러나 현행의 학습 준비물은 아이들에게 색상지 몇 장, 색종이 몇 묶음, 수수깡 등 천편일률적인 준비물들만 부여함으로서, 이에 따라 학생들의 표현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편, 준비물과 관련하여 몇몇 학부모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 내에, 가능하다면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학습 준비 센터를 두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한다면 좀 더 다양한 표현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특기 적성 교육과 관련한 교실 사용 문제이다. 대체로 도시 지역의 학교들은 교실의 부족으로 저학년의 교실에서 특기 적성 수업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고 5일 중 4일간 교실을 비워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교실 외에도 학교 외의 주변에 있는 여러 시설들(예: 체육관, 시·구청 등의 문화 센터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특기 적성 수업을 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교실이 부족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는 빈 교실을 사회인들의 다양한 교육을 위하여 상설로 개방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체육과 교육과정 분석

가) 성격

제7차 체육과 교육 과정은 체육 교과가 신체 활동을 통하여 체, 지, 덕이 조화된 전인적인 인간의 발달을 도모하는 교과임을 강조하면서, 체육과의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의도적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신체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계발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내재적 가치에서 “개인과 문화” 그리고 외재적 가치에서 “개인과 사회”를 부각시키며, 체육과는 이 두 영역의 가치를 절충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영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두 영역이 체육의 본질로서 첫 번째인 내재적 관점에서는 신체 활동을 통한 즐기는 경험이 강조되고 또한 기술, 전술, 규범, 지식 등의 문화적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인 외재적 관점에서는 개인과 사회적 수단으로서의 체육을 정당화하며,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체육과 교육 과정은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교과의 궁극적 성격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육상, 체조, 게임, 스포츠, 무용 등과 관련하여 신체적인 기능 그리고 이와 연관된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태도에

관한 내용들을 핵심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 목표

초등학교 시기는 움직임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체육과 교육 과정은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움직임의 욕구가 충분히 실현 될 수 있는 가능성 쪽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한 즐거움 그리고 감각을 통한 건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7차 초등학교 체육과는 이와 같이 움직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서 신체 활동에 대한 흥미 유발이라는 기초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체육과 교육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목표를 동시에 성취하는 종합 교과로서 삶의 기본이 되는 신체적 안녕과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습득하는 교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체육과 교육은 협동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태도를 길러줌으로서 학생들이 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깨우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상위 목표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다양한 신체적 경험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체육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상위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

- 움직임 욕구의 실현
- 운동 수행 기능과 체력의 증진
- 운동과 건강에 관한 지식 이해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함양

초등학교 시기는 신체의 각 기관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한다.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면서 자신의 신체 기능을 발달시키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독립심이 강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며 또한 공동체적 활동을 좋아한다. 따라서 체육과 교육 과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신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신체적 활동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체육과 교육과정은 두 번째 목표로서 체력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이 체력의 증진을 강조하는 이유는, 체육 활동을 통하여 신체의 각 기관들(예: 심장, 폐, 근육, 신경 등)을 고르게 발달시켜 신체를 조화롭게 성장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체육 활동이나 무용을 통해서 근신경계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한편,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의 움직임과 운동 구조에 대한 개념 이해를 세 번째 목표로 언급함으로써, 운동과 건강을 위한 필요한 지식이 자신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네 번째 목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란 다양한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간에 협동하며 또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그리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② 하위 목표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3개의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운동 기능과 체력 및 심신의 건강을 증진한다.
- 운동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 운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및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규범을 익힌다.

첫 번째 하위 목표는 심동적 영역과 관련된 목표다. 운동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전통적인 체육 교과목의 목표라고 여겨진다. 이 목표는 다양한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신장시키고 또한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하여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체육과 교육과정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는 인지적 영역과 관련된 목표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이란 기본적인 신체의 활동, 기술의 형태, 지각과 운동에 대한 역학적 원리 그리고 더 나아가 보건 및 건강 지식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하위 목표는 정의적 영역의 목표로서, 즐겁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는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규범과 연결되어지는 데, 즉 사회적 규범과 관련하여 협동심, 책임감, 준법성 등과 같은 태도가 길러질 수 있으며, 문화적 규범과 관련해서는 정서 함양과 미적인 감상 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체육과 교육과정은 체육이 인류 문화유산이라는 차원

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나라 체육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과제 수행의 차원에서 우리 고유의 체육 문화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전통 경기, 놀이 그리고 춤 등을 익혀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 내용 체계

제7차 교육과정은 교과 내용의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내용 영역을 통합적 접근 방법에 바탕을 두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분화적 접근 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체육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4학년은 4개영역(체조 활동, 게임 활동, 표현 활동, 보건), 5·6학년은 6개영역(체조 활동, 육상 활동, 게임 활동, 표현 활동, 체력 활동, 보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별, 학교별, 교사별, 학생별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자 지도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필수 내용”과 “선택 내용”으로 구분하여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대안

김희원(2005)은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욕구와 사회의 욕구에 부응하여 그들의 심신 발달에 알맞은 신체활동과 건강생활을 계획적으로 지도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갖춘 인간을 만드는 의도적인 교육으로서, 학교체육의 기본 방향은 전인적 인간을 목적으로 운동학습을 중요시하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스포츠를 하도록 권장함으로서 스포츠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육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하여 오늘날 초·중·고생들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 몸집은 커졌지만 체력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약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김희원(2005)은 편중된 지식교육으로 인한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의 체육에 대한 인식부족, 학교 내·외의 행사를 위한 체육시간 할애 그리고 과밀학급으로 인한 체육시설의 부족, 현장교사들에 대한 연수의 제도적 부실 등이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원은 학생들의 건강 및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위해 초등 체육교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체육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의 내용 편성이 문제이다. 이 것은 체육 교과목을 접할 때면 항상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조화로운 신체의 발달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도할 수 없는 영역

들, 예를 들면 수영이나, 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학교주변의 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의 문제, 지도교사의 능력 문제 그리고 이를 꾸준히 지도하여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고 평가하기까지의 과정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이 문제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체육교육을 인간의 조화적 발달에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상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교사가 체육교과를 제외하고도 여러 과목을 지도하여야 하며, 교과 이외의 업무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교사용 지도서를 읽으면서 내면화하여야 할 시간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지도계획의 수립 없이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체육수업을 학생의 흥미 위주로 즉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체육시설 및 용구의 절대적 부족과 관리소홀이 문제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체육수업에 필요한 체육시설 및 도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교사들에게 체육 수업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사용하는 도구들마저 최상의 상태로 보관되지 못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도구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허다하다.

넷째, 교사들의 지도 능력 부족이 문제이다. 초등학교 체육시간에는 교사의 시범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든 교사들이 전체 교과 영역들을 자신 있게 소화해낼 수 있는 훌륭한 기능을 지닐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 연수가 필수적인데, 실제 연수 기회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김희원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첫째, 전담교사에 대한 필요성이다. 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은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일선 학교 대부분의 교사들은 체육시간을 귀찮게 생각하여 정규시간을 타 교과로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편, 햇볕에 그을리기 싫어하여 체육수업을 기피하거나, 수업에 자신이 없어서 다른 교사들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며 그리고 항상 사고의 위험이 많아 체육시간을 회피하는 경향이 빈번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항상 체육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체육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담교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학교에서는 예·체능 전담교사제 도입 취지와는 어긋나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요구되는 예·체능과목에 전담교사를 배정하지 않고 전담교사가 희망하는 교과(실과, 과학, 미술 등 대체로 지도하기 쉬운 과목)에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체육 전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교과전담 교사 배정 시 우선 예·체능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여건을 개선하

기 위한 방법으로는 체육수업시수를 적정화하고 체육시설 및 교구의 보유 기준량을 확보하며, 수업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현실화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자재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체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각 종목에 해당되는 교구 및 시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수영이 필수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없다는지 스케이트, 스키장도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고 구기운동을 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체육관뿐만 아니라 각 학교마다 학생수에 비례한 필수 교구도 턱없이 부족하며 그리고 사회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 체육시설 대용으로 활용하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더구나 장소활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여 사회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용이하지가 않다. 또한 체육수업 시 체육교구준비 및 설치관제로 힘이 약한 여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이나 교구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조절하여 학교 내 체육을 위한 시설이나 사회체육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과 교사가 수업을 계획할 때 교재내용을 학교시설 상황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고, 또한 체육교구활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과학 보조교사제도와 같이 체육 보조교사제도의 도입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체육활동은 다른 교과목에 비해 상당히 동적이다. 따라서 정규수업에서 깊이 있게 지도받기 어려운 분야들을 특기적성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제공한다면 수업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재능과 특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체육과 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체육교육방법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교사들을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연수의 질에 있어서도 단기간에 많은 영역을 접하는 수박겉핥기식의 연수가 아니라, 연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체육교과 연구회, 교육대학에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연수가 개설되어야 한다.

역시 원미연(2005)도 체육수업의 파행적 운영을 막고 체육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체육기능을 두루 갖춘 전담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미연은 지금도 학교별로 희망하는 교사가 체육전담교사를 맡아 가르치고는 있지만 체육교육과정과 체육과의 교수방법에 능통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특히, 남자 체육전담교사의 경우 무용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육전담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교육청)차원의 연수가 있어야 하며, 이 연수를 받은 교사를 체육전담교사로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

적인 측면도 밀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학입시의 주지과목에 대한 편중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예체능 교과는 뒤로 밀려나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체육교과이다. 이에 대하여 원미연(2005)은 체육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망국병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며, 이와 함께 교사연수, 체육시설확보, 체육교재 및 교구의 확보 등에 대하여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교과에 과학실험실습비를 일정수준 책정하는 예산지침이 있는 것처럼, 체육과에도 이와 같이 체육교재교구 구입과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일정수준 책정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체육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희연과 마찬가지로 원미연도 기자재 및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원미연은 초등학교 5학년의 교과서에 계절운동으로 스케이트와 수영, 스키가 필수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스키는 제쳐 놓고라도 수영이나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지역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입장료 등을 지원해 준다면, 많은 초등학교에서 지금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현황

1) 특기·적성교육의 개념과 정의

특기란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나 뛰어난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Gardner(1993)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특기란 어느 정도 선천적인 능력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특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특기를 적극적으로 신장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백순근, 1999). 적성이란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김재복, 2000). 따라서 적성이란 용어는 교육학 분야에서는 직업 성취, 또는 학업 성취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을 말해주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진로 교육 분야에서 강조되어 왔다.

2)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특기·적성교육의 의의 및 성격

특별활동은 교과 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학교 교육 활동의 세 가지 영역 중 한 영역이다.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학교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을 이룬 성과를 얻기 위한 교육과정상의 특별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수업을 마친 이후 시간에 계속되는 교육 활동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특별활동 영역의 교육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 ①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한다.
- ② 자유로운 집단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등 민주 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 ③ 전인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 ④ 학생의 생활 지도 및 진로 지도에 기여한다.
- 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과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 ⑥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및 유관기관의 참여로 학교를 지역사회의 열린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학생들의 집단 활동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집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자주적, 실천적인 태도를 몸에 익히는 활동이다.
- ② 교사와 학생 및 학생 상호간의 논의를 기초로 하는 활동이다.
- ③ 학생의 개성이나 능력의 신장, 협동심 등의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 ④ 각 교과와 학습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이다.
- ⑤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성을 함양하는 활동이다.

3)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다양화하는 교육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방과 후 과외 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특기·적성교육은 참가 아동 수의 증가로 2001년 12월 현재 초등학교 학생의 특기·적성교육 참가율이 40.05%이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거의 모든 학교에 일반화되고 정착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발전과 아울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함에 따른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및 시간 운영 면,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성 부족 면, 우수한 강사의 확보 및 관리면, 학교의 시설 확보 및 환경 면, 교육청의 강사연수 지원 면, 특기·적성을 담당하는 인력 부족 면, 특기·적성교육 평가 및 환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함수근, 2002).

(1)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시간 운영에 따른 문제

아동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부서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동이 원하는 대로 모든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란 어려우며,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강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확보되어야 부서 운영이 존속할 수 있으므로 학교 실정에 맞는 부서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나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모든 부서를 개설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역시 현행 대부분의 특기·적성 부서는 한 강좌에 주당 2시간, 1회에 1시간 정도씩 운영하나,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매일 지도하거나 주5회 정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하지만 학교의 여건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2)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성 부족 문제

일반적으로 학기 초에 가정 통신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조사를 한 후 부서 희망을 받고, 수강 신청한 아동 수에 따라 강사료를 결정하고 강사를 채용하게 되는데, 학생의 수강신청 인원이 적정하여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비 납부 안내를 하면, 희망 신청을 해 놓고서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아 강사료가 부족하거나 강좌를 폐강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이것은 학교와 학부모와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 국고 지원자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국고 지원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석을 자주 하고 준비물의 미비 등의 문제와 함께 중도탈락자가 많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무조건 국고지원자로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중한 국고의 낭비이기 때문에 선발과 관리 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우수한 강사의 확보 및 관리상의 문제

특기·적성교육의 질은 강사의 질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인력 풀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를 채용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미 다른 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 학교 정도 더 맡기려고 해도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정규 교과 공부가 끝난 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겹쳐서 불가능하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교육비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저렴한 강사로로는 우수한 강사를 채용하기가 어렵다. 또 유능한 강사는 이미 다른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질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역시 강사가 채용되어 부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도, 강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후속 강사를 채용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교육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강사의 질적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다. 특가·적성교육 강사는 몇 명의 후보 강사들 중 시간이 가능한 강사를 채용하다 보니, 질적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대부분 기능은 우수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생을 학습시키는 교수법을 모르며, 생활 지도와 교실 청소 및 관리를 하지 않아서 교실을 빌려주는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육 활동 후 학교 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다.

(4) 특가·적성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및 환경 문제

특가·적성교육을 하는데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방과 후에 교실을 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실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 곳에서 운영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으나, 부서 및 참여 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교실 중 주로 저학년의 교실을 돌아가며 빌려 쓰는 실정이다 보니, 교실에서 교재 연구와 학급 업무를 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특가·적성교육 활동은 대부분 특별실을 이용하거나 일반 학급 교실을 빌려 쓰는 형편이다 보니, 활동 결과물이나 우수 작품을 게시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며,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학습 환경으로 꾸미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강사들조차도 교실에 대한 애착이 없고, 학습하기에 알맞은 환경 구성에 대한 생각도 없다고 하겠다. 또한 사설 학원에 비하여 열악한 교실 환경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며, 기타 편의 시설도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함은 특가·적성 교육 자체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으로 작용한다.

(5) 교육청의 강사연수 및 지원 문제

특가·적성 강사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 교육학이나 교수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능은 우수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강사들의 연수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는 하나 담당교사나 부장, 교감, 교장의 힘만으로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특가·적성 강사들은 학생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초등 교사들에 비해 책임감이 부족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교사라는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뜨내기란 생각으로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분으로 근무하는 강사들도 있다. 단순히 시간만 채우면 강사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사명감이 부족하다. 한편, 학교에 따라서는 강사 수칙이나 강사 근무 규정을 만들고 철저하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으며, 강사들을 연수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학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한 현실이다.

(6) 특기·적성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 문제

학교와 지역 교육청 및 서울시 교육청의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교무실과 과학실에는 사무 보조원이 있으나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한 특별활동 업무량은 그 이상인데도 업무를 전담하거나 도와줄 보조원이 없는 현실이다. 특기·적성을 맡은 교사는 학교에서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하고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각 지역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에도 광범한 특별활동 교육 전체를 담당하는 전문직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오늘날의 특기·적성교육은 교사 한 사람이나 특별활동 부장 혼자서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7) 특기·적성교육의 평가 및 환류의 문제

학부모들은 평가와 학생의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해 주느냐를 관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교육 활동비를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즉시 알고자 한다. 특기·적성 교육이 사설 학원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성취도 및 활동 내용을 즉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점에 있어서 사설 학원 보다 늦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분기별 혹은 학기별로 평가 결과를 가정에 통지하며,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강사들의 문제와 학교교육 자체의 구조상 학부모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III.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조사

1. 조사방법

초등학교 시절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 기회를 많이 갖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의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일선 초등학교 교장, 교사, 장학사, 학부모, 문화예술교육전문가 등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

설문조사를 위한 대상 교육청의 표집은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지역 교육청 및 학교수를 고려하여 150개(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전체 지역교육청의 약 82.4%에 해당)를 무선 표집하였다. 즉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을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종 150개를 정하였다. 표집된 150개 지역 교육청의 초등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청용 설문지는 교육청별로 각 3명씩 총 450부를 배부하였고, 초등교육과장(혹은 초등교육담당)의 책임하에 수집 및 반송토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 학회 및 단체의 표집은 본 연구목적이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관련 학회로 국한하여 8개 단체를 유목적 표집하였다. 즉 음악, 미술, 무용, 연극·영화의 4개 예술분야별로 구분하여 8개 문화예술교육관련학회를 정하였다. 관련 학회용 설문지는 단체별 각 2명씩 총 16부를 배부하였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개별적으로 반송토록 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용 설문지는 표집한 213개교를 대상으로 총 1,278부를 배부하였다. 154개교에서 총 924명이 응답하여 약 72.30%의 회수율을 보였고, 지역 교육청용 설문지는 표집 대상 150개 중에서 97개 교육청에서 290명이 응답하여 약 64.44%의 회수율을 보였다. 문화예술교육관련 학회용 설문지는 표집대상 8개 단체 중 6개 단체에서 12명이 응답하여 75%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 조사를 위한 대상 초등학교의 표집은 16개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비례 유층 표집하여 213개교(16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전체 초등학교의

약 3.5%에 해당)를 무선 표집하였다. 즉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을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으로 구분한 후 학교 규모에 따라 대(학생수 1,500 이상), 중(학생수 1,000~1,500명), 소(학생수 1,000명 이하)로 구분하여 최종 213개교를 정하였다. 표집된 213개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용 설문지는 학교별로 6개 학년 각 1명씩 총 1,278부를 배부하였고, 학교장의 책임하에 수집 및 반송토록 요청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총 1,226명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전체 설문지 회수율은 <표 4>와 같다. 조사 대상의 배경변인별 분포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4>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회수율

구분	초등학교			교육청			관련학회		
	배포	회수	회수율(%)	배포	회수	회수율	배포	회수	회수율
서울특별시	108	62	57.40	33	21	63.63	16	12	75.00
부산광역시	126	59	46.82	15	9	60.00	-	-	-
대구광역시	60	59	98.33	12	9	75.00	-	-	-
인천광역시	60	49	81.66	32	10	31.25	-	-	-
광주광역시	72	55	76.38	6	4	66.66	-	-	-
대전광역시	78	55	70.51	6	4	66.66	-	-	-
울산광역시	60	46	76.66	6	3	50.00	-	-	-
경기도	204	164	80.39	60	37	61.66	-	-	-
강원도	60	46	76.66	51	38	74.50	-	-	-
경상남도	90	52	57.77	49	30	61.24	-	-	-
경상북도	90	55	61.11	57	36	63.15	-	-	-
전라남도	60	47	78.33	24	15	62.50	-	-	-
전라북도	60	54	90.00	21	14	66.66	-	-	-
충청남도	60	53	88.33	39	30	76.92	-	-	-
충청북도	60	48	80.00	30	24	80.00	-	-	-
제주도	30	20	66.66	9	6	66.66	-	-	-
계	1,278	924	72.30	450	290	64.44	16	12	75.00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서 얻기 어려운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된 사실적 정보나 내용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책임자, 교원(담임교사, 문화예술 분야 교과전담교사, 특기적성 담당 교사 등)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1차에 한하여 대도시권 및 중소도시권 각 1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나. 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로서 연구진이

제작하여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작성된 것이다(설문지는 부록 1 참조). 설문지는 초등학교 교사용, 지역 교육청용, 관련학회 및 단체용의 3종류가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설문지는 초등학교 교육과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수업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설문지는 일차적으로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수업 실태 파악을 위해 16개 시도별 각 10개 초등학교와 지역 교육청, 관련 학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5> 초등학교 교사용 설문지 내용 구성

항 목	설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교사 및 학교	해당지역, 학교소재, 성별, 나이, 교직경력, 학교규모, 학급당 학생수, 담당학년	1~8	8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시행 여부 및 참여율	1	2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주당 빈도	2	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주당 수업시간	3	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서 예술관련 수업 장소	4	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서 예술관련 수업 담당교사	5	1
	예술관련 외부강사의 수업평가 여부	6	2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중 예술관련 수업의 학부모 만족도	7	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중 예술관련 수업의 학생 만족도	8	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재능 개발 여부	9	1
재량활동 및 교과활동	학교의 교육목표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목표 채택 여부	10	1
	재량활동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활동의 유형	11	2
	재량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1
	무용, 연극·영화와 관련된 교과단원의 교수 방법	13	1
	예술관련 교과지도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14	1
	예술관련 전문교사의 필요성	15	1
	예술관련 교과와 효과적 지도방안	16	1
	학교 행정책임자, 교사, 학부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17	1
	현행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개선방안	18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행사)	19	1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20	1
총문항수	31개 문항		

설문지 구성내용은 교사용 설문지의 경우에 크게 교사 및 학교에 대한 항목, 방과후 특기·적성활동, 재량과 교과활동과 관련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교사 및 학교에 대한 항목은 해당지역, 학교 소재, 성별, 나이, 교직경력,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 수, 담당 학

년 등에 관한 내용이며, 방과후 특기·적성활동에 대한 항목은 방과후 특기·적성활동의 시행 여부, 빈도, 시간, 장소, 담당교사, 평가, 만족도, 참여효과 등에 관한 내용이며, 재량과 교과활동에 대한 항목은 주로 재량활동의 유형, 학생의 참여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습방법, 학업성취도, 예술관련 전문교사의 필요성, 교수방법,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세분화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5 참조).

교육청용 설문지는 크게 교원에 대한 기초조사 항목 및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교과수업, 재량활동, 특별활동,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에 대한 기초조사 항목은 해당지역, 성별, 나이, 교직경력, 전문직 경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교과수업, 재량활동, 특별활동,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항목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 필요성, 무용과 연극영화의 교과독립, 지원사항, 지도 및 감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구성되어 있다(표 6 참조). 그리고 관련학회 및 단체용 설문지는 주로 현행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통합적 운영이 인식 등의 3가지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7 참조).

<표 6> 교육청용 설문지 내용 구성

항 목	설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교원	해당지역, 성별, 나이, 교직경력, 전문직 경력	1~5	5
예술관련 교과 및 교과의 활동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	1	1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2	1
	무용과 연극·영화의 교과독립 필요성 여부	3	1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	4	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운영현황에 대한 지도 감독	5	1
	학교행정 책임자, 교사, 학부모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6	1
	현행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점	7	1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	8	1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9	1
총문항수	총 14문항		

심층면담은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직접 실시하였다. 주요 면접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점 및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내담자 면담 시 활

용할 수 있는 면담지를 개발하였으며, 연구보조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7> 관련학회 및 단체용 설문지 내용 구성

항 목	설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문화예술 교육	현행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1	1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2	1
	초등학교 문화예술관련 교과와 통합적 운영	3	1
총문항수	총 3문항		

다. 자료분석

설문조사의 자료분석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 중 개방형 문항에 대한 응답과 면담내용은 내용분석을 통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빈도분석이 이용되었고, 필요한 경우에 응답자 특성별로 교차분석이 적용되었다(부록 2 참조). 이때 검정 통계량은 피어슨 카이 제곱(Pearson's χ^2)을 사용하였다. 검정에 사용된 유의도 수준은 $p < .05$ 이었다.

2. 조사결과 및 해석

가. 방과후 특기·적성활동

특기·적성활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실시 유무 및 실시 시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 94.4%를 차지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특기·적성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표 8>에서와 같이, 학교 규모가 크고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초등학교일수록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시행 현황

학교 특성		반응 빈도(%)		전체(%)
		시행	미시행	
학교 소재	대도시	383(95.5)	18(4.5)	401(100.0)
	중소도시	390(94.2)	25(5.8)	414(100.0)
	읍면	99(90.8)	10(9.2)	109(100.0)
	전체	872(94.4)	52(5.6)	924(100.0)
학교 규모	12학급 이하	24(82.8)	5(17.2)	29(100.0)
	13-30학급 이하	220(88.4)	29(11.6)	249(100.0)
	31학급 이상	628(97.2)	14(5.9)	646(100.0)
	전체	872(94.4)	52(5.6)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2(40.0)	3(60.0)	5(100.0)
	11-20명 이하	6(1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07(77.5)	31(22.5)	138(100.0)
	31-40명 이하	608(97.5)	16(2.6)	624(100.0)
	41명 이상	149(98.7)	2(1.3)	151(100.0)
	전체	872(94.4)	52(5.6)	924(100.0)

<표 9>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운영 횟수에 대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주당 1-2회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주당 3-4회가 34.1%, 매일 실시가 11.8%, 그리고 주당 1회 미만인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초등학교 대부분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당 1-2회 실시하는 학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9>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운영 횟수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매일	주당 3-4회	주당 1-2회	주당 1회미만	
학교소재	대도시	45(11.2)	151(37.7)	199(49.6)	6(1.5)	401(100.0)
	중소도시	60(14.5)	131(31.6)	215(51.9)	8(1.9)	414(100.0)
	읍면	4(3.7)	33(30.3)	72(66.1)	0(0.0)	109(100.0)
	전체	401(11.8)	414(34.1)	109(52.6)	14(1.5)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0(0.0)	8(27.6)	16(55.2)	5(17.2)	29(100.0)
	13~30학급 이하	28(11.2)	82(32.9)	132(53.0)	7(2.8)	249(100.0)
	31학급 이상	81(12.5)	225(34.8)	338(52.3)	2(0.3)	646(100.0)
	전체	109(11.8)	315(34.1)	486(52.6)	14(1.5)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5(100.0)	0(0.0)	5(100.0)
	11~20명 이하	2(33.3)	3(50.0)	1(16.7)	0(0.0)	6(100.0)
	21~30명 이하	16(11.6)	47(34.1)	71(51.4)	4(2.8)	138(100.0)
	31~40명 이하	78(12.5)	224(35.9)	314(50.3)	8(1.3)	624(100.0)
	41명 이상	13(8.6)	41(27.2)	95(62.9)	2(1.3)	151(100.0)
	전체	109(11.8)	315(34.1)	486(52.6)	14(1.5)	924(100.0)

<표 10>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특성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수업시간에 대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주당 3-4시간이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주당 2-3시간이 31.3%, 주당 4-5시간이 11.6%, 주당 1-2시간이 10.3%, 그리고 주당 6시간이 9.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현재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주당 3-4시간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수업 시간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주 6시간 이상	주 4-5시간	주 3-4시간	주 2-3시간	주 1-2시간	
학교소재	대도시	36(9.0)	39(9.7)	158(39.4)	138(34.4)	30(7.5)	401(100.0)
	중소도시	43(10.4)	51(12.3)	163(39.4)	116(28.0)	41(9.9)	414(100.0)
	읍면	5(4.6)	17(15.6)	28(25.7)	35(32.1)	24(22.0)	109(100.0)
	전체	84(9.1)	107(11.6)	349(37.8)	289(31.3)	95(10.3)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0(0.0)	6(20.7)	11(37.9)	12(41.4)	0(0.0)	29(100.0)
	13~30학급 이하	27(10.8)	24(9.6)	84(33.7)	85(34.1)	29(11.6)	249(100.0)
	31학급 이상	57(8.8)	77(11.9)	254(39.3)	192(29.7)	66(10.2)	646(100.0)
	전체	84(9.1)	107(11.6)	349(37.8)	289(31.3)	95(10.3)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0(0.0)	5(100.0)	0(0.0)	5(100.0)
	11~20명 이하	2(33.3)	0(0.0)	4(66.7)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1(8.0)	14(10.1)	59(42.8)	44(31.9)	10(7.2)	138(100.0)
	31~40명 이하	61(9.8)	76(12.2)	227(36.4)	197(31.6)	63(10.1)	624(100.0)
	41명 이상	10(6.6)	17(11.3)	59(39.1)	43(28.5)	22(14.6)	151(100.0)
	전체	84(9.1)	107(11.6)	349(37.8)	289(31.3)	95(10.3)	924(100.0)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예술관련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1>과 같다. 조사 결과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학교가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학교내 일반공간이 37.9%, 예술관련 수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특별실이 18.2%, 체육관 혹은 시청각실이 3.5%, 기타가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방과후 시간에 시작된 특기·적성교육은 실제로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과 정규 수업을 위한 기타 시설을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 후의 교실을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교실로 연계 활용하고 있는데, 별도의 교사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수업을 위한 교사의 방과후 준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왕석순, 2000). 이 점에서 전용공간의 문제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설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

안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보다 효율적인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표 11>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수업 공간

학교 특성		반응면도(%)					전체(%)
		시설 갖춘 특별실	학교내 일반공간	체육관/ 시정각실	교실	기타	
학교소재	대도시	96(23.9)	118(29.4)	15(3.7)	170(42.4)	2(0.5)	401(100.0)
	중소도시	50(12.1)	179(43.2)	12(2.9)	157(37.9)	16(3.9)	414(100.0)
	읍면	22(20.2)	54(49.5)	5(4.6)	26(23.9)	2(1.8)	109(100.0)
	전체	168(18.2)	351(49.5)	32(3.5)	353(38.2)	20(2.2)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3(10.3)	0(0.0)	8(27.6)	18(62.1)	0(0.0)	29(100.0)
	13~30학급 이하	55(22.1)	90(36.1)	6(2.4)	92(36.9)	6(2.4)	249(100.0)
	31학급 이상	110(17.0)	261(40.4)	18(2.8)	243(37.6)	14(2.2)	646(100.0)
	전체	168(18.2)	351(38.0)	32(3.5)	353(38.2)	20(2.2)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0(0.0)	5(100.0)	0(0.0)	5(100.0)
	11~20명 이하	0(0.0)	3(50.0)	0(0.0)	3(50.0)	0(0.0)	6(100.0)
	21~30명 이하	36(26.1)	43(31.2)	2(1.4)	54(39.1)	3(2.2)	138(100.0)
	31~40명 이하	117(18.8)	245(39.3)	27(4.3)	224(35.9)	11(1.8)	624(100.0)
	41명 이상	15(9.9)	60(39.7)	3(2.0)	67(44.4)	6(4.0)	151(100.0)
	전체	168(18.2)	351(38.0)	32(3.5)	353(38.2)	20(2.2)	924(100.0)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예술관련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특기·적성강사가 9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담임교사 3.5%, 교과전담교사 3.4%, 전문예술가 1.6%, 자원봉사자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강사가 수업을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교육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의 책무성과 열성, 그리고 자질에 있다.

특히 예술분야의 특기·적성교육의 성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 자질을 갖춘 프로그램 지도자인 담당 강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강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전문적 식견을 갖춘 동시에 학생지도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여러 자질을 갖춘 풍부한 인적 자원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각 예술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능적 측면이 아닌 교육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강사의 확보와 재교육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담당교사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특기적성강사	자원봉사자	전문예술가	
학교소재	대도시	13(3.2)	18(4.5)	357(89.0)	0(0.0)	13(3.2)	401(100.0)
	중소도시	16(3.9)	8(1.9)	387(93.5)	1(0.2)	2(0.5)	414(100.0)
	읍면	3(2.8)	5(4.6)	101(92.7)	0(0.0)	0(0.0)	109(100.0)
	전체	32(3.5)	31(3.4)	845(91.5)	1(0.1)	15(1.6)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0(0.0)	10(34.5)	12(41.4)	0(0.0)	7(24.1)	29(100.0)
	13~30학급 이하	14(5.6)	11(4.4)	217(87.1)	0(0.0)	7(2.8)	249(100.0)
	31학급 이상	18(2.8)	10(1.5)	616(95.4)	1(0.2)	1(0.2)	646(100.0)
	전체	21(3.5)	31(3.4)	845(91.5)	1(0.1)	15(1.6)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5(100.0)	0(0.0)	0(0.0)	5(100.0)
	11~20명 이하	0(0.0)	0(0.0)	6(100.0)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0(7.2)	9(6.5)	115(83.3)	0(0.0)	4(2.9)	138(100.0)
	31~40명 이하	17(2.7)	22(3.5)	574(92.0)	0(0.0)	11(1.8)	624(100.0)
	41명 이상	5(3.3)	0(0.0)	145(96.0)	1(0.7)	0(0.0)	151(100.0)
	전체	32(3.5)	31(3.4)	845(91.5)	1(0.1)	15(1.6)	924(100.0)

초등학교 운영책임자 및 동료교사의 외부강사에 대한 수업평가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외부강사의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교가 전체 4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부강사의 수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초등학교 중 조금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3.4%, 보통이다가 19.8%, 매우 만족한다가 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강사에 대한 학교의 평가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다	전혀 만족하지 않다	미평가	
학교소재	대도시	15(3.7)	107(26.7)	86(21.4)	5(1.2)	2(0.5)	186(46.4)	401(100.0)
	중소도시	14(3.4)	95(22.9)	83(20.0)	4(1.0)	0(0.0)	218(52.7)	414(100.0)
	읍면	0(0.0)	14(12.8)	14(12.8)	2(1.8)	0(0.0)	79(72.5)	109(100.0)
	전체	29(3.1)	216(23.4)	183(19.8)	11(1.2)	2(0.2)	483(52.3)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1(3.4)	6(20.7)	8(27.6)	0(0)	0(0.0)	14(48.3)	29(100.0)
	13~30학급 이하	8(3.2)	64(25.7)	33(13.3)	6(2.4)	2(0.8)	136(54.6)	249(100.0)
	31학급 이상	20(3.1)	146(22.6)	142(22.0)	5(0.8)	0(0.0)	333(51.5)	646(100.0)
	전체	29(3.1)	216(23.4)	183(19.8)	11(1.2)	2(0.2)	483(52.3)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0(0.0)	0(0.0)	0(0.0)	5(100.0)	5(100.0)
	11~20명 이하	0(0.0)	22(3.3)	0(0.0)	0(0.0)	0(0.0)	4(66.7)	6(100.0)
	21~30명 이하	7(5.1)	22(15.9)	13(9.4)	1(0.7)	2(1.4)	93(67.4)	138(100.0)
	31~40명 이하	17(2.7)	150(24.0)	130(20.8)	8(1.3)	0(0.0)	319(51.5)	624(100.0)
	41명 이상	5(3.3)	42(27.8)	40(23.0)	2(1.3)	0(0.0)	62(41.1)	151(100.0)
	전체	29(3.1)	216(23.4)	183(19.8)	11(1.2)	2(0.2)	483(52.3)	924(100.0)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외부강사의 수업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기·적성교육은 가급적 외부의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학교 특성에 따라 강사가 확보가 어렵거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만큼의 수요자 소요 경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교육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의 담당은 교사와 외부강사의 이원적 구조가 병행되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파악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예술분야 특기·적성교육과 관련된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와 같이 조금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교가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6.2%, 매우 만족한다가 7.1%, 만족하지 않다가 1.5%, 전혀 만족하지 않다가 0.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 역시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부 강사의 경우에는 양적인 확보 방안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부 강사의 경우에는 그들의 전문 지식에 대한 우려보다는 교육자적인 자질과 이에 의한 책무성 부족이 지적된 바 있다(조종렬, 2000).

<표 14>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학교 특성		만족빈도(%)					전체(%)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다	전혀 만족하지 않다	
학교소재	대도시	36(9.0)	190(47.4)	164(40.9)	9(2.2)	2(0.5)	401(100.0)
	중소도시	22(5.3)	187(45.2)	200(48.3)	4(1.0)	1(0.2)	414(100.0)
	읍면	8(7.3)	37(33.9)	63(57.8)	1(0.9)	0(0)	109(100.0)
	전체	66(7.1)	414(44.8)	427(46.2)	14(1.5)	3(0.3)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1(3.4)	15(51.7)	13(44.8)	0(0.0)	0(0.0)	29(100.0)
	13~30학급 이하	22(8.8)	101(40.6)	118(47.4)	5(2.0)	3(1.2)	249(100.0)
	31학급 이상	43(6.7)	298(46.1)	296(45.8)	14(1.4)	0(0.0)	646(100.0)
	전체	66(7.1)	414(44.8)	427(46.2)	14(1.5)	3(0.3)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5(100.0)	0(0.0)	0(0.0)	5(100.0)
	11~20명 이하	1(16.7)	4(66.7)	1(16.7)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5(10.9)	48(34.8)	70(50.7)	3(2.2)	2(1.4)	138(100.0)
	31~40명 이하	41(6.6)	286(45.8)	289(46.3)	8(1.3)	0(0.0)	624(100.0)
	41명 이상	9(6.0)	76(50.3)	623(41.1)	3(2.0)	1(0.7)	151(100.0)
	전체	66(7.1)	414(44.8)	427(46.2)	14(1.5)	3(0.3)	924(100.0)

이러한 관점에서 외부 강사의 교육학적인 자질의 함양을 위하여 연 2회의 계약 채용 학교 단위의 교학 일반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외부 강사의 교수·학습 지도안의 검토 및 지도는 관리

교사와의 협조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외에 정기적인 수업공개와 관찰, 그리고 강의 평가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낮은 수당으로 교육의 일부를 감당하여 주는 외래 강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현직 교사와의 상호관계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 연수의 증진에 따라 교과 전담 계약직 교사, 명예교사, 또는 유관 청소년 단체 및 어린이 문화관 담당 교사 등의 전환 및 승진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질 높은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과 관련된 수업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조금 만족한다가 4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보통이다 37.4%, 매우 만족한다 1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이 대체적으로 관련 수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

학교 특성		반응반도(%)					전체(%)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다	전혀 만족 하지 않다	
학교소재	대도시	47(11.7)	199(49.6)	148(36.9)	5(1.2)	2(0.5)	401(100.0)
	중소도시	42(10.1)	209(50.5)	151(36.5)	11(2.7)	1(0.2)	414(100.0)
	읍면	8(7.3)	53(48.6)	47(43.1)	1(0.9)	0(0)	109(100.0)
	전체	97(10.5)	461(49.9)	346(37.4)	17(1.8)	3(0.3)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1(3.4)	16(55.2)	12(41.4)	0(0.0)	0(0.0)	29(100.0)
	13~30학급 이하	23(9.2)	112(45.0)	103(41.4)	8(3.2)	3(1.2)	249(100.0)
	31학급 이상	73(11.3)	333(51.5)	231(35.8)	9(1.4)	0(0.0)	646(100.0)
	전체	97(10.5)	461(49.9)	346(37.4)	17(1.8)	3(0.3)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5(100.0)	0(0.0)	0(0.0)	5(100.0)
	11~20명 이하	1(16.7)	4(66.7)	1(16.7)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8(13.0)	50(36.2)	62(44.9)	6(4.3)	2(1.4)	138(100.0)
	31~40명 이하	64(10.3)	320(51.3)	230(36.9)	10(1.6)	0(0.0)	624(100.0)
	41명 이상	14(9.3)	87(57.6)	48(31.8)	1(0.7)	1(0.7)	151(100.0)
	전체	97(10.5)	461(49.9)	346(37.4)	17(1.8)	3(0.3)	924(100.0)

지금까지 방과후 특기·적성활동 중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수업에 대하여 학교 행정책임자, 동료교사, 학부모 및 아동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조금 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은 성별, 교직경력별, 전문직경력별 장학사들의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응이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조금 만족한다 33.4%, 만족하지 않다 15.2%, 매우 만족한다 5.2%, 전혀 만족하지 않다 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교육청의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다	전혀 하지 않다	
성별	남자	12(4.1)	77(26.6)	87(30.0)	25(8.6)	2(0.7)	203(70.0)
	여자	3(1.0)	20(6.9)	43(14.8)	19(6.6)	2(0.7)	87(30.0)
	전체	15(5.2)	97(33.4)	130(44.8)	44(15.2)	4(1.4)	290(100.0)
교직 경력	5년 이하	0(0.0)	0(0.0)	0(0.0)	0(0.0)	0(0.0)	0(0.0)
	6~10년	0(0.0)	2(0.7)	1(0.3)	2(0.7)	0(0.0)	5(1.7)
	11~20년	0(0.0)	10(3.4)	19(6.6)	4(1.4)	0(0.0)	33(11.4)
	21년 이상	15(5.2)	85(29.3)	110(37.9)	38(13.1)	4(1.4)	252(86.9)
	전체	15(5.2)	97(33.4)	130(44.8)	44(15.2)	4(1.4)	290(100.0)
전문직 경력	1년 이하	5(1.7)	23(7.9)	32(11.0)	18(6.2)	2(0.7)	80(27.6)
	2~3년	6(2.1)	34(11.7)	70(24.1)	15(5.2)	1(0.3)	126(43.4)
	4~5년	1(0.3)	16(5.5)	23(7.9)	5(1.7)	0(0.0)	45(15.5)
	5년 이상	3(1.0)	24(8.3)	5(1.7)	6(2.1)	1(0.3)	39(13.4)
	전체	15(5.2)	97(33.4)	130(44.8)	44(15.2)	4(1.4)	290(100.0)

<표 17>은 지역 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조사 결과 매 학기당 1~2회 방문이 56.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년 1회 방문이 21.0%, 매 학기당 3~4회 방문이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혀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육청도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교육청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학교현장 방문

구분	반응빈도	백분율(%)
학기당 1~2회	165	56.9
학기당 3~4회	42	14.5
년 1회	61	21.0
하지 않는다	16	5.5
기타	6	2.1
전체	290	100.0

마지막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중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아동들의 재능이 개발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에서와 같이, 조금 개발되었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 54.4%로 특기·적성교육이 아동의 재능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다 26.9%, 많이 개발되었다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만으로 아동의 재능 발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재량활동 시간의 활동내용을 특기·적성교육 활동과 연계

지도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교과재량보다는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교육부, 1997),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의 실제적인 경험의 장을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당 1시간으로 특별활동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건전한 취미를 가지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별활동의 목적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별활동의 일부인 학내의 각종 행사 활동 시간에 이러한 특기·적성시간에 연마한 기능과 능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주는 것도 좋은 연계 방안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특별활동 내 적응활동 중의 하나인 진로활동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아니나, 이러한 진로활동과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미래 진로 인식 및 진로 탐색, 진로 설계의 교육적 활동과 연계 지도될 수 있다.

<표 18>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재능개발 효과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많이 개발되었다	조금 개발되었다	보통이다	개발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학교소재	대도시	72(18.0)	216(53.9)	98(24.4)	10(2.5)	5(1.2)	401(100.0)
	중소도시	58(14.0)	225(54.3)	117(28.3)	8(1.9)	6(1.4)	414(100.0)
	읍면	10(9.2)	62(56.9)	34(31.2)	1(0.9)	2(1.8)	109(100.0)
	전체	140(15.2)	503(54.4)	249(26.9)	19(2.1)	13(1.4)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4(13.8)	16(55.2)	9(31.0)	0(0.0)	0(0.0)	29(100.0)
	13~30학급 이하	32(12.9)	120(48.2)	88(35.3)	5(2.0)	4(1.6)	249(100.0)
	31학급 이상	104(16.1)	367(56.8)	152(23.5)	14(2.2)	9(1.4)	646(100.0)
	전체	140(15.2)	503(54.4)	249(26.9)	19(2.1)	13(1.4)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5(100.0)	0(0.0)	0(0.0)	5(100.0)
	11~20명 이하	1(16.7)	4(66.7)	1(16.7)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3(9.4)	53(38.4)	67(48.6)	5(3.6)	0(0.0)	138(100.0)
	31~40명 이하	103(16.5)	362(58.0)	136(21.8)	13(2.1)	10(1.6)	624(100.0)
	41명 이상	23(15.2)	84(55.6)	40(26.5)	1(0.7)	3(2.0)	151(100.0)
	전체	140(15.2)	503(54.4)	249(26.9)	19(2.1)	13(1.4)	924(100.0)

나. 재량활동 및 교과활동

초등학교의 교육목표 속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목표가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9>에서와 같이 학교 교육목표 속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의 6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

은 17.3%,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초등학교 교육목표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9> 초등학교 교육목표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목표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학교소재	대도시	259(64.6)	68(17.0)	74(18.5)	401(100.0)
	중소도시	283(68.4)	62(15.0)	69(16.7)	414(100.0)
	읍면	75(68.8)	17(15.6)	17(15.6)	109(100.0)
	전체	617(66.8)	147(15.9)	160(17.3)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25(86.2)	3(10.3)	1(3.4)	29(100.0)
	13~30학급 이하	144(57.8)	56(22.5)	49(19.7)	249(100.0)
	31학급 이상	448(69.3)	88(13.6)	110(17.0)	646(100.0)
	전체	617(66.8)	147(15.9)	160(17.3)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5(100.0)	5(100.0)
	11~20명 이하	1(16.7)	5(83.3)	0(0.0)	6(100.0)
	21~30명 이하	74(53.6)	31(22.5)	33(23.9)	138(100.0)
	31~40명 이하	422(67.6)	93(14.9)	109(17.5)	624(100.0)
	41명 이상	120(79.5)	18(11.9)	13(8.6)	151(100.0)
	전체	617(66.8)	147(15.9)	160(17.3)	924(100.0)

초등학교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운영하는 주요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0>에 제시하였다. <표 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량활동 중 정보화관련 활동이 6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과관련 활동이 19.3%, 예술관련 활동이 7.6%, 기타 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재량활동 시간에 주로 컴퓨터 관련 수업이나 교과 관련 활동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예술관련 활동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재량활동 시간을 예술관련 활동과 연계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용, 연극·영화와 관련된 교과단원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 교재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친다가 전체의 5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설명식 교수법으로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친다가 34.3%, 전담교사나 강사의 도움을 받아 가르친다가 3.4%, 자원인사 및 전공자를 초빙해 가르친다가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과 연극·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에게는 이중적 부담을 줄뿐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에 근거한 수업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표 20> 재량활동 시간의 활동 유형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예술관련 활동	정보화관련 활동	교과관련 활동	기타활동	
학교소재	대도시	41(10.2)	260(64.8)	82(20.4)	18(4.5)	401(100.0)
	중소도시	23(5.6)	305(73.7)	69(16.7)	17(4.1)	414(100.0)
	읍면	7(6.4)	68(62.4)	27(24.8)	7(6.4)	109(100.0)
	전체	71(7.7)	633(68.5)	178(19.3)	42(4.5)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13(44.8)	11(37.9)	5(17.2)	0(0.0)	29(100.0)
	13~30학급 이하	22(8.8)	168(67.5)	46(18.5)	13(5.2)	249(100.0)
	31학급 이상	36(5.6)	454(70.3)	127(19.7)	29(4.5)	646(100.0)
	전체	71(7.7)	633(68.5)	178(19.3)	42(4.5)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5(100.0)	0(0.0)	0(0.0)	5(100.0)
	11~20명 이하	0(0.0)	6(100.0)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1(8.0)	103(74.6)	18(13.0)	6(4.3)	138(100.0)
	31~40명 이하	54(8.7)	417(66.8)	123(19.7)	30(4.8)	624(100.0)
	41명 이상	6(4.0)	102(67.5)	37(24.5)	6(4.0)	151(100.0)
	전체	71(7.7)	633(68.5)	178(19.3)	42(4.5)	924(100.0)

<표 21> 무용 및 연극·영화와 관련된 교과단원 교수방법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설명식 교수법으로 교과지도	교재연구를 통한 다양한 방법	전담교사나 강사의 도움 받아 지도	자원인사 및 전공자 초빙 지도	기타	
학교소재	대도시	126(31.4)	212(52.9)	31(7.7)	15(3.7)	17(4.2)	401(100.0)
	중소도시	142(34.3)	214(51.7)	27(6.5)	12(2.9)	19(4.6)	414(100.0)
	읍면	50(45.9)	41(37.6)	7(6.4)	4(3.7)	7(6.4)	109(100.0)
	전체	318(34.4)	467(50.5)	65(7.0)	31(3.4)	43(4.7)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3(10.3)	17(58.6)	4(13.8)	5(17.2)	0(0)	29(100.0)
	13~30학급 이하	91(36.5)	99(39.8)	26(10.4)	20(8.0)	13(5.2)	249(100.0)
	31학급 이상	224(34.7)	351(54.3)	35(5.4)	6(0.9)	30(4.6)	646(100.0)
	전체	318(34.4)	467(50.5)	65(7.0)	31(3.4)	43(4.7)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3(60.0)	2(40.0)	0(0.0)	0(0.0)	0(0.0)	5(100.0)
	11~20명 이하	0(0.0)	4(66.7)	2(33.3)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48(34.8)	60(43.5)	12(8.7)	11(8.0)	7(5.1)	138(100.0)
	31~40명 이하	223(35.7)	313(50.2)	44(7.1)	18(2.9)	26(4.2)	624(100.0)
	41명 이상	44(29.1)	88(58.3)	7(4.6)	2(1.3)	10(6.6)	151(100.0)
	전체	223(34.4)	313(50.5)	44(7.0)	18(3.4)	26(4.7)	924(100.0)

<표 22>는 교육청의 장학사를 대상으로 무용 및 연극·영화의 교과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교과독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응이 전체 4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보통이다 17.6%, 전혀 그렇지 않다 16.6%, 조금 그렇다 15.9%, 매우 그렇다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 및 연극·영화가 교과독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 교육청의 무용 및 연극·영화의 교과독립 필요성 인식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남자	6(2.1)	28(9.7)	33(11.4)	99(34.1)	37(12.8)	203(70.0)
	여자	4(1.4)	18(6.2)	18(6.2)	36(12.4)	11(3.8)	87(30.0)
	전체	10(3.4)	46(15.9)	51(17.6)	135(46.6)	48(16.6)	290(100.0)
교직 경력	5년 이하	0(0.0)	0(0.0)	0(0.0)	0(0.0)	0(0.0)	0(0.0)
	6~10년	2(0.7)	0(0.0)	0(0.0)	3(1.0)	0(0.0)	5(1.7)
	11~20년	0(0.0)	14(4.8)	6(2.1)	9(3.1)	4(1.4)	33(11.4)
	21년 이상	8(2.8)	32(11.0)	45(15.5)	123(42.4)	44(15.2)	252(86.9)
	전체	10(3.4)	46(15.9)	51(17.6)	135(46.6)	48(16.6)	290(100.0)
전문직 경력	1년 이하	6(2.1)	13(4.5)	16(5.5)	36(12.4)	9(3.1)	80(27.6)
	2~3년	2(0.7)	22(7.6)	14(4.8)	68(23.4)	20(6.9)	126(43.4)
	4~5년	1(0.3)	8(2.8)	12(4.1)	14(4.8)	10(3.4)	45(15.5)
	5년 이상	1(0.3)	3(1.0)	9(3.1)	17(5.9)	9(3.1)	39(13.4)
	전체	10(3.4)	46(15.9)	51(17.6)	135(46.6)	48(16.6)	290(100.0)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량활동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에서와 같이 재량활동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프로그램, 교사, 수업교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349개의 반응빈도 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전체 24.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수업교재 개발이 1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재량활동이 관련 프로그램과 적절한 수업교재가 부족하여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 초등학교 재량활동의 문제점

항 목	빈도	백분율
일부과목에 편중(IT, 한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83	24.7
교사 재량권 확대	23	6.6
강사관리	1	0.2
교사업무 가중	11	3.1
열악한 교육 환경	29	8.3
교내에서 교외활동으로 영역 변경	2	0.5
교사 전문성 함양	12	3.4
전문가 지도 확보	19	5.5
학생 수업 부담 가중	15	4.2
교재(지도안) 개발	47	13.5
학생 전문성 함양	6	1.7
특기적성 교육 시간 부족	25	7.2
체험 중심의 교육	7	2.0
특기적성 교육의 획일적 운영	12	3.5
교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문제	3	0.8
편법적, 형식적 운영(교과보충수업)	7	2.0
자료의 개발	9	2.5
학부모 경제적 부담	2	0.5
예산확보(재정적 지원)	3	0.8
장기적 계획의 수립	13	3.8
지속적 지도	5	1.4
필요분야의 정식교과로 편성	2	0.5
특기적성 학생 수 축소	1	0.2
학생관리의 어려움	1	0.2
교사연수의 필요	2	0.5
교사, 전문 강사의 지도 병행	1	0.2
만족함	3	0.8
성취결과 분석 미흡	1	0.2
교사중심교육으로 편성	2	0.5
교사인식의 부재	1	0.2
학생의사 반영	2	0.5
전 체	349	100

예술과 관련된 교과지도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4>에 제시하였다. <표 24>에서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에서 학업성취도가 60-90%가 된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의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30-50%가 39.1%, 10-30%가 9.1%, 90% 이상이 2.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예술관련 수업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예술관련 교과지도를 통한 아동들의 학업성취도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10-30%	30-50%	60-90%	90% 이상	
학교 소재	대도시	31(7.7)	159(39.7)	203(50.6)	8(2.0)	401(100.0)
	중소도시	39(9.4)	162(39.1)	199(48.1)	14(3.4)	414(100.0)
	읍면	14(12.8)	40(36.7)	53(48.6)	2(1.8)	109(100.0)
	전체	84(9.1)	361(39.1)	455(49.2)	24(2.6)	924(100.0)
학교 규모	12학급 이하	9(31.0)	16(55.2)	4(13.8)	0(0.0)	29(100.0)
	13~30학급 이하	13(5.2)	107(43.0)	121(48.6)	8(3.2)	249(100.0)
	31학급 이상	62(9.6)	238(36.8)	330(51.1)	16(2.5)	646(100.0)
	전체	84(9.1)	361(39.1)	455(49.2)	24(2.6)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3(60.0)	0(0.0)	2(40.0)	5(100.0)
	11~20명 이하	0(0.0)	3(50.0)	3(50.0)	0(0.0)	6(100.0)
	21~30명 이하	3(2.2)	67(48.6)	66(47.8)	2(1.4)	138(100.0)
	31~40명 이하	68(10.9)	233(37.3)	307(49.2)	16(2.6)	624(100.0)
	41명 이상	13(8.6)	55(36.4)	79(52.3)	4(2.6)	151(100.0)
	전체	84(9.1)	361(39.1)	455(49.2)	24(2.6)	924(100.0)

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교사 및 교육청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관련 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들의 다양한 경험과 인성발달을 위한 예술관련 전문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에 서와 같이, 예술관련 전문교사가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의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42.1%, 보통이다 13.0% 등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분야의 교과전담교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교사의 업무 과중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5> 예술관련 전문교사의 필요성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학교소재	대도시	147(36.7)	169(42.1)	62(15.5)	17(4.2)	4(1.0)	2(0.5)	401(100.0)
	중소도시	194(46.9)	153(37.0)	48(11.6)	16(3.9)	2(0.5)	1(0.2)	414(100.0)
	읍면	48(44.0)	43(39.1)	10(9.2)	7(6.4)	1(0.9)	0(0.0)	109(100.0)
	전체	389(42.1)	365(39.5)	120(13.0)	40(4.3)	7(0.8)	3(0.3)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99(46.9)	80(37.9)	28(13.3)	1(0.5)	3(1.4)	0(0.0)	211(100.0)
	6~10년	64(33.0)	85(43.8)	31(16.0)	13(6.7)	1(1.5)	0(0.0)	194(100.0)
	11~20년	94(39.3)	105(43.9)	31(13.0)	7(2.9)	1(0.4)	1(0.4)	239(100.0)
	21년 이상	132(47.1)	95(33.9)	30(10.7)	19(6.8)	2(0.7)	2(0.7)	280(100.0)
	전체	389(42.1)	365(39.5)	120(13.0)	40(4.3)	7(0.8)	3(0.3)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14(48.3)	15(51.7)	0(0.0)	0(0.0)	0(0.0)	0(0.0)	29(100.0)
	13~30학급 이하	111(44.6)	99(39.8)	29(11.6)	7(2.8)	3(1.2)	0(0.0)	249(100.0)
	31학급 이상	264(40.9)	251(38.9)	91(14.1)	33(5.1)	4(0.6)	3(0.5)	646(100.0)
	전체	389(42.1)	365(39.5)	120(13.0)	40(4.3)	7(0.8)	3(0.3)	924(100.0)

<표 26>은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행정책임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학교 행정책임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응이 전체 4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약간 높다(30.6%), 매우 높다(7.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 행정책임자들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보다 더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6> 학교 행정책임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학교소재	대도시	32(8.0)	115(28.7)	200(99.9)	28(7.0)	16(4.0)	10(2.5)	401(100.0)
	중소도시	30(7.2)	135(32.6)	211(51.0)	18(4.3)	17(4.1)	3(0.7)	414(100.0)
	읍면	11(10.1)	33(30.3)	45(41.3)	16(14.7)	3(2.8)	1(0.9)	109(100.0)
	전체	73(7.9)	283(30.6)	456(49.4)	62(6.7)	36(3.9)	14(1.5)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6(2.8)	49(23.2)	115(54.5)	28(13.3)	10(4.7)	3(1.4)	211(100.0)
	6~10년	10(5.2)	58(29.9)	97(50.0)	15(7.7)	9(4.6)	5(2.6)	194(100.0)
	11~20년	19(7.9)	69(28.9)	126(52.7)	14(5.9)	9(3.8)	2(0.8)	239(100.0)
	21년 이상	38(13.6)	107(38.2)	118(42.1)	5(1.8)	8(2.9)	4(1.4)	280(100.0)
	전체	73(7.9)	283(30.6)	456(49.4)	62(6.7)	36(3.9)	14(1.5)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0(0.0)	24(82.8)	5(17.2)	0(0.0)	0(0.0)	0(0.0)	29(100.0)
	13~30학급 이하	23(9.2)	63(25.3)	125(50.2)	26(10.4)	11(4.4)	1(0.4)	249(100.0)
	31학급 이상	50(7.7)	196(30.3)	326(50.5)	36(5.6)	25(3.9)	13(2.0)	646(100.0)
	전체	73(7.9)	283(30.6)	456(49.4)	62(6.7)	36(3.9)	14(1.5)	924(100.0)

<표 27>은 동료교사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동료교사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응이 전체 5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약간 높다(35.1%), 약간 낮다(5.2%), 매우 높다(4.5%) 순으로 나타나 학교 행정책임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27> 동료교사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학교소재	대도시	21(5.2)	142(35.4)	201(50.1)	21(5.2)	4(1.0)	12(3.0)	401(100.0)
	중소도시	15(3.6)	148(35.7)	227(54.8)	18(4.3)	2(0.5)	4(1.0)	414(100.0)
	읍면	6(5.5)	34(31.2)	56(51.4)	9(8.3)	3(2.8)	1(0.9)	109(100.0)
	전체	42(4.5)	324(35.1)	484(52.4)	48(5.2)	9(1.0)	17(1.8)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3(1.4)	73(34.6)	114(54.0)	15(7.1)	2(0.9)	4(1.9)	211(100.0)
	6~10년	7(3.6)	74(38.1)	95(49.0)	11(5.7)	0(0.0)	7(3.6)	194(100.0)
	11~20년	14(5.9)	82(34.3)	128(53.6)	10(4.2)	3(1.3)	2(0.8)	239(100.0)
	21년 이상	18(6.4)	95(33.9)	147(52.5)	12(4.3)	4(1.4)	4(1.4)	280(100.0)
	전체	42(4.5)	324(35.1)	484(52.4)	48(5.2)	9(1.0)	17(1.8)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0(0.0)	22(75.9)	7(24.1)	0(0.0)	0(0.0)	0(0.0)	29(100.0)
	13~30학급 이하	13(5.2)	84(33.7)	136(54.6)	12(4.8)	3(1.2)	1(0.4)	249(100.0)
	31학급 이상	29(4.5)	218(33.7)	341(52.8)	36(5.6)	6(0.9)	16(2.5)	646(100.0)
	전체	42(4.5)	324(35.1)	484(52.4)	48(5.2)	9(1.0)	17(1.8)	924(100.0)

<표 28>은 학부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응이 전체 4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약간 높다고 응답한 반응이 29.9%, 약간 낮다 12.6%, 매우 높다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학교 행정책임자와 동료교사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29>에서와 같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행정책임자, 교사, 학부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교행정 책임자의 경우에 약간 높다고 반응한 응답이 전체 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응이 각각 45.9%와 3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8> 학부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학교소재	대도시	19(4.7)	124(30.9)	165(41.1)	60(15.0)	21(5.2)	12(3.0)	401(100.0)
	중소도시	26(6.3)	131(31.6)	203(49.0)	36(8.7)	14(3.4)	4(1.0)	414(100.0)
	읍면	5(4.6)	21(19.3)	60(55.0)	20(18.3)	1(0.9)	2(1.8)	109(100.0)
	전체	50(5.4)	276(29.9)	428(46.3)	116(12.6)	36(3.9)	18(1.9)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4(1.9)	55(26.1)	106(50.2)	29(13.7)	13(6.2)	4(1.9)	211(100.0)
	6~10년	3(1.5)	67(34.5)	79(40.7)	33(17.0)	5(2.6)	7(3.6)	194(100.0)
	11~20년	10(4.2)	77(32.2)	116(48.5)	24(10.0)	10(4.2)	2(0.8)	239(100.0)
	21년 이상	33(11.8)	77(27.5)	127(45.4)	30(10.7)	8(2.9)	5(1.8)	280(100.0)
	전체	50(5.4)	276(29.9)	428(46.3)	116(12.6)	36(3.9)	18(1.9)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0(0.0)	20(69.0)	9(31.0)	0(0.0)	0(0.0)	0(0.0)	29(100.0)
	13~30학급 이하	12(4.8)	59(23.7)	139(55.8)	30(12.0)	8(3.2)	1(0.4)	249(100.0)
	31학급 이상	38(5.9)	197(30.5)	280(43.3)	86(13.3)	28(4.3)	17(2.6)	646(100.0)
	전체	50(5.7)	276(29.9)	428(46.3)	116(12.6)	36(3.9)	18(1.9)	924(100.0)

<표 29> 교육청의 학교행정 책임자, 교사, 학부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구분	반응빈도(%)						전체(%)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학교행정책임자	9(3.1)	128(44.1)	117(40.3)	34(11.7)	2(0.7)	0(0.0)	290(100.0)
교사	6(2.1)	115(39.7)	133(45.9)	33(11.4)	3(1.0)	0(0.0)	290(100.0)
학부모	16(5.5)	104(35.9)	107(36.9)	46(15.9)	15(5.2)	2(0.7)	290(100.0)

<표 30>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아동들의 인성교육 향상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인성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응이 전체 5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응이 28.6%, 보통이다 11.4%, 필요하지 않다 1.4%,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청의 장학사들은 초등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아동들의 인성발달에 매우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선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이유는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강사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감독·관리 및 재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점 지원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31>에서와 같이 교육청이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강사풀제도 지원이 전체 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재정지원이 34.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프로그램 보급은 12.1%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0> 아동의 인성발달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성별	남자	59(20.3)	118(40.7)	24(8.3)	2(0.7)	0(0.0)	203(70.0)
	여자	24(8.3)	52(17.9)	9(3.1)	2(0.7)	0(0.0)	87(30.0)
	전체	83(28.6)	170(58.6)	33(11.4)	4(1.4)	0(0.0)	290(100.0)
교직 경력	5년 이하	0(0.0)	0(0.0)	0(0.0)	0(0.0)	0(0.0)	0(0.0)
	6~10년	2(0.7)	2(0.7)	1(0.3)	0(0.0)	0(0.0)	5(1.7)
	11~20년	10(3.4)	22(7.6)	1(0.3)	0(0.0)	0(0.0)	33(11.4)
	21년 이상	71(24.5)	146(50.3)	31(10.7)	4(1.4)	0(0.0)	252(86.9)
	전체	83(28.6)	170(58.6)	33(11.4)	4(1.4)	0(0.0)	290(100.0)
전문직 경력	1년 이하	31(10.7)	42(14.5)	7(2.4)	0(0.0)	0(0.0)	80(27.6)
	2~3년	30(10.3)	73(25.2)	19(6.6)	4(1.4)	0(0.0)	126(43.4)
	4~5년	13(4.5)	29(10.0)	3(1.0)	0(0.0)	0(0.0)	45(15.5)
	5년 이상	9(3.1)	26(9.0)	4(1.4)	0(0.0)	0(0.0)	39(13.4)
	전체	83(28.6)	170(58.6)	33(11.4)	4(1.4)	0(0.0)	290(100.0)

<표 31> 교육청의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지원사항

지원사항	반응빈도	백분율(%)
프로그램 보급	35	12.1
강사풀 제도	128	44.1
재정 지원	100	34.5
기타	27	9.3
전체	290	100.0

라. 예술관련 교과와 효과적 지도방안

초등학교에서 예술관련 교과와 효과적 지도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32>에서와 같이, 전체 382개의 반응빈도 중에서 전담교사제 활용이 5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경험활동이 13.3%, 교사연수 기획의 확대가 7.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개인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기 위한 강좌 개설의 제1원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강좌의 다양화는 질이 보장된 강사 수급이 원활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에서 논고한 강사 확보 및 강사의 질 제고 방안과는 별도로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중국에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관하여 제시하여 보도록 한다.

<표 32> 예술관련 교과와 효과적 지도방안

항 목	빈도	백분율
장기적(지속적)교육	6	1.6
교수-학습자료 개발	31	8.1
전담교사제(전문가 활용)	219	57.2
다양한 경험 활동	51	13.3
사설교육기관과의 연계	11	2.9
시설확보	16	4.2
연수기회의 제공	28	7.3
교과내용의 축소	3	0.8
학급인원의 축소	2	0.5
학부모 활용	1	0.3
눈높이 교육	1	0.3
희망자에 한해 지도	2	0.5
협동학습의 전개	1	0.3
통합지도	2	0.5
교사의 노력	2	0.5
교육정책자 인식의 전환	1	0.3
교육과정과 부합되는 내용 선정	1	0.3
생활과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1	0.3
소양교육	2	0.5
순회강사 활용	1	0.3
계	382	100

첫째,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충수업류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아동의 지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줌으로써,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한다. 예를 들면 종이접기 (강원도 황지초, 인제초, 경기도 송죽초), 레고 닥터, 창의와 탐구 (부천 상도 초), 만들기 방, 글마을, 생각마을(강원도 송화초), 각종 인지력 향상 놀이 및 게임 등의 프로그램은 교과 직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아동의 지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의 학부형에게는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정규 수업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학생들은 수업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야외수업이나 탐방, 전문가 면담, 개인별 관찰 및 실험의 기회, 토론 및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수업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정해진 교육과정과 이에 의한 진도, 그리고 평가의 부담으로 다양한 수업 방법이 실행되는데 한계가 있는 정규 수업과는 다르게, 특기·적성교육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시도되어 이를 통해 아동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가 표현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규수업과는 다르게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하도록 한다. 특기·적성교

육은 학교운영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가능한 여러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특히 학부형의 요구가 큰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주말이나 방과 전의 아침 시간, 또는 점심시간을 짧게 활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구안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강사의 수급여건이 좋지 않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이 곤란한 학교에서는 학교 중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양구군의 임당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자원 봉사자를 강사로 초빙, 1·2학년 전교생에 대하여 민요창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물놀이, 리코더, 축구, 만화 그리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학교 중점 프로그램으로 선정 될 수 있을 것이다. 특기·적성교육은 학생이 평생동안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길러주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할 때, 아동기에 학교가 학년별로 중점적으로 개발하기를 희망하는 특기·적성을 선정한 후, 이를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효한 학습활동으로 파악된다.

마.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현재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에서와 같이, 전체 559명의 응답자 가운데 20.6%가 전문지도자의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육시설 개선이 17.4%, 전담교사 배치가 13.4%, 그리고 교사 전문성 확보가 10.0%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분야 전문강사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환경의 개선 등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강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없이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낮은 수당으로 교육의 일부를 감당하여 주는 외래 강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현직 교사와의 상호관계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 연수의 증진에 따라 교과 전담 계약직 교사, 명예교사, 또는 유관 청소년 단체 및 어린이 문화관 담당 교사 등의 전환 및 승진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구안하는 것은 질 높은 강사를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환경의 개선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이 교사의 집무실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서, 수업후의 교실을 특기·적성교육의 교실로 차용해 주는 경우, 해당 교실의 교사는 실제로 집무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 공간의 확대는 특기·적성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기·적성교육만을 위하여 교실을 건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재정적 여건상 불가능하므로, 정부지원

금을 학교의 시설 확충이나 확대를 위한 전용이 가능하도록 집행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집행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례로 학교 특별실 등의 유휴시설을 시설화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도 좋은 예이다. 제주도 남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유휴교실을 시청각실, 방송실, 피아노교실 등의 시설로 전용하여 특기·적성교육을 운영, 공간적인 시설의 부족을 최대한 극복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1998). 이러한 학교 유휴 시설 전용의 아이디어가 개별 학교에서는 요구된다.

<표 33>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점

항 목	반도	백분율
전문지도자 확보	115	20.6
교육시설개선	97	17.4
전담교사배치	75	13.4
교사전문성 확보	56	10.0
교사연수	23	4.2
교사재교육	3	0.5
학생 수업부담 가중	7	1.2
교재, 교구 확보	17	3.0
다양한 활동과 체험	30	5.5
실기 위주의 교육	13	2.3
예술교과 관심과 저변확대	2	0.3
인식의 부족 및 전환	20	3.6
1인 1기 차원의 전문교육	2	0.3
재능 발표회, 작품 전시회	2	0.3
학생 기초 지식 부족	2	0.3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24	4.4
학습 자료 개발	19	3.4
경제적 부담	2	0.3
교육과정 연계	6	1.1
즐거움의 학습장	1	0.2
소양강조	6	1.1
수업시간 부족	5	0.9
실생활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1	0.2
수준별 학습	4	0.7
경제적 지원	6	1.2
지속적 지도	4	0.7
진학위한 수단	2	0.3
전통문화 도입	1	0.2
정책적 지원	4	0.7
주 교과과 우선 정책 문제	3	0.5
통합교육	1	0.1
학급인원 축소	4	0.7
학생요구 존중	1	0.2
학원위주의 교육	1	0.2
전체	559	100

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34>에 제시하였다. <표 34>에서와 같이, 전문교사 및 전담지도 배치가 3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영역별 강사 배치 19.8%, 관람 및 실제 체험기회 제공 10.8%, 연수기회의 확대 6.2%, 교구 및 학습자료 확보 5.7%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4>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항 목	빈도	백분율
1인 1기 지도	3	0.7
전문교사 및 전담지도 필요	120	30.1
영역별 강사 배치	79	19.8
공간확보	8	2.0
관람 및 실제 체험 기회 제공	43	10.8
관련자료 및 관련인사 교육	2	0.5
정규교과와 연계	6	1.5
교과내용 축소	1	0.2
전문 예술가 채용	9	2.2
교구 및 학습자료 확보	23	5.7
교사의 노력	4	1.0
연수기회의 확대	25	6.2
교육정책 제고	2	0.5
교재 연구	8	2.0
전문지식 습득 후 교육	16	4.0
교사 능력 및 자질	7	1.7
기초지도와 이론 교육 병행	3	0.8
지속적 실기 지도	1	0.2
다양한 행사개회를 통한 관심유도	1	0.2
모든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	3	0.8
시설교육기관과의 연계	2	0.5
생활과 연계	1	0.2
순회강사 활용	1	0.2
예술관련교과 위상 정립	2	0.5
예술작품의 전시나 공연 관람	1	0.2
자원인사 활용	12	3.0
지속적 연습기회 제공	2	0.5
지역단위 중심 운영	3	0.8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	3	0.8
지역인사 초빙	3	0.8
학급인원축소	2	0.5
기능보유 학부모 활용	1	0.2
눈높이 교육	1	0.2
협동학습	1	0.2
희망자에 한해 지도	2	0.5
	401	100

이러한 결과는 앞서 초등학교 예술학교의 개선점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앞으로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관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질적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실태 조사 결과 중 중요한 결과를 재논의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구안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문화예술교육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한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관련 당사자는 정책의 입안자인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관련 담당자 및 단위학교의 운영자로서의 교장과 교사, 그리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형과 학생 등이 있다. 이들 각 당사자들의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재정적 지원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시·도교육청별로 자율화, 개별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 당국자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기·적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사의 업무 과중의 문제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학교장의 행정처리 및 운영 편의를 위한 전폭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업무 과중 등의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특기·적성교육의 수요자인 학부형 및 학생의 경우에도, 교과교육의 보충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선호하는 교과교육 위주의 교육관을 수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술관련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은 교과관련 시설 강습소의 프로그램 등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교육을 보충하여 줄 필요성으로 과외로 수강하게 되는 프로그램도 대체로 교과교육에 치중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호응하여 줄 수 있는 학부형 및 학생의 인식의 변화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부형 및 학생의 인식의 변화는 학벌위주의 사회풍토 개선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풍토에서 교과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를 외면한 정책상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특히 백인백색으로 표현되는 특기와 적성의 영역을 제한하여 어떤 영역은 안 된다는 식의 제한적 설정을 하거나, 특별히 과학영재, 수학영재와 같은 일상적 용어가 증명하듯이 교과특기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육은 안된다는 식의 설정은 타당한 설정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지육위주의 교육으로 황폐화된 현재의 학교교육에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특기·적성교육조차도 수요자 측만의 요구를 고려하여 또다시 지육편중의 프로그램만을 제공한다면 학교는 오로지 학과공부만을 가르치는 입시학원과 다를 바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입시학원과는 다르게 학교라는 사회에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여 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목적에 다가서기 위한 과도기적인 수단으로, 정부는 학교사회에 특기·적성교육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망할 때에는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교과교육 위주의 현재의 우리 학교의 교육적 풍토를 의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와는 어느 정도 상반되지만 보충수업류의 교과교육이 프로그램에서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적인 정책적 통제는 보다 바람직한 교육이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적인 한시성 정책으로 운영되고, 장기적으로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모든 특기·적성교육이 학교의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교과에 취미를 가진 학생은 해당 교과의 심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 없이 제공되며, 반대로 특정교과에서 보충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해당교과의 보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시적으로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보다는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강조하여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주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수요자에 대한 꾸준한 계몽 및 계도가 선행되어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특기·적성교육 운영의 많은 책임을 지는 교사들의 업무 과중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기·적성교육은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나 요구해야 하는가는 딜레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교사들은 특기·적성교육과 재량활동의 가장 큰 난점을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이 자기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라는 조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교사들은 방과후에 다음 시간의 준비 등과 관련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또 외래 강사와는 다른 경제적 보상을 받거나, 대다수는 무보수로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비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이중 근무에 따른 업무 과중, 각종 행정처리와 관련한 업무처리상의 어려움 등등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직에 대한 봉사를 이유로 현재 별다른 대가없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재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재정지원에 따른 각종 업무 처리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 장학사, 문화예술교육전문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이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내용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교육비의 학습자 부담 원칙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일수록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보다 높게 나타난 점에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지원책의 구안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학교의 요구가 가장 큰 항목이되, 이러한 요구가 지역적인 편차가 나타나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시·도교육청별 차별화된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특기·적성교육의 운영에는 외부 강사 관리, 프로그램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정기적인 관리 업무, 그리고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관리문제와 같은 각종 행정사항이 발생한다. 이러한 각종의 제반 업무는 특기·적성교육 담당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상의 지원이나 관리비 부과 인정과 같은 각종의 지원책이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줄이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장 학교에서 보다 내실 있는 특기·적성교육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 및 그의 확충과 함께, 각종 행정 업무 처리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넷째, 특기·적성교육 운영을 위한 제반 교육여건(시설 및 교구, 기자재 등)의 구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의 불만족에 대한 이유를 묻는 실태조사 결과는, 교구 및 기자재, 시설의 미비와 관련한 불만이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본인이 일정한 교육비를 제공하는 특기·적성교육이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좋은 교육여건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나, 실제적인 교육여건은 정규 교육과정의 시설을 차용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의 시설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학교의 시설이나 기자재와 관련된 교육여건은 실제로 정규 교육과정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수업 후의 교실에서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후의 수업 준비가 교실을 특기·적성교육에 대여해 줌으로써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여러 가지 기자재 및 교구도 대다수 대여 및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시설 공유라는 측면에서 파손이나 손실과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

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의 개선은 보다 내실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특기·적성교육의 참여율을 향상시키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측면에서의 개선과 관련된다.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족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능한 다양한 수업방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지만, 특기·적성교육 수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제한점은 개별화된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교사와 학부모의 불만족의 이유와 관련되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불만족 요인으로 불충분한 활동 시간 이 지적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적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확보 및 실제 유사한 활동을 부과하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활동의 중첩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원활한 강사 수급과 관련한 강사문제의 해결은 특기·적성교육의 질 향상 및 프로그램 다원화의 원인이 되어,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강사채용의 어려움은 다양한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건이 되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바대로 다양화되,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진 확보 가 관건이 되며, 이러한 강사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초등학교 예술관련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추진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동일한 내용의 정책 추진보다는, 개별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원화되고 융통성 있는 탄력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 운영의 중심축인 개별 학교는, 개별 학교의 입지 지역, 학급수, 학교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의 다양한 여건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상당히 다른 양상을 가져오게 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입지 지역이 도시이나, 또는 농촌 지역이나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하는 예술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비교적 강사 자원이 풍부하여 강사를 구하는 문제에서 덜 어려움을 겪는다면, 농촌 지역에서는 강사를 구하는 기초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비교적 중상류 지역의 학교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교육받아야 하는 학생이 1명도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의미가 없는 반면에, 영세한 농어촌 지역에 입지한 학교는 정부의 지원금이 없는 경우 사실상 특기·적성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이 단 1명도 있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도시 지역의 초등학교는 재정보다는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 담당자가 더 필요하다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소도시의 학교들은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해 예술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여건에 따라 정부의 서로 다른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먼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추진이나 이에 대한 적용은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통하여 일관되게 적용되기 보다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원화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 학교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수준으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둘째, 정책추진과 정책의 집행 요건이 개별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IV.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이 장에서는 제 III장에서 제시한 실태 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장에서 제시하는 기초방안은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실적 문제점을 준거로 하여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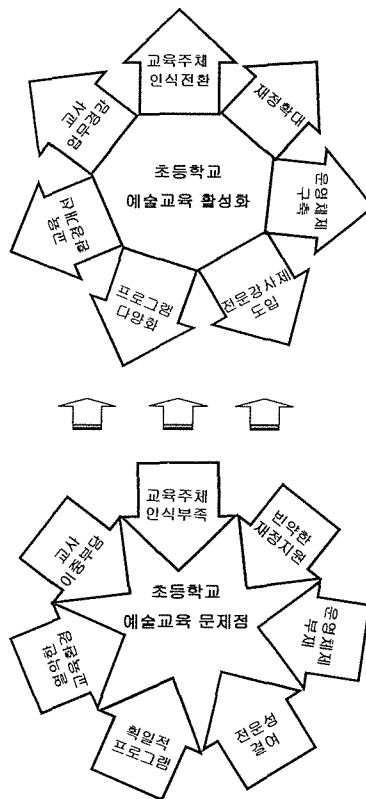


그림 1.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1. 문화예술교육 주체의 인식 전환

현행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측면은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의 차이 및 인식부족에 있다고 보아진다. 여기에서는 교육청, 학교장 및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예술관련 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인식 제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학생의 소질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려는 문화예술교육의 취지를 교육현장에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을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는 기초 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과 만능의 교육관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지원책은 1998년 10월 교육부에 의해서 발표된 ‘대학 무시험 입학 전형’과 같은 매우 파격적인 특단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행정 및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담당자들은 이와 같은 파격적인 교육정책을 과감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대학입시와는 비교적 거리가 먼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컴퓨터와 같은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는 학교교육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대입에서의 성공적 성취를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대학입시를 중요시 여기는 교육적 전통을 일시에 척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에서 교과 이외의 성취에 가중치를 주는 다양한 정책 추진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정책 및 행정 관리 감독 담당자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미시적인 지원이나 관리감독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교육적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 혹은 각 지역 교육청 산하 문화예술교육 담당 부서의 신설과 그에 따른 별도 예산의 확보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학교운영 책임자와 교사의 문화예술교육관련 연수 확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운영의 중심이 되는 학교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참여교사들의 열의 및 의지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된다. 학교장과 교사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를 교장, 교감 및 교사 연수의 필수과목으로 부과하여 초등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둘째, 매년 문화예술교육 우수학교를 선발하여 학교 간접지원의 확충이나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교육포상의 항목으로 문화예술교육 우수학교 사례의 항목을 추가하여 개인 포상을 강화한다.

다.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유도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를 주지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회의 및 학부모교육 시간을 활용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개설하는 학부모대상의 평생교육 활동 시간을 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둘째, 예술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과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에 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 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을 정기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홍보 시 강사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경력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육의 질 및 책임지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

넷째,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가 성의껏 안내활동을 펴고 정기적인 발표기회의 장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성실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성취 및 발달의 증거를 학생과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사의 업무 경감

제Ⅲ장에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재량활동 및 특기·적성교육에서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 담당 부장 교사의 업무과중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은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등 과중한 업무의 고충을 가지고 있다. 교육자의 책임이라는 명분만으로 이러한 업무 과

중의 문제를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화예술교육 담당교사 및 프로그램 담당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사기 진작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교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

초등학교 현장에서 특기·적성교육 담당은 기피 업무 1순위라고 할 정도로 행정처리 및 회계처리 등의 과중한 업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관련한 불만은 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적인 업무 처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정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교사의 업무 경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정 인원으로 문화예술교육 연구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담당 부장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문화예술교육 연구부는 행정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각종 회계 업무 처리 및 시설 관리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기·적성 연구부에 행정직이 지원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행정 및 관리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관리비 징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관리비 징수의 방법은 학교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강좌 당 수강료 총액에서 10%를 제하여 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제주도 교육청, 1998), 또는 강사료 총액에서 3%를 일괄 제하여 징수하는 방안(부천 상도 초등학교, 2000)등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나. 교사의 사기 진작 및 교사간 위화감 감소

문화예술교육관련 담당교사 및 참여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교사의 참여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특기·적성교육 참여교사 및 비참여 교사간의 위화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문화예술교육관련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경우, 외부 강사와 동일한 강사료를 인정하여 주고 이러한 동일 강사료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특기·적성교육 담당 부장 및 관리 교사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이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재정적으로 보조한다.

둘째, 강사로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특기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기타 연수에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참여 교사 및 비참여 교사간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의사결정에 두 집단의 교사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강사 참여 여부 및 강사 참여 가능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반영시키도록 한다.

3. 재정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은 교육의 재정 확보에 의한 여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제III장에서 제시한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장 및 교사는 현행의 특기·적성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재정적 지원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정부의 효율적 재정 지원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에 있다. 특히 학교 규모가 작아 학생의 자기부담에 의한 강사비 책정이 어렵고 또 유능한 강사 확보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된다. 김재춘(2000)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이 현재와 같이 놓여온 학교나, 소년소녀가장 등의 일정한 조건을 가진 학생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아닌 전면적인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열악한 교육의 재정적 기반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방안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현재와 같이 선별적 대상에 대한 지원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재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다변화되어야 한다. 하나의 방안으로서 재정지원의 주체가 지역단위 교육청 수준으로 이관되어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 지원의 방법과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분교와 같은 초미니 학교에서부터 재정지원이 튼튼한 사립학교까지 학교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별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의 주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행정 간소화와 함께 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금은 그 집행요건이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교사는 복잡한 행정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 지원금의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행정적인 간소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정부 지원금의 자율적 집행 보장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현재와 같이 선별된 대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를 유지하되, 이러한 지원금에 대한 집행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이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금은 강사비 보전 이외의 항목에는 전혀 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강사비 보전보다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 조성(예를 들면 시설 및 설비 개선 등)이 시급한 학교에서는 지원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적용대상이 정부에서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금이 실제 필요한 아동인데 서류상의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의 자율적 집행요건을 허용하는 것은 재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할 재정적 지원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의 자율적 집행요건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단계가 필요하다.

4. 교육환경 개선

제Ⅲ장에서 제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에 대한 학교장 및 교사의 응답은, 재정적 지원 과 함께 시설 등의 교육 여건의 개선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교실이 교사의 집무실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서 수업 후 교실을 특기·적성교육의 교실로 차용해 주는 경우, 해당 교실의 교사는 실제로 집무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교실공간의 확대는 분야별 문화예술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예술교육만을 위하여 교실을 건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재정적 여건상 불가능하므로 정부지원금을 학교의 시설 확충이나 확대를 위한 전용이 가능하도록 집행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집행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함을 강조하면서, 여기에서는 현재 개별 학교에서 강구할 수 있는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련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교육시설의 개선

첫째, 학교 특별실 등의 유휴시설을 시설화하여 최대한 활용한다. 일례로 제주도 남초등학교는

학교의 유허교실을 시청각실, 방송실, 피아노교실 등의 시설로 전용하여 특기·적성교육을 운영, 공간적인 시설의 부족을 최대한 극복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1998). 이러한 학교 유허 시설 전용의 아이디어가 개별 학교에서는 요구된다.

둘째, 폐교 등의 인근 유허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폐교의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해당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교육청 공동의 문화예술교육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강원도 춘천 교육청의 경우 폐교된 학교시설을 ‘어린이 문화관’으로 개조하여 인근의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강원도교육청, 1999).

셋째, 인근의 다양한 교육시설(예: 구민회관 등)을 활용함으로써, 교실 밖 수업을 유도하면서 시설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인근 시설의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개인하고 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계약 체결조항을 단체 및 시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하기 및 동절기에는 수강료 산정 시 관리비를 일정액 부과하여, 냉방 및 난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특히 방학중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경우 이러한 냉난방 및 방학중의 시설 관리인을 위한 관리비를 일정액 부과하여 수강료를 산정하도록 한다.

나. 교구및 기자재 확보

첫째, 교구를 제작하며 활동하는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한다. 초등학교는 통합교육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작활동을 겸한 수업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활동을 통하여 교구를 제작하며 수업을 하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의 시설에서 교구 및 기자재를 대여받을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인근 학교간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경우, 공동으로 기자재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기자재를 구입한 후 서로 다른 시기에 기자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법 등이다.

넷째, 인근시설과 위탁교육 계약을 할 경우, 위탁교육계약 후 시설을 양도받을 수 있는 계약조건을 가진 업체와 계약하여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도록 한다. 단, 기자재의 확보 및 관리는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인력(교사)을 통하여 관리하고 확보하도록 한다.

다섯째, 관련 교구업체와의 협조체제를 통하여 무상대여, 면세구입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기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기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제III장에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며,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관련 활동에 학생 참여율을 신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에 관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개개인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기 위한 강좌 개설의 제1원칙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각 분야별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질이 보장된 우수한 강사 수급이 원활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수한 강사 확보 및 강사의 질 제고 방안과는 별도로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의 지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향유자로서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한다. 예를 들면 종이접기(강원도 황지초, 인제초, 경기도 송죽초), 레고 닥터, 창의와 탐구(부친 상도 초), 만들기 방, 글마을, 생각마을(강원도 송화초), 각종 인지력 향상 놀이 및 게임 등의 프로그램은 교과 직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아동의 지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과 보충수업류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억제하거나 외면하려는 발상에서 전환, 학부형이 관심을 가지는 지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관심과 신뢰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규 수업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규수업이외의 시간 간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학생들은 수업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야외수업이나 탐방, 전문가 면담, 개인별 관찰 및 실험의

기회, 토론 및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수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정해진 교육과정과 이에 의한 진도, 그리고 평가의 부담으로 다양한 수업 방법이 실험되는데 한계가 있는 정규 수업과는 달리,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아동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가 표현될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수업의 내용상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수준별 수업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준별 반편성을 통하여 능력별, 개인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학급을 편성한다. 무용 등의 학습활동이 수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능력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반편성을 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학습내용에 따른 단계별 학습목표를 사전에 작성하고 이러한 학습단계별 수준 점검을 통하여 반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넷째, 정규수업과는 다르게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하도록 한다. 현행 특기·적성교육은 학교운영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가능한 여러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특히 학부모의 요구가 큰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주말이나 방과 전의 아침 시간을 짧게 활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구안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다섯째, 강사의 수급여건이 좋지 않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이 곤란한 학교에서는 학교 중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양구군의 임당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자원 봉사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1·2학년 전교생에 대하여 민요창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물놀이, 리코더, 축구, 만화 그리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학교 중점 프로그램으로 선정 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학생이 평생 동안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적 향유능력을 길러주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기에 학교가 학년별로 중점적으로 계발하기를 희망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 이를 중점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예술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학습활동으로 파악된다.

여섯째,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사 공유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 경남 창녕 부곡초등학교의 경우, 인근의 분교 및 타학교와 연계하여 교사를 관리교사로 하여 수영교실을 운영하여 학습효과를 거두고 있다(교육부,1999). 이러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별 관리교사를 두고 관리교사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의 이동보다는 교사의 순환이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시설의 이용으로 학생의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나.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의 내실화

현행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영역 및 재량활동 시간과 그 목표 및 학습내용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방안을 도모하여 이를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첫째, 특별활동의 상설 동아리 반과 연계 지도한다. 상설 동아리 반과의 연계 지도는 학생의 연계 및 지도교사의 연계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 예술관련 교육을 신청할 때, 가급적 같은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특활교육에서의 성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이다. 교사의 연계 지도방안은 특활반 지도교사와 특기·적성교육 지도 강사를 가능한 일체화하여 학생 지도상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 강사가 외래 강사일 경우에는 특활반의 지도교사를 관리교사로 운영하여 특활반의 지도와 특기·적성교육 시간의 지도가 중첩되지 않고 상호간에 수준별, 또는 연계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둘째, 특별활동 영역의 행사활동과 연계 기획하여,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발표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기·적성교육의 경우, 학습활동과 관련한 발표의 장을 행사활동으로 기획·활용하여, 학생들의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량활동 시간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재량활동 시간의 운영을 교과재량보다는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는데(교육부, 1997b), 부족한 재량활동 시간에서의 학습활동을 보충하는 기회로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킨다. 정규 교육시간에서의 대부분의 활동은 학습진도 때문에 교사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로 학생의 주도적인 자기학습활동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교육 시간의 참여를 권장하고 예술관련 교육시간은 학생 주도적인 활동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예술분야 전문 강사의 효율적 운영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강사 운영의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사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가. 전담강사제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의 원활한 강사 수급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강사 풀제도 활용 외에 강사 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명예교사제를 활용하여 학부모 인력망을 구성한다. 학부형의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활동한다는 자부심과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는 책임감 때문에 유능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격을 가진 학부모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학부모 명예교사로 위촉 후, 강사로 활용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졸업생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동문 주소록을 작성하여 강사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선정한 후 이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인근 대학에 학교장이 협조를 구하여, 졸업생이나 대학원생들을 강사진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특히 졸업 후 교직에 종사하게 될 교대 및 사대생과 전공과 부합되는 대학생들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인근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자격 있는 군부대 자원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군부대의 주둔지가 많은 강원도 지역의 경우, 군부대 자원인사를 활용하여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도학초등학교의 경우, 군장병중 외국 유학을 마친 사병 2인을 추천 받아, 학교교사들이 심사후 1인을, 선정하여 무료교육을 실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강원도교육청, 1999).

다섯째,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예술가들을 강사로 위촉함으로써 학교 중점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부천 상도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만화 영상 페스티벌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영상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퇴직교원의 활용, 인근 지역에 있는 중학교와의 강사 연계 계약을 통해 강사진을 확대할 수 있다.

나. 강사의 교육자적인 자질 강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 강사의 교육자적인 자질은 교육의 질과 수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사는 매우 강력한 준거인이 되어 아동의 인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자적인 자질을 갖춘 강사 위촉은 매우 중요하다. 외부강사의 교육자적인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사 위촉시 철저하게 서류심사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관리교사들의 면접 과정을 거쳐 교육자적인 자질을 심사한 후 위촉하도록 한다.

둘째, 강사 위촉 후에는 관리교사를 두어,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며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수업계획서 및 수업지도안을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또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강사의 출근부로 활용한다.

셋째, 학부모 공개 수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수업 종료 후 강의 평가를 실시하여 강사위촉에 참고하도록 한다.

넷째, 위촉 후 6개월에 1회씩 학교 연구부가 자율적으로 주관하는 교육학 일반 연수 를 받도록 하여 전문 지식 이외에 교육자적인 자질 함양의 기회를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다. 교·강사간 위화감 해소 및 외부강사의 전문성 강조

교·강사간에 발생하는 위화감을 줄이고 임시 계약으로 근무하는 외부강사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강사간의 정기적인 교류시간을 통해 상호 이해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며, 특히 아동에 대한 지도 의견을 담임교사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한다.

둘째, 강사의 소속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촉장을 수여하고, 강사실을 설치하여 사전 수업 준비 및 학교예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셋째, 학교 정규 수업 및 행사에 강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교사로서의 소속감을 강조하도록 한다.

넷째, 일정기간 강사를 한 경우에는 명예교사나 교과전담 교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근무 의욕을 고취시킨다.

7. 운영 평가 및 피드백 체제 구축

초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의 운영체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질을 확보하고 운영체제의 개선에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 개별학교에서는 이러한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해당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운영체제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1달에 1번 정도 일정한 형식을 갖춘 통지서를 가정으로 발송하여 아동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성취도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초등학교는 현재 통합교과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체험중심의 교과 및 학습이 권장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아직도 교과 지식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성장 경험과 배경 및 특기와 적성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교과 지식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서열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교사가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육의 특성과 교과별 과다한 교육량, 체험과 활동 중심의 교과 수업에 대한 부담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과정 운영이 주지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삶을 위한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상태이다. 특히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문화예술교육은 교사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부족, 관련교과의 수업시수 부족, 교사의 전문성 결여, 시설 및 기자재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강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교육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2) 21세기형 인간을 길러내는데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3)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요청된다. (4)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교육비의 경감에 기여할 것이다. (5) 진로 발달적 요구와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초등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이 기대했던 것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 초등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내고, 문화예술교육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초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정규과정을 포함한 재량활동,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교육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2)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탐색하여 선진화된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방안을 마련한다. 각 장별로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은 본 연구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인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도출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방안 마련이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관계자 협의회 등을 활용하였다.

제 II 장 초등학교 문화예술분야 교육정책 조사에서는 (1)국내외 문화예술분야 교육과정, (2)국내외 특기·적성교육의 현황을 설명하였다. 외국의 예술관련 교육과정 및 특기적성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의 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현황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예술관련 교육과정 및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관련성을 음미해보고 미래의 안목을 넓히도록 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조사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사방법, 조사결과 및 해석, 시사점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총 10,570개교)에서 학교급별 학교수의 비율 및 16개 시·도교육청별 학교수 비율, 도시 및 농촌지역, 학급수에 따른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한 대규모의 비례유층표집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인 표집은 총 학교수의 약 5%에 이르는 550개교를 표집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실시 기간은 2004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가 이루어졌으며, 4,316개의 사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67%).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학교 배경변인, 조사대상 인적사항, 운영 현황, 참여자 평가 및 기대, 교사 및 장학사가 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에는 여러 개의 하위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3)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재정지원에 따른 효율적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4)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 교육여건(시설 및 교구, 기자재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5)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6) 원활한 강사 수급과 관련한 전문강사 문제의 해결은 문화예술교육의 질 향상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 (7) 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추진은 획일적 정책 추진보다는, 개별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탄력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제 V 장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현장에서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별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1)문화예술교육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제고, (2)담임교사

의 업무 경감, (3)재정 지원의 확대, (4)교육환경 개선, (6)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7) 예술분야별 전담교사 양성 등이다.

마지막 제 VI장에서는 요약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언부분에서는 앞서 언급한 실행방안과 연관지어 14가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제III장에서 제시한 조사대상의 학교, 교육청, 관련단체용 설문지와 통계결과를 수록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제언

본 절에서는 앞부분의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분야별로 제시될 것이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제고이다. (2) 담당 교사의 업무감축이다. (3) 재정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4) 시설 및 설비 등의 교육여건 조성이다. (5)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이다. (6) 예술분야별 유능한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의 전환

첫째, 다양한 방식으로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도 강화한다. 본 연구진의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는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배경 및 의미와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예술관련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고입과 대입 준비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더불어 입시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교장, 교감, 장학사, 담당교사, 담임교사의 상호협조가 있어야만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생활지도도 가능하다. 특히 교장, 교감, 장학사 등 관리자층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연수할 때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당국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원하에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이 예체능의 특기신장, 특별활동의 연장, 일반 교과목의 특기신장 등 복합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추

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운영계획, 예산, 강좌 개설, 강사 임용)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지만 감시나 감독보다는 문화예술교육을 도와주는 후원자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현장연구대회 등을 문화예술교육 활동 영역도 포함시켜 확대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연구 제도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속하는 특별활동 분야에서 교사가 입상할 경우 승진 가산점이 인정되지만 비정규 교육과정에 속하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그러한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다. 따라서 특기·적성교육 활동도 입상 기회를 주고 입상할 경우 특별활동 영역과 같이 승진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학습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 사회에는 평생교육 체제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와의 연대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형식적인 학교교육을 마친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지역사회와 가까운 장소에서 원하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지역사회에 위치한 학교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이해와 호응과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학교의 공헌을 이해하고 학교가 사회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 교사의 업무 경감

첫째, 담임교사 이외에 교장, 교감, 학년부장, 담임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특활부장 또는 담당교사가 문화예술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시설 미흡 및 교사의 전문성 부족,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예술관련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는 업무량을 경감시켜 주거나 아니면 전담교사를 더 많이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재정 지원의 확대

첫째, 모든 초등학교에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문화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교육청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례로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전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고지원금은 학년초 1회 배정과 교재, 교구 구입을 허용하고 세부운영지침은 시·도에 위임하는 것이 국고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단위 학교에 대한 지원은 강사보전비 뿐 아니라 자료비, 소모품비, 관리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원금의 용도에서 강사보전비 정도만 되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일부 소모품비, 자료비 등은 지원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회계관리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원금의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량권이 부여되면 일반적으로 교재 교구, 소모품비 등으로 특활반 등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바 이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 교육환경 개선

첫째, 각 예술분야별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비를 마련하는 등 열린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열린 환경에서는 학습자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존 시설의 최대한 활용 뿐 아니라 필요한 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신설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교육 당국이나 학교가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배정하여 실질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좌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교구 부족은 물론 전기, 수도료 등 학교관리비 부담 가중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추구

첫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조직한다. 일례로 특기·적성교육 강좌의 개설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여 개설하되, 학교의

시설, 강좌의 특수성,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직, 편성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특기·적성을 계발하는 것과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개별화 학습활동이 되도록 한다. 개별화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학습능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도와주고 뛰어난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이 자기주도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지적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개성과 창의력을 지닌 학습자를 길러 내는 것이라고 할 때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예술관련 교육에서도 개별화 교육을 충실히 적용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이 최대한으로 계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준별 강좌를 편성하고 조직한다.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을 학업성취 등의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 집단의 수준에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처치해주는 수업을 의미한다.

넷째, 수업전 또는 방과후 학교시설 활용을 극대화한다. 특기·적성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막대한 학교 시설과 공간이 방과후 또는 방학이 되면 별로 활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바. 예술분야 전문강사의 효율적 운영

첫째, 각 예술분야별 유능한 강사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인력 풀 제도를 활용한다. 학생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강사 문제는 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강사풀을 이용하는 등의 좀더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강사의 질을 높이도록 부단히 노력한다. 특기·적성교육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강사들을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의미, 목적, 운영 방법, 효과 등에 대한 연수와 회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뿐 아니라 강사를 채용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계획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들도 각 예술분야별로 다양한 특기·적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의 연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재학생 등의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은 외부 강사를 활용하거나 현직 교사가 연수를 통하여 특기·적성을 갖도록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초등교원 양성에서부터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본인의 특기·적성 계발이나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신복(2002). 국민체육에 있어서 기초교육의 제 문제. 제21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학술발표집.
- 강신복, 최의창(1994). 체육수업탐구. 서울: 태근문화사.
- 강신임(1999). 정보화 사회의 문화현상과 교육과정의 과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원도교육청(1999). 특기·적성교육 우수 사례집 - 희망이 넘치는 학교. 장학자료.
- 곽병선 외(1998). 교과 교육 원리. 서울: 갑을출판사.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령 보고서.
- 교육부(1997a).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7b). 미술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7c).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8a).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8b).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음악.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00a). 2000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 현황.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00b).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00c). 제7차 교육과정의 개요.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00d). 특기·적성교육활동 점검 계획.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01). 초등학교 특별활동 교사용 지도서.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2). 미술 3, 4, 5, 6.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3). 초등학교 체육과교사용지도서(5학년).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구자익 외(1997). 제7차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권덕원(2002).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바람직한 적용과 개선. 교과교육 공동세미나, 한국교원대학교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김광익 외(1998).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기석 외(199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구 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홍(2000).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및 체육수업 실태 분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길홍(1988). 학교 체육교육의 방향. 교육전남, 72.
- 김동규(1996). 인간교육 실현을 위한 체육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35 (1).
- 김성재(1995). 학교체육의 제 문제와 효율적 해소방안. 학교보건·체육연구소지, 2 (1).

- 김수동(2000).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수천(1999). 교육과정과 교과.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구(1999). 인간중심 체육교육의 목표와 실행과제: 중등학교 체육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체육연구논집.
- 김영철, 박덕규, 박재윤, 박영숙, 김혜숙, 김홍주, 이명준(1996). 한국교육 비전 2020 - 세기의 대전환.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 정찬영, 한유경, 김홍주, 윤종혁, 김재춘(1997). 한국교육 비전 2020(II)- 한국 교육의 발전가능성과 미래 모습.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학(1998).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식, 박영무, 최호성(1994). 교육과정 비평. 서울: 교육과학사.
- 김재복 외 2인(1999).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혁신안 적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정책연구, 제99집.
- 김재복 외 3인(1996).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 김재복(2000).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발전 방향.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및 우수 사례 발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재춘 외 3인(2000).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김재춘(2000). 초등학교에서의 효율적인 특기·적성교육 실행방안 토론.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및 우수 사례 발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재춘(2000. 6). 특기·적성교육 강화방안. KICE 교육광장, 3(2).
- 김중훈(2001).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지역화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신영길(2001). 체육수업에 형성된 침묵문화: 교사 이야기. 한국체육학회지, 40(3),
- 김현정(2002). 제7차 음악교육과정의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2005). 음악수업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조언. 용역원고.
- 김희현(2005). 체육수업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조언. 용역원고.
- 류정현(1998). 한국과 일본의 체육교육과정 비교연구: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태호(2002).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교과교육공동 학술세미나, 한국교원대학교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문호준, 이기천 (2002). 체육수업개선을 위한 협동학습 가능성 탐색. 전국체전 기념세미나 한국체육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 박대권·최종호·박순이(1999).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체육수업 사례연구. 서울국제스포츠과학학술대회 Proceedings I, 한국체육학회.
- 박동희(2001). 학교체육의 정상화대책 마련 절실. *체육*, 2001(7-9), 56-61.
- 박명기(1999). 학교 체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스포츠과학*(68).
- 박상일(1999).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학(1997).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2002). 초등학교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소영, 양윤정, 조윤숙(1997).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 박순경(1999).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비교 연구(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순경 외(2001).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비교 연구(III): 국가 수준 교육과정.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순경 외(2002).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II):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순이, 이삼선(2002). 제7차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과교육공동 학술 세미나. 한국교원대학교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박연미(2000). 수요자 중심의 특기·적성교육 활동 운영사례.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및 우수 사례 발표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해진(2005). 미술수업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조언. *용역원고*.
- 백순근(1999). 특기·적성교육의 평가방안. *진로교육연구*, 제10호,
- 백종수(2001). 지식기반사회에서 체육교육의 새로운 방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종억(2000).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16(1).
- 부산특기적성교육 연구회(1999). 부산시내 인문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 서광훈(2002). 지방교육자치제 관점에서 본 제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과내용 분석.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수원(2000). 지역여건에 알맞는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학교경영*, 1월호.
- 서울시교육청(1999). 특기·적성교육 운영지침. 서울: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1999). 특별활동 지도 이렇게 합시다. 서울: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2001). 서울교육새물결운동. 서울: 서울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1999). 1999년 초·중 특기·적성교육 우수 사례집 :신나는 학교, 즐거운 오후. 서울:

서울시교육청.

서지영(2002). 초등학교 체육과 교수-학습 방법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경희 외(2003).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경희, 권덕원(1992).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초·중·고등학교 음악과. 서울: 한국교육과정
개발원.

소경희 외 2인(2000).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비교 연구(I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송경현 외(2001). 특기·적성교육활동 이렇게 운영해 보세요. 서울: 홍문기획.

신세호(1988). 체육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체육, 1988 (11).

안양옥(1998). 게임수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대안적 접근. 한국스포츠교육학회, 5(1).

안양옥(200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체육과 교육의 발전 과제. 초등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안용규(1994). 중등학교 체육과 목표비교를 통한 체육교육의 발전방향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양우중(2000). 초등체육 교과내용으로서의 주관적 운동체험의 의미.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양운정, 박소영(2002). 미술과 교육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양종모, 이경언(2001). 음악과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양종모 외(2002).

오은주(2002). 제7차 미술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과교육공동 학술세미나, 한국교
원대학교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오필도(2000). 특기·적성교육의 내실화 방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교육.

왕석순(2000). 초등학교에서의 효율적인 특기·적성교육 실행 방안.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탐
색 및 우수 사례 발표 세미나 자료집.

원미연(2005). 체육수업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조언. 용역원고.

유승희, 김상국, 유진 외(2001). 학교체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체육과학연구원.

유재봉(2000). 21세기 사회를 위한 학교 교육: 허스트의 최근 교육관을 중심으로. 교육철학회 연차
학술대회자료집.

유정애, 오수학(2000). 체육교과명의 현재와 미래. 교육과정평가연구, 3(1), 163-171.

이경언(2002).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관용(2000). 전남 장성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실천사례. 특기·적성교육활성화 방안 탐색 및 우
수 사례 발표 세미나 자료집.

이광호 외 3인(1999).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대형(1996). 자주적인 체육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교육학회지.
- 이명아(1998). 초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 국제 비교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범제(1998). 21세기를 향한 체육의 발전 방향.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
- 이용숙(2000). 중등학교에서의 효율적인 특기·적성교육 실행 방안에 대한 토론회고.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및 우수 사례 발표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용숙, 조영태, 황규호(1994). 교육과정 개혁 국제비교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제욱(2001). 제7차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의 정착 방안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춘계세미나 자료.
- 이종재 외(1998).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육연구소.
- 이종태 외(2000).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연(2002). 제7차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과교육공동 학술세미나, 한국교원대학교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이진우(2001). 문명사적 변화와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I - 문명사적 변화와 학교교육의 전개 방향.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이태재 외(2001). 학교 특별활동 직무연수교재. 한국특별활동연구회.
- 임영무(2000). 한국 개화기 학교체육의 성격. 한국체육학회지, 39(1), 64-77.
- 임영신(2005). 음악수업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조언.
- 임은정(2005). 음악수업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조언.
- 임현주(2002). 체육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재검토. 체육과 목표 및 내용 체계의 새로운 방향 설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특별세미나 토론회고.
- 장성수(1999). 스포츠에 내재된 절대적 가치에 기초한 체육교육으로의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38(1), 61-74.
- 장용규, 김홍식(1998). 기능중심 스포츠교육의 한계와 대안 모색. 서울대 체육연구소 논집, 19(1).
- 정순례(2001). 수업에서의 목표의 역할.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철(1999).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일동(1999).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진로교육연구, 제10호.
- 정홍만(1999).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활성화 방안. 학교경영, 99년 8월호.
- 조미혜(2002). 체육교육과정 국제비교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9(1), 45-62.
- 조종렬(2000).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 운영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옥수(1999). 학교체육의 활성화 방안. 스포츠과학, 69. 8-12.
- 최의창(1995). 두 가지 내용과 두 가지 방법.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논집, 16(1), 105-116.
- 최의창(2002). 중등학교 체육수업 개선을 위한 통합적 교과조직 및 지도방법 개발. 한국스포츠교육

학회지, 9(1), 1-23.

함수근(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재량활동 실천 사례 개발. 서울: 교육부.

함수근 외(2001).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방안. 서울: 서울특별활동연구회.

허경철 외(1998).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정책연구, 제97집.

홍순식(2000).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우수 사례 토론.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및 우수 사례 발표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인수(1999). 무관심 속에 무너져 가는 학교체육, 어디로 가고 있나. 스포츠과학(69).

홍후조(1999).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Ⅰ): 전면 개정형에서 점진 개선형으로. 교육과정연구, 17(2).

황규호 외(1997).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교육. 서울: 문음사.

황연주(2000). Vermittlung von 'Visual Literacy' durch Computeranimation im Kunstunterricht, Diss, Fu-Berlin.

AAHPERD(1998). Update. AAHPERD News letter, July/August.

Barkan, M. (1966). Curriculum problems in art education. In E. L. Mattil(Ed.), A seminar in art education for research and curriculum development. University Park: Penn sylvania State University.

Gabbard, C.(2000). Physical education: Should it be in the core. Principle, 79(3), 29-31.

Garn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Lumpkin, A.(1998).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Boston, MA: WCB/McGraw - Hill.

Mayerhofer/Zacharias(1976). Ästhetische Erziehung, Lernorte für aktive Wahrnehmung u. soziale Krativität, Reinbeck bei Hamburg.

Ministry of Education (1995). Physical Education.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Placek, J. H.(1992). Rethinking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n Integrated, Thematic Approach. Quest, 44 (3).

QCA(2000).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2000 What has changed?

Robert M., Steven G. E.(1997). A history and philosophy of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From ancient civilizations to the modern world. McGraw-Hill Higher Education.

Scanting, E., Strand, B., Lackey, D., & McAleese, W.(1995). Analysis of physical education avoidance. Physical Educator, 52.

Siedentop, D.(1991). Developing teaching skill in physical education (3rd ed.). Mountain View, CA: Mayfield.

【부록 1】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학교용)

안녕하십니까?

본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는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의 주관 아래 한국예술교육학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내용 및 수업 실태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예술교육학회는 예술교육의 이론적 체계와 개념들을 정립하고 학교예술교육, 생활예술교육 및 전문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 예술분야별 교수, 교사,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순수 학술단체입니다.

본 설문지는 문화관광부의 주관 아래 작성된 것이며, 선생님의 의견은 통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예술교육정책 입안을 위한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4. 11.

한 국 예 술 교 육 학 회

☞ 설문지를 받으시면 바로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한 설문지는 교장선생님께 제출하여 함께 수합합니다.

☞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교육학회

회장 : 양 정 수

[우편번호 : 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수원대학교 체육대학 222호

전화 : (031)220-2297 팩스 : (031)220-2628 E-mail : artsedu@hanmail.net

※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하거나 해당 번호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1. 해당지역 :

-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인천광역시 | ④ 대구광역시 |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⑦ 울산광역시 | ⑧ 강원도 |
| ⑨ 경기도 | ⑩ 경상남도 | ⑪ 경상북도 | ⑫ 전라남도 |
| ⑬ 전라북도 | ⑭ 제주도 | ⑮ 충청남도 | ⑯ 충청북도 |

2. 학교소재 :

_____ ① 대도시 _____ ② 중소도시 _____ ③ 읍·면

3. 성별 :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4. 나이 : 만 _____ 세 (2004년 11월 기준으로)

5. 교직경력 :

_____ ① 5년 이하 _____ ② 6~10년 _____ ③ 11~20년 _____ ④ 21년 이상

6. 학교 규모 :

_____ ① 12학급 이하 _____ ② 13~30학급 이하 _____ ③ 31학급 이상

7. 학급당 학생수 :

_____ ① 10명 이하 _____ ② 11명~20명 이하 _____ ③ 21명~30명 이하
_____ ④ 31명~40명 이하 _____ ⑤ 41명 이상

8. 담당 학년 :

_____ ① 1학년 _____ ② 2학년 _____ ③ 3학년 _____ ④ 4학년 _____ ⑤ 5학년
_____ ⑥ 6학년 _____ ⑦ 전담교사(교과명 : _____)

※ 다음은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난 후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하거나 해당 번호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_____ ① 시행하고 있다. _____ ② 시행하고 있지 않다.
 만약 시행하고 있다면, 각 예술분야별로 전체 학생 중의 몇 퍼센트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음악 _____% ② 미술 _____% ③ 무용 _____%
 ④ 연극·영화 _____%

2.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얼마나 자주 실시하고 계십니까?
 _____ ① 매일 _____ ② 주당 3~4회 _____ ③ 주당 1~2회 _____ ④ 주당 1회 미만

3.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몇 시간 실시하고 계십니까?
 _____ ① 주당 6시간 이상 _____ ② 주당 4~5시간 _____ ③ 주당 3~4시간
 _____ ④ 주당 2~3시간 _____ ⑤ 주당 1~2시간

4.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시간에 예술관련 수업(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을 어느 장소에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_____ ① 예술관련 수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특별실
 _____ ② 학교 내 일반 공간(시설을 잘 갖추지 않은 곳)
 _____ ③ 체육관 혹은 시청각실
 _____ ④ 교실
 _____ ⑤ 기타

5.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예술관련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수업을 누가 가르치십니까?
 _____ ① 담임교사 _____ ② 교과전담교사 _____ ③ 특기적성 강사
 _____ ④ 자원봉사자 _____ ⑤ 전문예술가

6.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책임자(교장 혹은 교감), 동료 교사들이 외부강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_____ ① 평가하고 있다. _____ ② 평가하고 있지 않다.

만약 평가하고 있다면, 특기·적성교사들의 수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__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__ ② 조금 만족한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만족하지 않다. _____ ⑤ 전혀 만족하지 않다.

7. 선생님께서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중 예술교육과 관련된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__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__ ② 조금 만족한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만족하지 않다. _____ ⑤ 전혀 만족하지 않다.

8. 선생님께서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중 예술교육과 관련된 수업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__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__ ② 조금 만족한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만족하지 않다. _____ ⑤ 전혀 만족하지 않다.

9. 선생님께서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중 예술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의 재능이 개발 되었다고 보십니까?

_____ ① 많이 개발되었다. _____ ② 조금 개발되었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개발되지 않았다. _____ ⑤ 잘 모르겠다.

※ 다음은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량활동과 교과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 을 주의 깊게 읽고난 후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하거나 해당 번호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10.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교육목표 속에 예술교육과 관련된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_____ ① 포함되어 있다. _____ ② 포함되어 있지 않다. _____ ③ 잘 모르겠다.

11.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재량활동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_____ ① 예술관련 활동 _____ ② 정보화 관련 활동 _____ ③ 교과와 관련된 활동

_____ ④ 기타

만약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면, 각 예술분야별로 전체 학생 중 몇 퍼센트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음악 _____% ② 미술 _____% ③ 무용 _____%

④ 연극 · 영화 _____ %

12.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량활동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써 주십시오.

13. 선생님께서는 무용, 연극 · 영화와 관련된 교과단원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 _____ ① 설명식 교수법으로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친다.
_____ ② 사전 교재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친다.
_____ ③ 전담교사나 강사의 도움을 받아 가르친다.
_____ ④ 자원 인사 및 전공자를 초빙하여 가르친다.
_____ ⑤ 기타 (_____)

14. 선생님께서는 예술관련 교과지도에서 아동들의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10~30% _____ ② 30~50% _____ ③ 60~90% _____ ④ 90% 이상

15. 선생님께서는 아동들의 다양한 경험과 인성의 발달을 위하여 예술관련 전문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필요하다. _____ ② 조금 필요하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필요하지 않다. _____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_____ ⑥ 잘 모르겠다.

16.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술관련 교과의 효과적 지도 방안에 대하여 써 주십시오.

17. 선생님께서는 학교 행정책임자(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들의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① 학교 행정책임자	1	2	3	4	5	6
② 동료교사	1	2	3	4	5	6
③ 학부모	1	2	3	4	5	6

18. 선생님께서는 현재 초등학교 예술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행사)을 하고 계십니까? 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써 주십시오.

20.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써 주십시오. (예: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교육청용)

안녕하십니까?

본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는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의 주관 아래 한국예술교육학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내용 및 수업 실태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예술교육학회는 예술교육의 이론적 체계와 개념들을 정립하고 학교예술교육, 생활예술교육 및 전문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 예술분야별 교수, 교사,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순수 학술단체입니다.

본 설문지는 문화관광부의 주관 아래 작성된 것이며, 선생님의 의견은 통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예술교육정책 입안을 위한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4. 11.

한 국 예 술 교 육 학 회

☞ 설문지를 받으시면 바로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한 설문지는 과장님께 제출하여 함께 수합합니다.

☞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교육학회

회장 : 양 정 수

[우편번호 : 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수원대학교 체육대학 222호

전화 : (031)220-2297 팩스 : (031)220-2628 E-mail : artsedu@hanmail.net

※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하거나 해당 번호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1. 해당지역 :

-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인천광역시 | ④ 대구광역시 |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⑦ 울산광역시 | ⑧ 강원도 |
| ⑨ 경기도 | ⑩ 경상남도 | ⑪ 경상북도 | ⑫ 전라남도 |
| ⑬ 전라북도 | ⑭ 제주도 | ⑮ 충청남도 | ⑯ 충청북도 |

2. 성별 :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3. 나이 : 만 _____ 세 (2004년 11월 기준으로)

4. 교직경력 :

_____ ① 5년 이하 _____ ② 6년~10년 _____ ③ 11년~ 20년 _____ ④ 21년 이상

5. 전문직 경력 :

_____ ① 1년 이하 _____ ② 2년~3년 _____ ③ 4년~5년 _____ ④ 5년 이상

※ 다음은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교육과 관련된 교과수업(즐거운 생활, 음악, 미술), 계량활동, 특별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난 후 해당하는 번호에 "V"로 표시하거나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현재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예술관련 특기·적성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__ ② 조금 만족한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만족하지 않다. _____ ⑤ 전혀 만족하지 않다.

2.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예술교육이 아동들의 인성교육 향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선생님께서는 효율적인 예술교육을 위해 무용과 연극·영화가 교과로서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그렇다. _____ ② 조금 그렇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그렇지 않다. __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_____ ① 프로그램 보급 _____ ② 강사풀 제도 _____ ③ 재정 지원
_____ ④ 기타 (_____)

5.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얼마나 자주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계십니까?

- _____ ① 학기당 1~2회 _____ ② 학기당 3~4회 _____ ③ 년 1회
_____ ④ 하지 않는다. _____ ⑤ 기타 (_____)

6. 선생님께서는 학교 행정책임자(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들의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① 학교 행정책임자	1	2	3	4	5	6
② 교사	1	2	3	4	5	6
③ 학부모	1	2	3	4	5	6

7. 선생님께서는 현재 초등학교 예술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행사)을 하고 계십니까? 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써 주십시오.

9.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써 주십시오. (예 :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관련학회용)

안녕하십니까?

본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는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의 주관 아래 한국예술교육학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내용 및 수업 실태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예술교육학회는 예술교육의 이론적 체계와 개념틀을 정립하고 학교예술교육, 생활예술교육 및 전문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 예술분야별 교수, 교사,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순수 학술단체입니다.

본 설문지는 문화관광부의 주관 아래 작성된 것이며, 선생님의 의견은 통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예술교육정책 입안을 위한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4. 11.

한 국 예 술 교 육 학 회

☞ 설문지를 받으시면 바로 작성하여 주시고, 반송용 봉투에 넣어 보내주십시오.

☞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교육학회

회장 : 양 정 수

[우편번호 : 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수원대학교 체육대학 222호

전화 : (031)220-2297 팩스 : (031)220-2628 E-mail : artsedu@hanmail.net

※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하거나 해당 번호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2. 나이 : 만 _____ 세 (2004년 11월 기준으로)

3. 소속기관 :

_____ ① 전문대 _____ ② 대학교 _____ ③ 대학원 _____ ④ 연구소

4. 직위 :

_____ ① 시간강사 _____ ② 교수 _____ ③ 연구원

5. 교직경력 :

_____ ① 5년 이하 _____ ② 6년~10년 _____ ③ 11년~ 20년 _____ ④ 21년 이상

※ 다음은 현행 초등학교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난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현재 초등학교 예술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써 주십시오. (예 :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3.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예술관련 교과와 통합적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설문조사 결과표

1) 학교용

<표 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시행 현황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시행	미시행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60(96.8)	2(3.2)	62(100.0)	$\chi^2=68.48^{**}$
	부산광역시	56(94.9)	3(5.1)	59(100.0)	
	인천광역시	47(95.9)	2(4.1)	49(100.0)	
	대구광역시	57(96.6)	2(3.4)	59(100.0)	
	광주광역시	53(96.4)	2(3.6)	55(100.0)	
	대전광역시	55(100.0)	0(0.0)	55(100.0)	
	울산광역시	41(89.1)	5(10.9)	46(100.0)	
	강원도	41(89.1)	5(10.9)	46(100.0)	
	경기도	159(96.9)	5(3.0)	164(100.0)	
	경상남도	39(75.0)	13(25.0)	52(100.0)	
	경상북도	47(85.5)	8(14.5)	55(100.0)	
	전라남도	46(97.9)	1(2.1)	47(100.0)	
	전라북도	53(98.1)	1(1.9)	54(100.0)	
	제주도	20(100.0)	0(0.0)	20(100.0)	
	충청남도	53(100.0)	0(0.0)	53(100.0)	
	충청북도	45(93.8)	3(6.3)	48(100.0)	
	전체	872(94.4)	52(5.6)	924(100.0)	
학교소재	대도시	383(95.5)	18(4.5)	401(100.0)	$\chi^2=4.80$
	중소도시	390(94.2)	24(5.8)	414(100.0)	
	읍면	99(90.8)	10(9.2)	109(100.0)	
	전체	872(94.4)	52(5.6)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195(92.4)	16(7.6)	211(100.0)	$\chi^2=16.31^{**}$
	6~10년	177(91.2)	17(8.8)	194(100.0)	
	11~20년	225(94.1)	14(5.9)	239(100.0)	
	21년 이상	275(98.2)	5(1.8)	280(100.0)	
	전체	872(94.3)	52(5.6)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24(82.8)	5(17.2)	29(100.0)	$\chi^2=37.01^{**}$
	13~30학급 이하	220(88.4)	29(11.6)	249(100.0)	
	31학급 이상	628(97.2)	18(2.8)	646(100.0)	
	전체	872(94.4)	52(5.6)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2(40.0)	3(60.0)	5(100.0)	$\chi^2=118.55^{**}$
	11~20명 이하	6(1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07(77.5)	31(22.5)	138(100.0)	
	31~40명 이하	608(97.5)	16(2.6)	624(100.0)	
	41명 이상	149(98.7)	2(1.3)	151(100.0)	
	전체	872(94.4)	52(5.6)	924(100.0)	
담당학년	1학년	171(98.3)	3(1.7)	174(100.0)	$\chi^2=25.59$
	2학년	150(94.9)	8(5.1)	158(100.0)	
	3학년	173(98.3)	3(1.7)	176(100.0)	
	4학년	124(91.8)	11(8.1)	135(100.0)	
	5학년	125(88.7)	16(11.3)	141(100.0)	
	6학년	97(90.7)	10(5.3)	107(100.0)	
	전담교사	32(97.0)	1(3.0)	33(100.0)	
	전체	872(94.4)	52(5.6)	924(100.0)	

<표 2>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운영 횟수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매일	주당 3-4회	주당 1-2회	주당 1회미만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3(4.8)	12(19.4)	44(71.0)	3(4.8)	62(100.0)	$\chi^2=183.75^{**}$
	부산광역시	10(16.9)	30(50.8)	19(32.2)	0(0.0)	59(100.0)	
	인천광역시	4(8.2)	11(22.4)	34(69.4)	0(0.0)	49(100.0)	
	대구광역시	8(13.6)	29(49.2)	22(37.3)	0(0.0)	59(100.0)	
	광주광역시	7(12.7)	30(54.5)	18(32.7)	0(0.0)	55(100.0)	
	대전광역시	5(9.1)	21(38.2)	29(52.7)	0(0.0)	55(100.0)	
	울산광역시	5(10.9)	13(28.3)	28(60.8)	0(0.0)	46(100.0)	
	강원도	2(4.3)	22(47.8)	22(47.8)	0(0.0)	46(100.0)	
	경기도	18(11.0)	28(17.1)	114(69.5)	4(2.4)	164(100.0)	
	경상남도	13(25.0)	20(38.5)	17(32.7)	2(3.8)	52(100.0)	
	경상북도	4(7.3)	23(41.8)	28(50.9)	0(0.0)	55(100.0)	
	전라남도	7(14.9)	16(34.0)	24(51.1)	0(0.0)	47(100.0)	
	전라북도	14(25.9)	20(37.0)	20(37.0)	0(0.0)	54(100.0)	
	제주도	0(0.0)	14(70.0)	5(25.0)	1(5.0)	20(100.0)	
	충청남도	6(11.3)	13(24.5)	34(64.2)	0(0.0)	53(100.0)	
	충청북도	3(6.3)	13(27.1)	30(62.5)	2(4.2)	48(100.0)	
	전체	109(11.8)	315(34.1)	486(52.6)	14(1.5)	924(100.0)	
학교소재	대도시	45(11.2)	151(37.7)	199(49.6)	6(1.5)	401(100.0)	$\chi^2=22.99^{**}$
	중소도시	60(14.5)	131(31.6)	215(51.9)	8(1.9)	414(100.0)	
	읍면	4(3.7)	33(30.3)	72(66.1)	0(0.0)	109(100.0)	
	전체	401(11.8)	414(34.1)	109(52.6)	14(1.5)	924(100.0)	
교직원경력	5년 이하	18(8.6)	77(36.5)	114(54.0)	2(0.9)	211(100.0)	$\chi^2=24.15$
	6~10년	20(10.3)	58(29.9)	111(57.2)	5(2.6)	194(100.0)	
	11~20년	34(14.2)	81(33.9)	117(49.0)	7(2.9)	239(100.0)	
	21년 이상	37(13.2)	99(35.4)	144(51.4)	0(0.0)	280(100.0)	
	전체	109(11.8)	315(34.1)	486(52.6)	14(1.5)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0(0.0)	8(27.6)	16(55.2)	5(17.2)	29(100.0)	$\chi^2=75.27^{**}$
	13~30학급 이하	28(11.2)	82(32.9)	132(53.0)	7(2.8)	249(100.0)	
	31학급 이상	81(12.5)	225(34.8)	338(52.3)	2(0.3)	646(100.0)	
	전체	109(11.8)	315(34.1)	486(52.6)	14(1.5)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5(100.0)	0(0.0)	5(100.0)	$\chi^2=28.67$
	11~20명 이하	2(33.3)	3(50.0)	1(16.7)	0(0.0)	6(100.0)	
	21~30명 이하	16(11.6)	47(34.1)	71(51.4)	4(2.8)	138(100.0)	
	31~40명 이하	78(12.5)	224(35.9)	314(50.3)	8(1.3)	624(100.0)	
	41명 이상	13(8.6)	41(27.2)	95(62.9)	2(1.3)	151(100.0)	
	전체	109(11.8)	315(34.1)	486(52.6)	14(1.5)	924(100.0)	
담당학년	1학년	22(12.7)	68(39.1)	83(47.7)	1(0.6)	174(100.0)	$\chi^2=68.32^{**}$
	2학년	18(11.4)	43(27.2)	97(61.4)	0(0.0)	158(100.0)	
	3학년	28(15.9)	51(29.0)	97(55.1)	0(0.0)	176(100.0)	
	4학년	13(9.6)	51(37.8)	63(46.7)	8(5.9)	135(100.0)	
	5학년	9(6.4)	46(32.6)	83(58.9)	3(2.1)	141(100.0)	
	6학년	17(15.9)	39(36.4)	49(45.8)	2(1.9)	107(100.0)	
	전담교사	2(6.1)	17(51.5)	14(42.4)	0(0.0)	33(100.0)	
	전체	109(11.8)	315(34.1)	486(52.6)	14(1.5)	924(100.0)	

* $p < .05$, ** $p < .01$

<표 3>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수업 시간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주 6시간 이상	주 4-5시간	주 3-4시간	주 2-3시간	주 1-2시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7(11.3)	4(6.5)	18(29.0)	29(46.8)	4(6.5)	62(100.0)	$\chi^2=88.05^{**}$
	부산광역시	4(6.8)	4(6.8)	21(35.6)	24(40.7)	6(10.2)	59(100.0)	
	인천광역시	5(10.2)	6(12.2)	16(32.7)	18(46.7)	4(8.2)	49(100.0)	
	대구광역시	5(8.5)	7(11.9)	28(47.5)	17(28.8)	2(3.4)	59(100.0)	
	광주광역시	3(5.5)	2(3.6)	30(54.5)	15(27.3)	5(9.1)	55(100.0)	
	대전광역시	4(7.3)	5(9.1)	17(30.9)	23(41.8)	6(10.9)	55(100.0)	
	울산광역시	2(4.3)	8(17.4)	22(47.8)	12(26.1)	2(4.3)	46(100.0)	
	강원도	2(4.3)	9(19.6)	19(41.3)	12(26.1)	4(8.7)	46(100.0)	
	경기도	17(10.4)	24(14.6)	60(36.6)	40(24.4)	23(14.0)	164(100.0)	
	경상남도	11(21.3)	6(11.5)	16(30.8)	15(28.8)	4(7.7)	52(100.0)	
	경상북도	5(9.1)	5(9.1)	25(45.5)	14(25.5)	6(10.9)	55(100.0)	
	전라남도	4(8.5)	5(10.6)	17(36.2)	16(34.0)	5(10.6)	47(100.0)	
	전라북도	8(14.8)	10(18.5)	22(40.7)	13(24.1)	1(1.9)	54(100.0)	
	제주도	0(0.0)	1(5.0)	9(45.0)	9(45.0)	1(5.0)	20(100.0)	
	충청남도	5(9.4)	6(11.3)	13(24.5)	16(30.2)	13(24.5)	53(100.0)	
	충청북도	2(4.2)	5(10.4)	16(33.3)	16(33.3)	9(18.8)	48(100.0)	
	전체	84(9.1)	107(11.6)	349(37.8)	289(31.3)	95(10.3)	924(100.0)	
학교소재	대도시	36(9.0)	39(9.7)	158(39.4)	138(34.4)	30(7.5)	401(100.0)	$\chi^2=31.29^{**}$
	중소도시	43(10.4)	51(12.3)	163(39.4)	116(28.0)	41(9.9)	414(100.0)	
	읍면	5(4.6)	17(15.6)	28(25.7)	35(32.1)	24(22.0)	109(100.0)	
	전체	84(9.1)	107(11.6)	349(37.8)	289(31.3)	95(10.3)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18(8.5)	21(10.0)	88(41.7)	63(29.9)	21(10.0)	211(100.0)	$\chi^2=19.50$
	6~10년	15(7.7)	20(10.3)	62(32.0)	77(39.7)	20(10.3)	(100.0)194	
	11~20년	16(6.7)	35(14.6)	86(36.0)	78(32.6)	24(10.0)	239(100.0)	
	21년 이상	35(12.5)	31(11.1)	113(40.4)	71(25.4)	30(10.7)	280(100.0)	
	전체	84(9.1)	107(11.6)	349(37.8)	289(31.3)	95(10.3)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0(0.0)	6(20.7)	11(37.9)	12(41.4)	0(0.0)	29(100.0)	$\chi^2=13.49$
	13~30학급 이하	27(10.8)	24(9.6)	84(33.7)	85(34.1)	29(11.6)	249(100.0)	
	31학급 이상	57(8.8)	77(11.9)	254(39.3)	192(29.7)	66(10.2)	646(100.0)	
	전체	84(9.1)	107(11.6)	349(37.8)	289(31.3)	95(10.3)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0(0.0)	5(100.0)	0(0.0)	5(100.0)	$\chi^2=27.02^*$
	11~20명 이하	2(33.3)	0(0.0)	4(66.7)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1(8.0)	14(10.1)	59(42.8)	44(31.9)	10(7.2)	138(100.0)	
	31~40명 이하	61(9.8)	76(12.2)	227(36.4)	197(31.6)	63(10.1)	624(100.0)	
	41명 이상	10(6.6)	17(11.3)	59(39.1)	43(28.5)	22(14.6)	151(100.0)	
	전체	84(9.1)	107(11.6)	349(37.8)	289(31.3)	95(10.3)	924(100.0)	
담당학년	1학년	17(9.8)	19(10.9)	73(42.0)	48(27.6)	17(9.8)	174(100.0)	$\chi^2=50.19^{**}$
	2학년	7(4.4)	28(17.7)	60(38.0)	47(29.7)	16(10.1)	158(100.0)	
	3학년	24(13.6)	19(10.8)	57(32.4)	64(36.4)	12(6.8)	176(100.0)	
	4학년	12(8.9)	15(11.1)	50(37.0)	40(29.6)	18(13.3)	135(100.0)	
	5학년	10(7.1)	8(5.7)	43(30.5)	61(43.3)	19(13.5)	141(100.0)	
	6학년	13(12.1)	16(15.0)	47(43.9)	22(20.6)	9(8.4)	107(100.0)	
	전담교사	1(3.0)	2(6.1)	19(57.6)	7(21.2)	4(12.1)	33(100.0)	
	전체	84(9.1)	107(11.6)	349(37.8)	289(31.3)	95(10.3)	924(100.0)	

* $p < .05$, ** $p < .01$

<표 4>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수업 공간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시설 갖춘 특별실	학교내 일반 공간	체육관 시정각실	교실	기타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19(30.6)	7(11.3)	8(12.9)	28(45.2)	0(0.0)	62(100.0)	$\chi^2=172.55^{**}$
	부산광역시	8(13.6)	28(47.5)	1(1.7)	20(33.9)	2(3.4)	59(100.0)	
	인천광역시	13(26.5)	14(28.6)	3(6.1)	19(38.8)	0(0.0)	49(100.0)	
	대구광역시	14(23.7)	14(23.7)	1(1.7)	30(50.8)	0(0.0)	59(100.0)	
	광주광역시	18(32.7)	24(43.6)	0(0.0)	13(23.6)	0(0.0)	55(100.0)	
	대전광역시	10(18.2)	12(21.8)	5(9.1)	28(50.9)	0(0.0)	55(100.0)	
	울산광역시	12(26.1)	12(26.1)	0(0.0)	22(47.8)	0(0.0)	46(100.0)	
	강원도	4(8.7)	31(67.4)	0(0.0)	7(15.2)	4(8.7)	46(100.0)	
	경기도	19(11.6)	64(39.0)	3(1.8)	73(44.5)	5(3.0)	164(100.0)	
	경상남도	9(17.3)	21(40.4)	0(0.0)	22(42.3)	0(0.0)	52(100.0)	
	경상북도	11(20.0)	26(47.3)	3(5.5)	13(23.6)	2(3.6)	55(100.0)	
	전라남도	6(12.8)	20(42.6)	4(8.5)	15(31.9)	2(4.3)	47(100.0)	
	전라북도	7(13.0)	26(48.1)	1(1.9)	20(37.0)	0(0.0)	54(100.0)	
	제주도	0(0.0)	17(85.0)	0(0.0)	3(15.0)	0(0.0)	20(100.0)	
	충청남도	13(24.5)	20(37.7)	1(1.9)	18(34.0)	1(1.9)	53(100.0)	
	충청북도	5(10.4)	15(31.3)	2(4.2)	22(45.8)	4(8.3)	48(100.0)	
	전체	168(18.2)	351(38.7)	32(3.5)	353(38.2)	20(2.2)	924(100.0)	
학교소재	대도시	96(23.9)	118(29.4)	15(3.7)	170(42.4)	2(0.5)	401(100.0)	$\chi^2=49.92^{**}$
	중소도시	50(12.1)	179(43.2)	12(2.9)	157(37.9)	16(3.9)	414(100.0)	
	읍면	22(20.2)	54(49.5)	5(4.6)	26(23.9)	2(1.8)	109(100.0)	
	전체	168(18.2)	351(49.5)	32(3.5)	353(38.2)	20(2.2)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45(21.3)	85(40.3)	8(3.8)	72(34.1)	1(0.5)	211(100.0)	$\chi^2=24.87^{**}$
	6~10년	30(15.5)	76(39.2)	9(4.6)	76(39.2)	3(1.5)	194(100.0)	
	11~20년	38(15.9)	95(39.7)	10(4.2)	94(39.3)	2(0.8)	239(100.0)	
	21년 이상	55(19.6)	95(33.9)	5(1.8)	111(39.6)	14(5.0)	280(100.0)	
	전체	168(18.2)	351(38.0)	32(3.5)	353(38.2)	20(2.2)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3(10.3)	0(0.0)	8(27.6)	18(62.1)	0(0.0)	29(100.0)	$\chi^2=71.33^{**}$
	13~30학급 이하	55(22.1)	90(36.1)	6(2.4)	92(36.9)	6(2.4)	249(100.0)	
	31학급 이상	110(17.0)	261(40.4)	18(2.8)	243(37.6)	14(2.2)	646(100.0)	
	전체	168(18.2)	351(38.0)	32(3.5)	353(38.2)	20(2.2)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0(0.0)	5(100.0)	0(0.0)	5(100.0)	$\chi^2=31.61^{**}$
	11~20명 이하	0(0.0)	3(50.0)	0(0.0)	3(50.0)	0(0.0)	6(100.0)	
	21~30명 이하	36(26.1)	43(31.2)	2(1.4)	54(39.1)	3(2.2)	138(100.0)	
	31~40명 이하	117(18.8)	245(39.3)	27(4.3)	224(35.9)	11(1.8)	624(100.0)	
	41명 이상	15(9.9)	60(39.7)	3(2.0)	67(44.4)	6(4.0)	151(100.0)	
	전체	168(18.2)	351(38.0)	32(3.5)	353(38.2)	20(2.2)	924(100.0)	
담당학년	1학년	29(16.7)	68(39.1)	4(2.3)	67(38.5)	6(3.4)	174(100.0)	$\chi^2=32.62$
	2학년	31(1.6)	50(31.6)	4(2.5)	66(41.8)	7(4.4)	158(100.0)	
	3학년	34(19.3)	54(30.7)	7(4.0)	80(45.5)	1(0.6)	176(100.0)	
	4학년	31(23.0)	54(40.0)	4(3.0)	44(32.6)	2(1.5)	135(100.0)	
	5학년	20(14.2)	64(45.4)	4(2.8)	50(35.5)	3(2.1)	141(100.0)	
	6학년	18(16.8)	48(44.9)	6(5.6)	35(32.7)	0(0.0)	107(100.0)	
	전담교사	5(15.2)	13(39.4)	3(9.1)	11(33.3)	1(3.0)	33(100.0)	
	전체	168(18.2)	351(38.0)	32(3.5)	353(38.2)	20(2.2)	924(100.0)	

<표 5>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담당교사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담임 교사	교과전담 교사	특기적성 강사	자원 봉사자	전문 예술가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0(0.0)	6(9.7)	49(79.0)	0(0.0)	7(11.3)	62(100.0)	$\chi^2=121.63^{**}$
	부산광역시	7(11.9)	4(6.8)	48(81.4)	0(0.0)	0(0.0)	59(100.0)	
	인천광역시	0(0)	1(2.0)	47(95.9)	0(0.0)	1(2.0)	49(100.0)	
	대구광역시	1(1.7)	1(1.7)	57(96.6)	0(0.0)	0(0.0)	59(100.0)	
	광주광역시	2(3.6)	2(3.6)	51(92.7)	0(0.0)	0(0.0)	55(100.0)	
	대전광역시	1(1.8)	0(0.0)	54(98.2)	0(0.0)	0(0.0)	55(100.0)	
	울산광역시	2(4.3)	2(4.3)	40(87.0)	0(0.0)	2(4.3)	46(100.0)	
	강원도	6(13.0)	4(8.7)	36(78.3)	0(0.0)	0(0.0)	46(100.0)	
	경기도	6(3.7)	6(3.7)	146(89.0)	1(0.6)	5(3.0)	164(100.0)	
	경상남도	5(9.6)	1(1.9)	46(83.5)	0(0.0)	0(0.0)	52(100.0)	
	경상북도	0(0.0)	2(3.6)	53(96.4)	0(0.0)	0(0.0)	55(100.0)	
	전라남도	0(0.0)	1(2.1)	46(97.9)	0(0.0)	0(0.0)	47(100.0)	
	전라북도	1(1.9)	0(0.0)	53(98.1)	0(0.0)	0(0.0)	54(100.0)	
	제주도	0(0.0)	0(0.0)	20(100.0)	0(0.0)	0(0.0)	20(100.0)	
	충청남도	1(1.9)	1(1.9)	51(96.2)	0(0.0)	0(0.0)	53(100.0)	
	충청북도	0(0.0)	0(0.0)	48(100.0)	0(0.0)	0(0.0)	48(100.0)	
	전체	32(3.5)	31(3.4)	845(91.5)	1(0.1)	15(1.6)	924(100.0)	
학교소재	대도시	13(3.2)	18(4.5)	357(89.0)	0(0.0)	13(3.2)	401(100.0)	$\chi^2=18.18^*$
	중소도시	16(3.9)	8(1.9)	387(93.5)	1(0.2)	2(0.5)	414(100.0)	
	읍면	3(2.8)	5(4.6)	101(92.7)	0(0.0)	0(0.0)	109(100.0)	
	전체	32(3.5)	31(3.4)	845(91.5)	1(0.1)	15(1.6)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10(4.7)	10(4.7)	183(86.7)	0(0.0)	8(0.9)	211(100.0)	$\chi^2=24.06^*$
	6~10년	7(3.6)	4(2.1)	179(92.3)	0(0.0)	4(0.4)	194(100.0)	
	11~20년	3(1.3)	11(4.6)	221(92.5)	1(0.4)	3(0.3)	239(100.0)	
	21년 이상	12(4.3)	6(2.1)	262(93.6)	0(0.0)	0(0.0)	280(100.0)	
	전체	32(3.5)	31(3.4)	845(91.5)	1(0.1)	15(1.6)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0(0.0)	10(34.5)	12(41.4)	0(0.0)	7(24.1)	29(100.0)	$\chi^2=207.35^{**}$
	13~30학급 이하	14(5.6)	11(4.4)	217(87.1)	0(0.0)	7(2.8)	249(100.0)	
	31학급 이상	18(2.8)	10(1.5)	616(95.4)	1(0.2)	1(0.2)	646(100.0)	
	전체	21(3.5)	31(3.4)	845(91.5)	1(0.1)	15(1.6)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5(100.0)	0(0.0)	0(0.0)	5(100.0)	$\chi^2=27.34^*$
	11~20명 이하	0(0.0)	0(0.0)	6(100.0)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0(7.2)	9(6.5)	115(83.3)	0(0.0)	4(2.9)	138(100.0)	
	31~40명 이하	17(2.7)	22(3.5)	574(92.0)	0(0.0)	11(1.8)	624(100.0)	
	41명 이상	5(3.3)	0(0.0)	145(96.0)	1(0.7)	0(0.0)	151(100.0)	
	전체	32(3.5)	31(3.4)	845(91.5)	1(0.1)	15(1.6)	924(100.0)	
담당학년	1학년	6(3.4)	0(0.0)	163(93.7)	1(0.6)	4(2.3)	174(100.0)	$\chi^2=42.58^{**}$
	2학년	7(4.4)	6(3.8)	144(91.1)	0(0.0)	1(0.6)	158(100.0)	
	3학년	2(1.1)	6(3.4)	161(91.5)	0(0.0)	7(4.0)	176(100.0)	
	4학년	0(0.0)	8(5.9)	125(92.6)	0(0.0)	2(1.5)	135(100.0)	
	5학년	12(8.5)	6(4.3)	123(87.2)	0(0.0)	0(0.0)	141(100.0)	
	6학년	4(3.7)	4(3.7)	98(91.6)	0(0.0)	1(0.9)	107(100.0)	
	전담교사	1(3.0)	1(3.0)	31(93.9)	0(0.0)	0(0.0)	33(100.0)	
	전체	32(3.5)	31(3.4)	845(91.5)	1(0.1)	15(1.6)	924(100.0)	

<표 6>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강사에 대한 학교의 평가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다	전혀 만족하지 않다	미평가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3(4.8)	26(41.9)	21(33.9)	0(0.0)	0(0.0)	12(19.4)	62(100.0)	$\chi^2=223.35$ **
	부산광역시	1(1.7)	11(18.6)	8(13.6)	1(1.7)	0(0.0)	38(64.4)	59(100.0)	
	인천광역시	1(2.0)	13(26.5)	15(30.6)	0(0.0)	0(0.0)	20(40.8)	49(100.0)	
	대구광역시	2(3.4)	20(33.9)	10(16.9)	1(1.7)	0(0.0)	26(44.1)	59(100.0)	
	광주광역시	2(3.6)	1(1.8)	9(16.4)	0(0.0)	0(0.0)	43(78.2)	55(100.0)	
	대전광역시	5(9.2)	23(41.8)	14(25.5)	3(5.5)	0(0.0)	55(18.2)	55(100.0)	
	울산광역시	2(4.3)	7(15.2)	3(6.5)	0(0.0)	2(4.3)	32(69.6)	46(100.0)	
	강원도	0(0.0)	2(4.3)	7(15.2)	0(0.0)	0(0.0)	37(80.4)	46(100.0)	
	경기도	4(2.4)	49(29.9)	42(25.6)	2(1.2)	0(0.0)	67(40.9)	164(100.0)	
	경상남도	0(0.0)	8(15.4)	6(11.5)	2(3.8)	0(0.0)	36(69.2)	52(100.0)	
	경상북도	4(7.3)	5(9.1)	9(16.4)	0(0.0)	0(0.0)	37(67.3)	55(100.0)	
	전라남도	0(0.0)	14(29.8)	9(19.1)	2(4.3)	0(0.0)	22(46.8)	47(100.0)	
	전라북도	0(0.0)	10(18.5)	7(13.0)	0(0.0)	0(0.0)	37(68.5)	54(100.0)	
	제주도	2(10.0)	7(35.0)	7(35.0)	0(0.0)	0(0.0)	4(20.0)	20(100.0)	
	충청남도	1(1.9)	10(18.9)	6(11.3)	0(0.0)	0(0.0)	36(67.9)	53(100.0)	
	충청북도	2(4.2)	10(20.8)	10(20.8)	0(0.0)	0(0.0)	26(54.2)	48(100.0)	
	전체	29(3.1)	216(23.4)	183(19.8)	11(1.2)	2(0.2)	483(52.3)	924(100.0)	
학교소재	대도시	15(3.7)	107(26.7)	86(21.4)	5(1.2)	2(0.5)	186(46.4)	401(100.0)	$\chi^2=28.62$ **
	중소도시	14(3.4)	95(22.9)	83(20.0)	4(1.0)	0(0.0)	218(52.7)	414(100.0)	
	읍면	0(0.0)	14(12.8)	14(12.8)	2(1.8)	0(0.0)	79(72.5)	109(100.0)	
	전체	29(3.1)	216(23.4)	183(19.8)	11(1.2)	2(0.2)	483(52.3)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6(2.8)	44(20.9)	35(16.6)	4(1.9)	0(0.0)	122(57.8)	211(100.0)	$\chi^2=37.43$ **
	6~10년	7(3.5)	50(25.8)	26(13.4)	2(1.0)	0(0.0)	109(56.2)	194(100.0)	
	11~20년	6(2.5)	43(18.0)	47(19.7)	2(0.8)	2(0.8)	139(58.2)	239(100.0)	
	21년 이상	10(3.6)	79(28.2)	75(26.8)	3(1.1)	0(0.0)	113(40.4)	280(100.0)	
	전체	29(3.1)	216(23.4)	183(19.8)	11(1.2)	2(0.2)	483(52.3)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1(3.4)	6(20.7)	8(27.6)	0(0.0)	0(0.0)	14(48.3)	29(100.0)	$\chi^2=18.91$ *
	13~30학급 이하	8(3.2)	64(25.7)	33(13.3)	6(2.4)	2(0.8)	136(54.6)	249(100.0)	
	31학급 이상	20(3.1)	146(22.6)	142(22.0)	5(0.8)	0(0.0)	333(51.5)	646(100.0)	
	전체	29(3.1)	216(23.4)	183(19.8)	11(1.2)	2(0.2)	483(52.3)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0(0.0)	0(0.0)	0(0.0)	5(100.0)	5(100.0)	$\chi^2=45.93$ **
	11~20명 이하	0(0.0)	22(3.3)	0(0.0)	0(0.0)	0(0.0)	4(66.7)	6(100.0)	
	21~30명 이하	7(5.1)	22(15.9)	13(9.4)	1(0.7)	2(1.4)	93(67.4)	138(100.0)	
	31~40명 이하	17(2.7)	150(24.0)	130(20.8)	8(1.3)	0(0.0)	319(51.5)	624(100.0)	
	41명 이상	5(3.3)	42(27.8)	40(23.0)	2(1.3)	0(0.0)	62(41.1)	151(100.0)	
	전체	29(3.1)	216(23.4)	183(19.8)	11(1.2)	2(0.2)	483(52.3)	924(100.0)	
담당학년	1학년	4(2.3)	35(20.1)	40(23.0)	4(2.3)	0(0.0)	91(52.3)	174(100.0)	$\chi^2=64.93$ **
	2학년	2(1.3)	41(25.9)	37(23.4)	0(0.0)	0(0.0)	78(49.4)	158(100.0)	
	3학년	11(6.3)	60(34.1)	27(15.3)	1(0.6)	0(0.0)	77(43.8)	176(100.0)	
	4학년	3(2.2)	26(19.3)	25(18.5)	4(3.0)	0(0.0)	77(57.0)	135(100.0)	
	5학년	4(2.8)	33(23.4)	20(14.2)	0(0.0)	2(1.4)	82(58.2)	141(100.0)	
	6학년	5(4.7)	15(14.0)	21(19.6)	2(1.9)	0(0.0)	64(59.8)	107(100.0)	
	전담교사	0(0.0)	6(18.2)	13(39.4)	0(0.0)	0(0.0)	14(42.4)	33(100.0)	
	전체	29(3.1)	216(23.4)	183(19.8)	11(1.2)	2(0.2)	483(52.3)	924(100.0)	

<표 7>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다	전혀 만족하지 않다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8(12.9)	35(56.5)	19(30.6)	0(0.0)	0(0.0)	62(100.0)	$\chi^2=116.59^{**}$
	부산광역시	11(18.6)	20(33.9)	25(42.4)	3(5.1)	0(0.0)	59(100.0)	
	인천광역시	3(6.1)	23(46.9)	23(46.9)	0(0.0)	0(0.0)	49(100.0)	
	대구광역시	4(6.8)	30(50.8)	24(40.7)	1(1.7)	0(0.0)	59(100.0)	
	광주광역시	1(1.8)	30(54.5)	24(43.6)	0(0.0)	0(0.0)	55(100.0)	
	대전광역시	3(5.5)	14(25.5)	35(63.6)	3(5.5)	0(0.0)	55(100.0)	
	울산광역시	8(17.4)	22(47.8)	12(26.1)	2(4.3)	2(4.3)	46(100.0)	
	강원도	3(6.5)	14(30.4)	28(60.9)	1(2.2)	0(0.0)	46(100.0)	
	경기도	9(5.5)	83(50.6)	69(42.1)	2(1.2)	1(0.6)	164(100.0)	
	경상남도	0(0.0)	20(38.5)	31(59.6)	1(1.9)	0(0.0)	52(100.0)	
	경상북도	2(3.6)	17(30.9)	35(63.6)	1(1.8)	0(0.0)	55(100.0)	
	전라남도	3(6.4)	21(44.7)	23(48.9)	0(0.0)	0(0.0)	47(100.0)	
	전라북도	1(1.9)	24(44.4)	29(53.7)	0(0.0)	0(0.0)	54(100.0)	
	제주도	3(15.0)	10(50.0)	7(35.0)	0(0.0)	0(0.0)	20(100.0)	
	충청남도	5(9.4)	26(49.1)	22(41.5)	0(0.0)	0(0.0)	53(100.0)	
	충청북도	2(4.2)	25(52.1)	21(43.8)	0(0.0)	0(0.0)	48(100.0)	
	전체	66(7.1)	414(44.8)	427(46.2)	14(1.5)	3(0.3)	924(100.0)	
학교소재	대도시	36(9.0)	190(47.4)	164(40.9)	9(2.2)	2(0.5)	401(100.0)	$\chi^2=16.62^*$
	중소도시	22(5.3)	187(45.2)	200(48.3)	4(1.0)	1(0.2)	414(100.0)	
	읍면	8(7.3)	37(33.9)	63(57.8)	1(0.9)	0(0)	109(100.0)	
	전체	66(7.1)	414(44.8)	427(46.2)	14(1.5)	3(0.3)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15(7.1)	92(43.6)	104(49.3)	0(0.0)	0(0.0)	211(100.0)	$\chi^2=22.42^*$
	6~10년	9(4.6)	85(43.8)	95(49.0)	5(2.6)	0(0.0)	194(100.0)	
	11~20년	20(8.4)	109(45.6)	206(44.4)	1(0.4)	3(1.3)	239(100.0)	
	21년 이상	22(7.9)	128(45.7)	122(43.6)	8(2.9)	0(0.0)	280(100.0)	
	전체	66(7.1)	414(44.8)	427(46.2)	14(1.5)	3(0.3)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1(3.4)	15(51.7)	13(44.8)	0(0.0)	0(0.0)	29(100.0)	$\chi^2=12.47$
	13~30학급 이하	22(8.8)	101(40.6)	118(47.4)	5(2.0)	3(1.2)	249(100.0)	
	31학급 이상	43(6.7)	298(46.1)	296(45.8)	14(1.4)	0(0)	646(100.0)	
	전체	66(7.1)	414(44.8)	427(46.2)	14(1.5)	3(0.3)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5(100.0)	0(0.0)	0(0.0)	5(100.0)	$\chi^2=26.25^*$
	11~20명 이하	1(16.7)	4(66.7)	1(16.7)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5(10.9)	48(34.8)	70(50.7)	3(2.2)	2(1.4)	138(100.0)	
	31~40명 이하	41(6.6)	286(45.8)	289(46.3)	8(1.3)	0(0.0)	624(100.0)	
	41명 이상	9(6.0)	76(50.3)	623(41.1)	3(2.0)	1(0.7)	151(100.0)	
	전체	66(7.1)	414(44.8)	427(46.2)	14(1.5)	3(0.3)	924(100.0)	
담당학년	1학년	13(7.5)	82(47.1)	76(43.7)	3(1.7)	0(0.0)	174(100.0)	$\chi^2=29.81$
	2학년	14(8.9)	74(46.8)	64(40.5)	5(3.2)	1(0.6)	158(100.0)	
	3학년	19(10.8)	81(46.0)	74(42.0)	2(1.1)	0(0.0)	176(100.0)	
	4학년	5(3.7)	56(41.5)	74(54.8)	0(0.0)	0(0.0)	135(100.0)	
	5학년	7(5.0)	55(39.0)	75(53.2)	2(1.4)	2(1.4)	141(100.0)	
	6학년	5(4.7)	49(45.8)	51(47.7)	2(1.9)	0(0.0)	107(100.0)	
	전담교사	3(9.1)	17(51.5)	13(39.4)	0(0.0)	0(0.0)	33(100.0)	
	전체	66(7.1)	414(44.8)	427(46.2)	14(1.5)	3(0.3)	924(100.0)	

<표 8>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다	전혀 만족하지 않다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6(9.7)	41(66.1)	15(24.2)	0(0.0)	0(0.0)	62(100.0)	$\chi^2=123.03^{**}$
	부산광역시	15(25.4)	20(33.9)	21(35.6)	3(5.1)	0(0.0)	59(100.0)	
	인천광역시	5(10.2)	21(42.9)	23(46.9)	0(0.0)	0(0.0)	49(100.0)	
	대구광역시	4(6.8)	30(50.8)	25(42.4)	0(0.0)	0(0.0)	59(100.0)	
	광주광역시	1(1.8)	34(61.8)	20(36.4)	0(0.0)	0(0.0)	55(100.0)	
	대전광역시	5(9.1)	28(50.9)	22(40.0)	0(0.0)	0(0.0)	55(100.0)	
	울산광역시	12(26.1)	14(30.4)	16(34.8)	2(4.3)	2(4.3)	46(100.0)	
	강원도	3(6.5)	20(43.5)	22(47.8)	1(2.2)	0(0.0)	46(100.0)	
	경기도	17(10.4)	84(51.2)	58(35.4)	4(2.4)	1(0.6)	164(100.0)	
	경상남도	2(3.8)	20(38.5)	26(50.0)	4(7.7)	0(0.0)	52(100.0)	
	경상북도	3(5.5)	23(41.8)	28(50.9)	1(1.8)	0(0.0)	55(100.0)	
	전라남도	7(14.9)	28(59.6)	11(23.4)	1(2.1)	0(0.0)	47(100.0)	
	전라북도	2(3.7)	25(46.3)	26(48.1)	1(1.9)	0(0.0)	54(100.0)	
	제주도	2(10.0)	12(60.0)	6(30.0)	0(0.0)	0(0.0)	20(100.0)	
	충청남도	9(17.0)	32(60.4)	12(22.6)	0(0.0)	0(0.0)	53(100.0)	
	충청북도	4(8.3)	29(60.4)	15(31.3)	0(0.0)	0(0.0)	48(100.0)	
	전체	97(10.5)	461(49.9)	346(37.4)	17(1.8)	3(0.3)	924(100.0)	
학교소재	대도시	47(11.7)	199(49.6)	148(36.9)	5(1.2)	2(0.5)	401(100.0)	$\chi^2=6.38$
	중소도시	42(10.1)	209(50.5)	151(36.5)	11(2.7)	1(0.2)	414(100.0)	
	읍면	8(7.3)	53(48.6)	47(43.1)	1(0.9)	0(0.0)	109(100.0)	
	전체	97(10.5)	461(49.9)	346(37.4)	17(1.8)	3(0.3)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22(10.4)	98(46.4)	85(40.3)	6(2.8)	0(0.0)	211(100.0)	$\chi^2=22.70^*$
	6~10년	12(6.2)	97(50.0)	81(41.8)	4(2.1)	0(0.0)	194(100.0)	
	11~20년	24(10.0)	127(53.1)	84(35.1)	1(0.4)	3(1.3)	239(100.0)	
	21년 이상	39(13.9)	139(49.6)	96(34.3)	6(2.1)	0(0.0)	280(100.0)	
	전체	97(10.5)	461(49.9)	346(37.4)	17(1.8)	3(0.3)	3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1(3.4)	16(55.2)	12(41.4)	0(0.0)	0(0.0)	29(100.0)	$\chi^2=17.41^*$
	13~30학급 이하	23(9.2)	112(45.0)	103(41.4)	8(3.2)	3(1.2)	249(100.0)	
	31학급 이상	73(11.3)	333(51.5)	231(35.8)	9(1.4)	0(0)	646(100.0)	
	전체	97(10.5)	461(49.9)	346(37.4)	17(1.8)	3(0.3)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5(100.0)	0(0.0)	0(0.0)	5(100.0)	$\chi^2=35.43^{**}$
	11~20명 이하	1(16.7)	4(66.7)	1(16.7)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8(13.0)	50(36.2)	62(44.9)	6(4.3)	2(1.4)	138(100.0)	
	31~40명 이하	64(10.3)	320(51.3)	230(36.9)	10(1.6)	0(0)	624(100.0)	
	41명 이상	14(9.3)	87(57.6)	48(31.8)	1(0.7)	1(0.7)	151(100.0)	
	전체	97(10.5)	461(49.9)	346(37.4)	17(1.8)	3(0.3)	924(100.0)	
담당학년	1학년	20(11.5)	95(34.6)	58(33.3)	1(0.6)	0(0.0)	174(100.0)	$\chi^2=56.62^{**}$
	2학년	25(15.8)	71(44.9)	57(36.1)	4(2.5)	1(0.6)	158(100.0)	
	3학년	26(14.8)	96(54.5)	53(30.1)	1(0.6)	0(0.0)	176(100.0)	
	4학년	5(3.7)	73(54.1)	56(41.5)	1(0.7)	0(0.0)	135(100.0)	
	5학년	10(7.1)	53(37.6)	72(51.1)	4(2.8)	2(1.4)	141(100.0)	
	6학년	7(6.5)	56(52.3)	38(35.5)	6(5.6)	0(0.0)	107(100.0)	
	전담교사	4(12.1)	17(51.5)	12(36.4)	0(0.0)	0(0.0)	33(100.0)	
	전체	97(10.5)	461(49.9)	346(37.4)	17(1.8)	3(0.3)	924(100.0)	

<표 9> 예술관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재능개발 효과의 빈도와 백분율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많이 개발되었다	조금 개발되었다	보통이다	개발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0(32.3)	34(54.8)	8(12.9)	0(0.0)	0(0.0)	62(100.0)	$\chi^2=116.96^{**}$
	부산광역시	13(22.0)	28(47.5)	15(25.4)	1(1.7)	2(3.4)	59(100.0)	
	인천광역시	7(14.3)	25(51.0)	15(30.6)	2(4.1)	0(0.0)	49(100.0)	
	대구광역시	5(8.5)	35(59.3)	18(30.5)	0(0.0)	1(1.7)	59(100.0)	
	광주광역시	6(10.9)	33(60.0)	14(25.5)	0(0.0)	2(3.6)	55(100.0)	
	대전광역시	9(16.4)	33(60.0)	9(16.4)	4(7.3)	0(0.0)	55(100.0)	
	울산광역시	8(17.4)	19(41.3)	16(34.8)	3(6.5)	0(0.0)	46(100.0)	
	강원도	5(10.9)	24(52.2)	16(34.8)	0(0.0)	1(2.2)	46(100.0)	
	경기도	26(15.9)	93(56.7)	39(23.8)	4(2.4)	2(1.2)	164(100.0)	
	경상남도	2(3.8)	22(42.3)	23(44.2)	5(9.6)	0(0.0)	52(100.0)	
	경상북도	4(7.3)	22(40.0)	28(50.9)	0(0.0)	1(1.8)	55(100.0)	
	전라남도	7(14.9)	31(66.0)	8(17.0)	0(0.0)	1(2.1)	47(100.0)	
	전라북도	8(14.8)	30(55.6)	16(29.6)	0(0.0)	0(0.0)	54(100.0)	
	제주도	3(15.0)	10(50.0)	6(30.0)	0(0.0)	1(5.0)	20(100.0)	
	충청남도	9(17.0)	32(60.4)	10(18.9)	0(0.0)	2(3.8)	53(100.0)	
	충청북도	8(16.7)	32(66.7)	8(16.7)	0(0.0)	0(0.0)	48(100.0)	
	전체	140(15.2)	503(54.4)	249(26.9)	19(2.1)	13(1.4)	924(100.0)	
학교소재	대도시	72(18.0)	216(53.9)	98(24.4)	10(2.5)	5(1.2)	401(100.0)	$\chi^2=8.39$
	중소도시	58(14.0)	225(54.3)	117(28.3)	8(1.9)	6(1.4)	414(100.0)	
	읍면	10(9.2)	62(56.9)	34(31.2)	1(0.9)	2(1.8)	109(100.0)	
	전체	140(15.2)	503(54.4)	249(26.9)	19(2.1)	13(1.4)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17(8.1)	123(58.3)	65(30.8)	5(2.4)	1(0.5)	211(100.0)	$\chi^2=19.07$
	6~10년	32(16.5)	96(49.5)	60(30.9)	4(2.1)	2(1.0)	194(100.0)	
	11~20년	39(16.3)	132(55.2)	58(24.3)	4(1.7)	6(2.1)	239(100.0)	
	21년 이상	52(18.6)	152(54.3)	66(23.6)	6(2.1)	4(1.4)	280(100.0)	
	전체	140(15.2)	503(54.4)	249(26.9)	19(2.1)	13(1.4)	392(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4(13.8)	16(55.2)	9(31.0)	0(0.0)	0(0.0)	29(100.0)	$\chi^2=14.35$
	13~30학급 이하	32(12.9)	120(48.2)	88(35.3)	5(2.0)	4(1.6)	249(100.0)	
	31학급 이상	104(16.1)	367(56.8)	152(23.5)	14(2.2)	9(1.4)	646(100.0)	
	전체	140(15.2)	503(54.4)	249(26.9)	19(2.1)	13(1.4)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5(100.0)	0(0.0)	0(0.0)	5(100.0)	$\chi^2=61.54^{**}$
	11~20명 이하	1(16.7)	4(66.7)	1(16.7)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3(9.4)	53(38.4)	67(48.6)	5(3.6)	0(0.0)	138(100.0)	
	31~40명 이하	103(16.5)	362(58.0)	136(21.8)	13(2.1)	10(1.6)	624(100.0)	
	41명 이상	23(15.2)	84(55.6)	40(26.5)	1(0.7)	3(2.0)	151(100.0)	
	전체	140(15.2)	503(54.4)	249(26.9)	19(2.1)	13(1.4)	924(100.0)	
담당학년	1학년	23(13.2)	100(57.5)	47(27.0)	3(1.7)	1(0.6)	174(100.0)	$\chi^2=54.33^{**}$
	2학년	18(11.4)	92(58.2)	43(27.2)	3(1.9)	2(1.3)	158(100.0)	
	3학년	43(24.4)	95(54.0)	36(20.5)	2(1.1)	0(0.0)	176(100.0)	
	4학년	18(13.3)	69(51.1)	42(31.1)	2(1.5)	4(3.0)	135(100.0)	
	5학년	14(9.9)	72(51.1)	49(34.8)	3(2.1)	3(2.1)	141(100.0)	
	6학년	18(16.8)	57(53.3)	26(24.3)	6(5.6)	0(0.0)	107(100.0)	
	전담교사	6(18.2)	18(54.5)	6(18.2)	0(0.0)	3(9.1)	33(100.0)	
	전체	140(15.2)	503(54.4)	249(26.9)	19(2.1)	13(1.4)	924(100.0)	

<표 10> 초등학교 교육목표 중 예술교육 관련목표의 빈도와 백분율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48(77.4)	4(6.5)	10(16.1)	62(100.0)	$\chi^2=87.87^{**}$
	부산광역시	30(50.8)	21(35.6)	8(13.6)	59(100.0)	
	인천광역시	26(53.1)	6(12.2)	17(34.7)	49(100.0)	
	대구광역시	34(57.6)	12(20.3)	13(22.0)	59(100.0)	
	광주광역시	42(76.4)	5(9.1)	8(14.5)	55(100.0)	
	대전광역시	40(72.7)	7(12.7)	8(14.5)	55(100.0)	
	울산광역시	33(71.7)	8(17.4)	5(10.9)	46(100.0)	
	강원도	31(67.4)	8(17.4)	7(15.2)	46(100.0)	
	경기도	121(73.8)	19(11.6)	24(14.6)	164(100.0)	
	경상남도	19(36.5)	12(23.1)	21(40.4)	52(100.0)	
	경상북도	31(56.4)	14(25.5)	10(18.2)	55(100.0)	
	전라남도	36(76.6)	5(10.6)	6(12.8)	47(100.0)	
	전라북도	38(70.4)	11(20.4)	5(9.3)	54(100.0)	
	제주도	13(65.0)	6(30.0)	1(5.0)	20(100.0)	
	충청남도	40(75.5)	2(3.8)	11(20.8)	53(100.0)	
	충청북도	35(72.9)	7(14.6)	6(12.5)	48(100.0)	
	전체	617(66.8)	147(15.9)	160(17.3)	924(100.0)	
학교소재	대도시	259(64.6)	68(17.0)	74(18.5)	401(100.0)	$\chi^2=1.60$
	중소도시	283(68.4)	62(15.0)	69(16.7)	414(100.0)	
	읍면	75(68.8)	17(15.6)	17(15.6)	109(100.0)	
	전체	617(66.8)	147(15.9)	160(17.3)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105(49.8)	33(15.6)	73(34.6)	211(100.0)	$\chi^2=71.01^{**}$
	6~10년	129(66.5)	30(15.5)	35(18.0)	194(100.0)	
	11~20년	167(69.9)	38(15.9)	34(14.2)	239(100.0)	
	21년 이상	216(77.1)	46(16.4)	18(6.4)	280(100.0)	
	전체	617(66.8)	147(15.9)	160(17.3)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25(86.2)	3(10.3)	1(3.4)	29(100.0)	$\chi^2=18.78^{**}$
	13~30학급 이하	144(57.8)	56(22.5)	49(19.7)	249(100.0)	
	31학급 이상	448(69.3)	88(13.6)	110(17.0)	646(100.0)	
	전체	617(66.8)	147(15.9)	160(17.3)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0(0.0)	5(100.0)	5(100.0)	$\chi^2=67.32^{**}$
	11~20명 이하	1(16.7)	5(83.3)	0(0.0)	6(100.0)	
	21~30명 이하	74(53.6)	31(22.5)	33(23.9)	138(100.0)	
	31~40명 이하	422(67.6)	93(14.9)	109(17.5)	624(100.0)	
	41명 이상	120(79.5)	18(11.9)	13(8.6)	151(100.0)	
	전체	617(66.8)	147(15.9)	160(17.3)	924(100.0)	
담당학년	1학년	126(72.4)	29(16.7)	19(10.9)	174(100.0)	$\chi^2=65.63^{**}$
	2학년	132(83.5)	14(8.9)	12(7.6)	158(100.0)	
	3학년	117(66.5)	34(19.3)	25(14.2)	176(100.0)	
	4학년	79(58.5)	19(14.1)	37(27.4)	135(100.0)	
	5학년	74(52.5)	32(22.7)	35(24.8)	141(100.0)	
	6학년	60(56.1)	17(15.9)	30(28.0)	107(100.0)	
	전담교사	29(87.9)	2(6.1)	2(6.1)	33(100.0)	
	전체	617(66.8)	147(15.9)	160(17.3)	924(100.0)	

<표 11> 재량활동시간의 활동 유형의 빈도와 백분율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예술관련 활동	정보화관련 활동	교과관련 활동	기타활동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15(24.2)	23(37.1)	18(29.0)	6(9.7)	62(100.0)	$\chi^2=96.61^{**}$
	부산광역시	0(0.0)	41(69.5)	16(27.1)	2(3.4)	59(100.0)	
	인천광역시	7(14.3)	32(65.3)	6(12.2)	4(8.2)	49(100.0)	
	대구광역시	1(1.7)	47(79.7)	9(15.3)	2(3.4)	59(100.0)	
	광주광역시	3(5.5)	38(69.1)	14(25.5)	0(0.0)	55(100.0)	
	대전광역시	8(14.5)	31(56.4)	12(21.8)	4(7.3)	55(100.0)	
	울산광역시	4(8.7)	35(76.1)	7(15.2)	0(0.0)	46(100.0)	
	강원도	4(8.7)	31(67.4)	10(21.7)	1(2.2)	46(100.0)	
	경기도	10(6.1)	109(66.5)	35(21.3)	10(6.1)	164(100.0)	
	경상남도	1(1.9)	46(88.5)	5(9.6)	0(0.0)	52(100.0)	
	경상북도	0(0.0)	45(81.8)	10(18.2)	0(0.0)	55(100.0)	
	전라남도	3(6.4)	33(70.2)	8(17.0)	3(6.4)	47(100.0)	
	전라북도	8(14.8)	34(63.0)	9(16.7)	3(5.6)	54(100.0)	
	제주도	1(5.0)	14(70.0)	4(20.0)	1(5.0)	20(100.0)	
	충청남도	4(7.5)	36(67.9)	10(18.9)	3(5.7)	53(100.0)	
	충청북도	2(4.2)	38(79.2)	5(10.4)	3(6.3)	48(100.0)	
	전체	71(7.7)	633(68.5)	178(19.3)	42(4.5)	924(100.0)	
학교소재	대도시	41(10.2)	260(64.8)	82(20.4)	18(4.5)	401(100.0)	$\chi^2=13.51^*$
	중소도시	23(5.6)	305(73.7)	69(16.7)	17(4.1)	414(100.0)	
	읍면	7(6.4)	68(62.4)	27(24.8)	7(6.4)	109(100.0)	
	전체	71(7.7)	633(68.5)	178(19.3)	42(4.5)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221(10.0)	152(72.0)	36(17.1)	2(0.9)	211(100.0)	$\chi^2=15.94$
	6~10년	17(8.8)	122(62.9)	46(23.7)	9(4.6)	194(100.0)	
	11~20년	14(5.9)	166(69.5)	43(18.0)	16(6.7)	239(100.0)	
	21년 이상	19(6.8)	193(68.9)	53(18.9)	15(5.4)	280(100.0)	
	전체	71(7.7)	633(68.5)	178(19.3)	42(4.5)	924(100.0)	
학교규모	12학급 이하	13(44.8)	11(37.9)	5(17.2)	0(0.0)	29(100.0)	$\chi^2=62.30^{**}$
	13~30학급 이하	22(8.8)	168(67.5)	46(18.5)	13(5.2)	249(100.0)	
	31학급 이상	36(5.6)	454(70.3)	127(19.7)	29(4.5)	646(100.0)	
	전체	71(7.7)	633(68.5)	178(19.3)	42(4.5)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5(100.0)	0(0.0)	0(0.0)	5(100.0)	$\chi^2=14.77$
	11~20명 이하	0(0.0)	6(100.0)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11(8.0)	103(74.6)	18(13.0)	6(4.3)	138(100.0)	
	31~40명 이하	54(8.7)	417(66.8)	123(19.7)	30(4.8)	624(100.0)	
	41명 이상	6(4.0)	102(67.5)	37(24.5)	6(4.0)	151(100.0)	
	전체	71(7.7)	633(68.5)	178(19.3)	42(4.5)	924(100.0)	
담당학년	1학년	13(7.5)	125(71.8)	29(16.7)	7(4.0)	174(100.0)	$\chi^2=28.35^*$
	2학년	15(9.5)	107(67.7)	27(17.1)	9(5.7)	158(100.0)	
	3학년	17(9.7)	108(61.4)	41(23.3)	10(5.7)	176(100.0)	
	4학년	8(5.9)	96(71.2)	23(17.0)	8(5.9)	135(100.0)	
	5학년	11(7.8)	87(61.7)	37(26.2)	6(4.3)	141(100.0)	
	6학년	7(6.5)	88(82.2)	11(10.3)	1(0.9)	107(100.0)	
	전담교사	0(0.0)	22(66.7)	10(30.3)	1(3.0)	33(100.0)	
	전체	71(7.7)	633(68.5)	178(19.3)	42(4.5)	924(100.0)	

<표 12> 무용 및 연극영화와 관련된 교과단원 교수방법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설명식 교수법으로 교과지도	교재연구를 통한 다양 한 방법	전담교사나 강사의 도움 받아 지도	자원인사 및 전공자 초빙 지도	기타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13(21.0)	31(50.0)	8(12.9)	8(12.9)	2(3.2)	62(100.0)	$\chi^2=138.08^{**}$
	부산광역시	15(25.4)	37(62.7)	5(8.5)	0(0.0)	2(3.4)	59(100.0)	
	인천광역시	14(28.6)	26(5.3)	5(10.2)	3(6.1)	1(2.0)	49(100.0)	
	대구광역시	19(32.2)	34(57.6)	4(6.8)	0(0.0)	2(3.4)	59(100.0)	
	광주광역시	24(43.6)	26(47.3)	3(5.5)	0(0.0)	2(3.6)	55(100.0)	
	대전광역시	17(30.9)	29(52.7)	3(5.5)	0(0.0)	6(10.9)	55(100.0)	
	울산광역시	19(41.3)	22(47.8)	0(0.0)	5(10.9)	0(0.0)	46(100.0)	
	강원도	20(43.5)	13(28.3)	5(10.9)	1(2.2)	7(15.2)	46(100.0)	
	경기도	45(27.4)	93(56.7)	13(7.9)	3(1.8)	10(6.1)	164(100.0)	
	경상남도	23(44.2)	17(32.7)	7(13.5)	3(5.8)	2(3.8)	52(100.0)	
	경상북도	17(30.9)	28(50.9)	6(10.9)	4(7.3)	0(0.0)	55(100.0)	
	전라남도	32(68.1)	10(21.3)	1(2.1)	2(4.3)	2(4.3)	47(100.0)	
	전라북도	15(27.8)	35(64.8)	2(3.7)	1(1.9)	1(1.9)	54(100.0)	
	제주도	6(30.0)	14(70.0)	0(0.0)	0(0.0)	0(0.0)	20(100.0)	
	충청남도	21(39.6)	27(50.9)	1(1.9)	1(1.9)	3(5.7)	53(100.0)	
	충청북도	18(37.5)	25(52.1)	2(4.2)	0(0.0)	3(6.3)	48(100.0)	
	전체	318(34.4)	467(50.5)	65(7.0)	31(3.4)	43(4.7)	924(100.0)	
학교 소재	대도시	126(31.4)	212(52.9)	31(7.7)	15(3.7)	17(4.2)	401(100.0)	$\chi^2=11.18$
	중소도시	142(34.3)	214(51.7)	27(6.5)	12(2.9)	19(4.6)	414(100.0)	
	읍면	50(45.9)	41(37.6)	7(6.4)	4(3.7)	7(6.4)	109(100.0)	
	전체	318(34.4)	467(50.5)	65(7.0)	31(3.4)	43(4.7)	924(100.0)	
교직 경력	5년 이하	72(34.1)	108(51.2)	25(7.1)	7(3.3)	9(4.3)	211(100.0)	$\chi^2=36.22^{**}$
	6~10년	65(33.5)	111(57.2)	5(2.6)	11(5.7)	2(1.0)	194(100.0)	
	11~20년	91(38.1)	100(41.8)	18(5.7)	9(3.8)	21(8.8)	239(100.0)	
	21년 이상	90(32.1)	148(52.9)	27(9.6)	4(1.4)	11(3.9)	280(100.0)	
	전체	318(34.4)	467(50.5)	65(7.0)	31(3.4)	43(4.7)	3924(100.0)	
학교 규모	12학급 이하	3(10.3)	17(58.6)	4(13.8)	5(17.2)	0(0.0)	29(100.0)	$\chi^2=67.31^{**}$
	13~30학급 이하	91(36.5)	99(39.8)	26(10.4)	20(8.0)	13(5.2)	249(100.0)	
	31학급 이상	224(34.7)	351(54.3)	35(5.4)	6(0.9)	30(4.6)	646(100.0)	
	전체	318(34.4)	467(50.5)	65(7.0)	31(3.4)	43(4.7)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3(60.0)	2(40.0)	0(0.0)	0(0.0)	0(0.0)	5(100.0)	$\chi^2=29.71^*$
	11~20명 이하	0(0.0)	4(66.7)	2(33.3)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48(34.8)	60(43.5)	12(8.7)	11(8.0)	7(5.1)	138(100.0)	
	31~40명 이하	223(35.7)	313(50.2)	44(7.1)	18(2.9)	26(4.2)	624(100.0)	
	41명 이상	44(29.1)	88(58.3)	7(4.6)	2(1.3)	10(6.6)	151(100.0)	
	전체	223(34.4)	313(50.5)	44(7.0)	18(3.4)	26(4.7)	924(100.0)	
담당 학년	1학년	59(33.9)	93(53.4)	6(3.4)	4(2.3)	12(6.9)	174(100.0)	$\chi^2=71.04^{**}$
	2학년	47(29.7)	92(58.2)	7(4.4)	4(2.5)	8(5.1)	158(100.0)	
	3학년	69(39.2)	92(52.3)	9(5.1)	3(1.7)	3(1.7)	176(100.0)	
	4학년	52(38.5)	69(51.1)	6(4.4)	2(1.5)	6(4.4)	135(100.0)	
	5학년	55(39.0)	63(44.7)	13(9.2)	6(4.0)	4(2.8)	141(100.0)	
	6학년	32(29.9)	42(39.3)	16(15.0)	10(9.3)	7(6.5)	107(100.0)	
	전담교사	4(12.1)	16(48.5)	8(24.2)	2(6.1)	3(9.1)	33(100.0)	
	전체	318(34.4)	467(50.5)	65(7.0)	31(3.4)	43(4.7)	924(100.0)	

<표 13> 예술관련 교과지도를 통한 아동들의 학업성취도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10-30%	30-50%	60-90%	90% 이상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9(14.5)	25(40.3)	26(41.9)	2(3.2)	62(100.0)	$\chi^2=102.54^{**}$
	부산광역시	1(1.7)	20(33.9)	38(64.4)	0(0.0)	59(100.0)	
	인천광역시	2(4.1)	23(46.9)	22(44.9)	2(4.1)	49(100.0)	
	대구광역시	1(1.7)	18(30.5)	39(66.1)	1(1.7)	59(100.0)	
	광주광역시	3(5.5)	20(36.4)	32(58.2)	0(0.0)	55(100.0)	
	대전광역시	11(20.0)	14(25.5)	29(52.7)	1(1.8)	55(100.0)	
	울산광역시	0(0.0)	25(54.3)	20(43.5)	1(2.2)	46(100.0)	
	강원도	5(10.9)	18(39.1)	22(47.8)	1(2.2)	46(100.0)	
	경기도	14(8.5)	73(44.5)	72(43.9)	5(3.0)	164(100.0)	
	경상남도	3(5.8)	32(61.5)	15(28.8)	2(3.8)	52(100.0)	
	경상북도	3(5.5)	15(27.3)	34(61.8)	3(5.5)	55(100.0)	
	전라남도	9(19.1)	19(40.4)	19(40.4)	0(0.0)	47(100.0)	
	전라북도	8(14.8)	19(35.2)	25(46.3)	2(3.7)	54(100.0)	
	제주도	1(5.0)	1(5.0)	15(75.0)	3(15.0)	20(100.0)	
	충청남도	7(13.2)	16(30.2)	30(56.6)	0(0.0)	53(100.0)	
	충청북도	7(14.6)	23(47.9)	17(35.4)	1(2.1)	48(100.0)	
전체		84(9.1)	361(39.1)	455(49.2)	24(2.6)	924(100.0)	
학교 소재	대도시	31(7.7)	159(39.7)	203(50.6)	8(2.0)	401(100.0)	$\chi^2=4.81$
	중소도시	39(9.4)	162(39.1)	199(48.1)	14(3.4)	414(100.0)	
	읍면	14(12.8)	40(36.7)	53(48.6)	2(1.8)	109(100.0)	
	전체	84(9.1)	361(39.1)	455(49.2)	24(2.6)	924(100.0)	
교직 경력	5년 이하	16(7.6)	99(46.9)	94(44.5)	2(0.9)	211(100.0)	$\chi^2=21.82^{**}$
	6~10년	14(7.2)	83(42.8)	92(47.4)	5(2.6)	194(100.0)	
	11~20년	20(8.4)	91(38.1)	124(51.9)	4(1.7)	239(100.0)	
	21년 이상	34(12.1)	88(31.4)	145(51.8)	13(4.6)	280(100.0)	
	전체	84(9.1)	361(39.1)	455(49.2)	24(2.6)	3924(100.0)	
학교 규모	12학급 이하	9(31.0)	16(55.2)	4(13.8)	0(0.0)	29(100.0)	$\chi^2=32.38^{**}$
	13~30학급 이하	13(5.2)	107(43.0)	121(48.6)	8(3.2)	249(100.0)	
	31학급 이상	62(9.6)	238(36.8)	330(51.1)	16(2.5)	646(100.0)	
	전체	84(9.1)	361(39.1)	455(49.2)	24(2.6)	924(100.0)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하	0(0.0)	3(60.0)	0(0.0)	2(40.0)	5(100.0)	$\chi^2=45.80^{**}$
	11~20명 이하	0(0.0)	3(50.0)	3(50.0)	0(0.0)	6(100.0)	
	21~30명 이하	3(2.2)	67(48.6)	66(47.8)	2(1.4)	138(100.0)	
	31~40명 이하	68(10.9)	233(37.3)	307(49.2)	16(2.6)	624(100.0)	
	41명 이상	13(8.6)	55(36.4)	79(52.3)	4(2.6)	151(100.0)	
	전체	84(9.1)	361(39.1)	455(49.2)	24(2.6)	924(100.0)	
담당 학년	1학년	17(9.8)	52(29.9)	101(58.0)	4(2.3)	174(100.0)	$\chi^2=35.87^{**}$
	2학년	10(6.3)	66(41.8)	75(47.5)	7(4.4)	158(100.0)	
	3학년	18(10.2)	68(38.6)	88(50.0)	2(1.1)	176(100.0)	
	4학년	15(11.1)	51(37.8)	67(49.6)	2(1.5)	135(100.0)	
	5학년	14(9.9)	67(47.5)	52(36.9)	8(5.7)	141(100.0)	
	6학년	6(5.6)	50(46.7)	50(46.7)	1(0.9)	107(100.0)	
	전담교사	4(12.1)	7(21.2)	22(66.7)	0(0.0)	33(100.0)	
	전체	84(9.1)	361(39.1)	455(49.2)	24(2.6)	924(100.0)	

<표 14> 예술관련 전문교사의 필요성

학교 특성		반응빈도(%)						전체(%)	교차분석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32(51.6)	21(33.9)	7(11.3)	2(3.2)	0(0.0)	0(0.0)	62(100.0)	$\chi^2=111.13$ **
	부산광역시	20(33.9)	23(39.0)	14(23.7)	2(3.4)	0(0.0)	0(0.0)	59(100.0)	
	인천광역시	21(42.9)	22(44.9)	4(8.2)	2(4.1)	0(0.0)	0(0.0)	49(100.0)	
	대구광역시	18(30.5)	27(45.8)	9(15.3)	3(5.1)	2(3.4)	0(0.0)	59(100.0)	
	광주광역시	15(27.3)	27(49.1)	11(20.0)	2(3.6)	0(0.0)	0(0.0)	55(100.0)	
	대전광역시	17(30.9)	23(41.8)	10(18.2)	3(5.5)	0(0.0)	2(3.6)	55(100.0)	
	울산광역시	18(39.1)	15(32.6)	9(19.6)	2(4.3)	2(4.3)	0(0.0)	46(100.0)	
	강원도	30(65.2)	14(30.4)	2(4.3)	0(0.0)	0(0.0)	0(0.0)	46(100.0)	
	경기도	75(45.7)	58(35.4)	23(14.0)	5(3.0)	2(1.2)	1(0.6)	164(100.0)	
	경상남도	16(30.8)	25(48.1)	9(17.3)	2(3.8)	0(0.0)	0(0.0)	52(100.0)	
	경상북도	28(50.9)	18(32.7)	1(1.8)	8(14.5)	0(0.0)	0(0.0)	55(100.0)	
	전라남도	19(40.4)	19(40.4)	7(14.9)	1(2.1)	1(2.1)	0(0.0)	47(100.0)	
	전라북도	29(53.7)	19(35.2)	4(7.4)	2(3.7)	0(0.0)	0(0.0)	54(100.0)	
	제주도	8(40.0)	10(50.0)	2(10.0)	0(0.0)	0(0.0)	0(0.0)	20(100.0)	
학교소재	충청남도	24(45.3)	21(39.6)	5(9.4)	3(5.7)	0(0.0)	0(0.0)	53(100.0)	
	충청북도	19(39.6)	23(47.9)	3(6.3)	3(6.3)	0(0.0)	0(0.0)	48(100.0)	
	전체	389(42.1)	365(39.5)	120(13.0)	40(4.3)	7(0.8)	3(0.3)	924(100.0)	
	전체	389(42.1)	365(39.5)	120(13.0)	40(4.3)	7(0.8)	3(0.3)	924(100.0)	
교직경력	대도시	147(36.7)	169(42.1)	62(15.5)	17(4.2)	4(1.0)	2(0.5)	401(100.0)	$\chi^2=13.14$
	중소도시	194(46.9)	153(37.0)	48(11.6)	16(3.9)	2(0.5)	1(0.2)	414(100.0)	
	읍면	48(44.0)	43(39.4)	10(9.2)	7(6.4)	1(0.9)	0(0.0)	109(100.0)	
	전체	389(42.1)	365(39.5)	120(13.0)	40(4.3)	7(0.8)	3(0.3)	924(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99(46.9)	80(37.9)	28(13.3)	1(0.5)	3(1.4)	0(0.0)	211(100.0)	$\chi^2=33.20$ **
	6~10년	64(33.0)	85(43.8)	31(16.0)	13(6.7)	1(1.5)	0(0.0)	194(100.0)	
	11~20년	94(39.3)	105(43.9)	31(13.0)	7(2.9)	1(0.4)	1(0.4)	239(100.0)	
	21년 이상	132(47.1)	95(33.9)	30(10.7)	19(6.8)	2(0.7)	2(0.7)	280(100.0)	
학교규모	전체	389(42.1)	365(39.5)	120(13.0)	40(4.3)	7(0.8)	3(0.3)	924(100.0)	$\chi^2=12.55$
	12학급 이하	14(48.3)	15(51.7)	0(0.0)	0(0.0)	0(0.0)	0(0.0)	29(100.0)	
	13~30학급 이하	111(44.6)	99(39.8)	29(11.6)	7(2.8)	3(1.2)	0(0.0)	249(100.0)	
	31학급 이상	264(40.9)	251(38.9)	91(14.1)	33(5.1)	4(0.6)	3(0.5)	646(100.0)	
학급당 학생수	전체	389(42.1)	365(39.5)	120(13.0)	40(4.3)	7(0.8)	3(0.3)	924(100.0)	$\chi^2=51.23$ **
	10명 이하	0(0.0)	0(0.0)	2(40.0)	3(60.0)	0(0.0)	0(0.0)	5(100.0)	
	11~20명 이하	2(33.3)	2(33.3)	2(33.3)	0(0.0)	0(0.0)	0(0.0)	6(100.0)	
	21~30명 이하	62(44.9)	55(39.9)	12(8.7)	7(5.1)	2(1.4)	0(0.0)	138(100.0)	
	31~40명 이하	260(41.7)	250(40.1)	83(13.3)	24(3.8)	5(0.8)	2(0.3)	624(100.0)	
	41명 이상	65(43.0)	58(38.4)	21(13.9)	6(4.0)	0(0.0)	0(0.0)	151(100.0)	
담당학년	전체	389(42.1)	365(39.5)	120(13.0)	40(4.3)	7(0.8)	3(0.3)	924(100.0)	$\chi^2=36.02$ **
	1학년	72(41.4)	76(43.7)	17(9.8)	6(3.4)	2(28.6)	1(0.6)	174(100.0)	
	2학년	63(39.9)	68(43.0)	18(11.4)	8(5.1)	1(14.3)	0(0.0)	158(100.0)	
	3학년	76(43.2)	57(32.4)	27(15.3)	12(6.8)	2(28.6)	2(1.1)	176(100.0)	
	4학년	45(33.3)	58(43.0)	23(17.0)	8(5.9)	1(14.3)	0(0.0)	135(100.0)	
	5학년	60(42.6)	60(42.6)	16(11.3)	4(2.8)	1(14.3)	0(0.0)	141(100.0)	
	6학년	56(52.3)	38(35.5)	11(10.3)	2(1.9)	0(0.0)	0(0.0)	107(100.0)	
	전담교사	17(51.5)	8(24.2)	8(24.2)	0(0.0)	0(0.0)	0(0.0)	33(100.0)	
전체	전체	389(42.1)	365(39.5)	120(13.0)	40(4.3)	7(0.8)	3(0.3)	924(100.0)	